

발 간 등 록 번 호

11-1383000-001030-10

2024년 국가성평등보고서

2024. 12.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4년 국가성평등보고서

2024. 12.

연 구 기 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이동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효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송치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연구요약

1. 연구 목적 및 내용

□ 연구 목적

- 국가성평등지수는 한국 특성에 맞게 개발된 지표를 통해 계량화된 수치로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성평등 정책과제 및 발전 방향을 도출하도록 활용되고 있음.
- 국가성평등지수는 2023년 통계 기준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하위지표를 분석하여 성평등이 취약한 분야를 제시하고, 성평등 정책 개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함.

□ 연구 내용

-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3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범주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및 추이 분석

- 2023년 기준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및 목표, 영역별 최근 성평등 수준 분석
- 지수의 특징, 산정방안, 영역별 세부지표의 내용분석, 자료원 정리

2.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성평등 위치 분석

- 국제성평등지수(GGI, GII 등)을 활용한 한국 성평등 위치 파악
- OECD 회원국 등 주요 국가와의 성평등 수준 비교 분석

3. 양성평등 수준 제고 전략 도출

- 주요 성평등 정책과 지표의 연계표 제시
- 지표별 관리 부처 연계 등

[주요 연구 내용]

□ 연구 방법

- 문헌연구: 성평등지수 관련 방법론 및 문헌 검토
- 통계 수집 및 분석: 지표별 성인지통계 수집 및 분석
- 자문회의: 영역별 주요 현안 및 정책개선 방안에 대한 자문의견 청취

2. 국가성평등지수 지표 구성

□ 국가성평등지수 법적 근거

○ 국가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에 의거, 성평등한 사회 참여, 성평등 의식 및 문화, 여성 인권 및 복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지표 구성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경제, 교육 및 문화, 보건, 복지 및 인권, 의사결정 등으로 제시됨.

□ 국가성평등지수 지표 구성

○ 국가성평등지수는 3개의 양성평등 목표를 중심으로 총 7개 영역, 23개 세부지표로 구성됨. 영역 및 세부지표는 다음과 같음.

- 의사결정 영역은 여성의 정치·사회·경제적 권한을 보여줌.
- 고용 영역은 성평등과 관련한 노동참여 기회와 노동시장의 분절적 구조에 주목해 여성의 노동 취약성을 반영함.
- 소득 영역은 시장소득과 사회소득의 재분배적 보장을 고려하여 구성됨.
- 교육 영역은 교육 기회와 질을 반영하도록 구성됨.
- 건강 영역은 여성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목표로 구성됨.
- 돌봄 영역은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여성 집중과 돌봄노동에 대한 평가절하 개선을 목적으로 평등한 참여와 공유, 돌봄노동 인정을 측정지표로 구성함.
- 양성평등의식 영역은 성평등지수 개편에 따라 신규로 포함된 분야로 양성평등의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

〈국가성평등지수 목표 및 영역, 지표〉

목표	영역	지표	통계적 정의	자료원
동등한 권한	의사 결정	국회의원 비율	25세 이상 인구 대비 국회의원이 차지하는 비율 성비(여성/남성)	국제의원연맹(IPU)
		장관 비율	장관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국제의원연맹(IPU)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공무원 인원 비율로 조정된 4급 이상 공무원 성비 (여성/남성)	인사혁신처,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
		법원·검찰·경찰 고위직 비율	판사(법관), 검사,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율 성비(여성/남성)	인사혁신처,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
		관리자 비율	15세 이상 취업자 중 관리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성비(여성/남성)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목표	영역	지표	통계적 정의	자료원
자원의 동등한 접근	고용	고용률	15~64세 고용률 성비(여성/남성)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정규직 비율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형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비율 성비(여성/남성)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노동시장 직종분리	던컨의 성별 상이성 지수(Index of Dissimilarity)로 측정된 값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경력단절여성 비율	기혼여성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가족 돌봄의 사유가 아닌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 비율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부가조사
	소득	임금 격차	시간당 임금에 대한 성비(여성/남성)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빈곤위험 (비빈곤율)	시장소득 중위 50% 이하 소득자 비율 성비(여성/남성)	통계청·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국민연금 수급률	60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수급자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
	교육	평균 교육년수	15세 이상 인구에 대한 평균 교육년수 성비(여성/남성)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분석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만 18~21세 인구 중 고등교육기관에 재적학생 비율 성비(여성/남성)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19세 이상 인구 대상 조사 결과, 자신의 전반적 건강상태에 대해 '좋음'이라 응답한 비율 성비(여성/남성)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수명	기대여명에서 유병기간을 뺀 수명 성비(여성/남성)	통계청, 「생명표」
		스트레스 비인지율	만 19세 이상 인구의 스트레스 비인지율 성비(여성/남성)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평등한 관계	돌봄	가사노동 시간	20세 이상 인구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을 취업자 비율로 조정한 가사노동시간 역성비(남성/여성)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육아휴직 참여	당해 연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의 역성비(남성/여성)	통계청, 「육아휴직통계」
		노인돌봄 분담	일상생활 수행이 불편한 노인들의 비공식 돌봄자의 역성비(남성/여성)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목표	영역	지표	통계적 정의	자료원
양성 평등 의식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여성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성차별 경험률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받은 차별 경험 비율 성비(여성/남성)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12세 이상 인구의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비동의 비율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여성폭력지표〉

영역	지표		자료원
안전	발생 현황	성폭력 범죄 발생비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경찰통계연보」
		여성 살해 발생비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경찰통계연보」
	피해 현황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 경험률	여성가족부, 「성폭력안전실태조사」
		지난 1년간 가정폭력(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률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직장 성희롱 피해 경험률	여성가족부, 「성희롱실태조사」
	사회 환경	성폭력 및 범죄 피해 두려움	여성가족부, 「성폭력안전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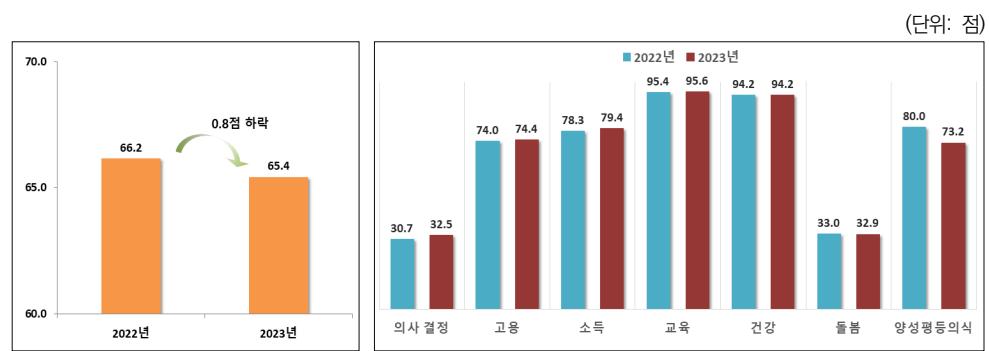
3. 국가성평등지수 특징 및 산정 방법

- 국가성평등지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첫째, 투입보다 성과를 측정하는 지수임.
 - 둘째, 성별 격차를 측정하는 지수임.
 - 셋째, 영역별 성평등 수준을 점검하고, 정책의 관리를 목적으로 측정되는 지수임.
- 국가성평등지수 산정 방법
 - 국가성평등지수는 다음의 4단계 과정을 통해 산정됨.
 - 단계 1: 지표의 수준을 최소 0과 최대 100으로 표준화. 지표 값을 성비(Female-to-Male ratio)로 전환
 - 단계 2: 비율로 전환된 지표 값에 관련 가중치(Weight) 부여

- 단계 3: 영역별 지수 추정치 산정
- 단계 4: 국가성평등지표의 복합지수 산정

4.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추이

□ (총점) 2023년 통계 기준 국가성평등지수는 65.4점으로 전년(66.2점) 대비 0.8점 하락함.



[연도별 성평등 변화 추이]

[영역별 성평등 수준 변화]

□ (목표별) 자원의 동등한 접근(85.9점)의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고, 평등한 관계(53.1점), 동등한 권한(32.5점) 순임.

□ (영역별) 7개 영역 중 교육 영역(95.6점)의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고, 전년 대비 소폭 개선 되었지만, 의사결정 영역(32.5점)이 가장 저조함.

※ 교육(95.6점) > 건강(94.2점) > 소득(79.4점) > 고용(74.4점) > 양성평등의식(73.2점) > 돌봄(32.9점) > 의사결정(32.5점)

○ (상승) 의사결정(1.8점 ↑), 소득(1.1점 ↑), 고용(0.4점 ↑), 교육(0.2점 ↑) 영역은 전년 대비 상승함.

○ (하락) 양성평등의식(6.8점 ↓), 돌봄(0.1점 ↓) 영역은 전년 대비 하락함.

□ (지표별) 전체 23개 중 10개 지표 상승, 7개 지표는 하락, 6개 지표는 전년 동일

○ (상승) 4급 이상 공무원 비율(3.6점 ↑), 관리자 비율(2.6점 ↑), 국민연금 수급률(2.4점 ↑), 법원·검찰·경찰 고위직 비율(2.2점 ↑), 노인돌봄 분담(2.0점 ↑), 고용률(1.8점 ↑), 임금 격차(1.0점 ↑), 국회의원 비율(0.7점 ↑), 평균교육년수(0.2점 ↑), 경력단절여성 비율

(0.2점 ↑) 등은 전년 대비 상승함.

- (하락)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16.4점 ↓),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3.3점 ↓), 육아휴직 참여(2.3점 ↓), 성차별 경험률(0.7점 ↓), 정규직 비율(0.2점 ↓), 노동시장 직종분리 (0.2점 ↓), 빈곤위험(0.1점 ↓) 등은 전년 대비 하락함.

〈국가성평등지수 수준〉

(단위: 점)

영역 및 지표	성비	2022	2023	22년 vs 23년
국가성평등지수		66.2	65.4	-0.8
동등한 권한	의사결정	30.7	32.5	1.8
	국회의원 비율	F/M	22.3	23.0
	장관 비율	F/M	20.0	20.0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F/M	46.7	50.3
	관리자 비율	F/M	22.5	25.1
	법원·검찰·경찰 고위직 비율	F/M	41.8	44.0
자원의 동등한 접근	고용		74.0	74.4
	고용률	F/M	78.0	79.8
	정규직 비율	F/M	77.8	77.6
	노동시장 직종분리	지수	57.4	57.2
	경력단절여성 비율	지수	82.8	83.0
	소득		78.3	79.4
	임금 격차	F/M	70.0	71.0
	빈곤위험	F/M	94.9	94.8
	국민연금 수급률	F/M	70.0	72.4
	교육		95.4	95.6
건강	평균 교육년수	F/M	90.9	91.1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F/M	100.0	100.0
	주관적 건강상태	F/M	88.3	88.3
	건강수명	F/M	100.0	100.0
스트레스 비인지율			94.3	94.3
				0.0

영역 및 지표		성비	2022	2023	22년 vs 23년	
평등한 관계		돌봄	33.0	32.9	-0.1	
		가사노동시간	M/F	30.7	30.7	0.0
		육아휴직 참여	M/F	37.0	34.7	-2.3
		노인돌봄 분담	M/F	31.4	33.4	2.0
		양성평등의식			-6.8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	84.6	81.3	-3.3
		성차별 경험률	F/M	95.4	94.7	-0.7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	60.1	43.7	-16.4

주: 각 연도 통계 기준.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비인지율은 미발표. 건강수명, 가사노동시간은 시계열 갱신되지 않음.

5. 영역별 성평등 지표 추이와 특징

- (의사결정 영역) '23년 32.5점으로 전년(30.7점) 대비 1.8점 상승했으나, 7개 영역 중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음.
- 4급 이상 공무원 비율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인 3.6%p 개선되었으며, 관리자 비율, 법원·검찰·경찰 고위직 비율, 국회의원 비율도 상승함.
 - * 국회의원의 여성 비율(%): ('22) 18.6 → ('23) 19.1
 - * 장관의 여성 비율(%): ('22) 16.7 → ('23) 16.7
 - * 4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 비율(%): ('22) 23.2 → ('23) 25.1
 - * 관리자 중 여성관리자 비율(%): ('22) 14.7→ ('23) 16.4
 - * 법원·검찰·경찰 고위직의 여성 비율(%): ('22) 29.5 → ('23) 30.5
- 5개 세부지표 중 4개 지표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 국회의원, 장관, 관리자 등에서의 여성 대표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의사결정 영역 성평등 점수〉

(단위: 점)

연도	의사결정 영역					
		국회의원 비율	장관 비율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법원·검찰·경찰 고위직 비율
'22년	30.7	22.3	20.0	46.7	22.5	41.8
'23년	32.5	23.0	20.0	50.3	25.1	44.0
(증감)	1.8	0.7	0.0	3.6	2.6	2.2

□ (고용 영역) '23년 74.4점으로 전년(74.0점) 대비 0.4점 상승함.

- 고용률은 전년 대비 여성 고용률이 증가하고, 남성 고용률은 오르지 않아 비율이 개선되었고, 경력단절여성 비율도 소폭 개선되었음.
 - * 고용률(%): ('22) 女 60.0/男 76.9 → ('23) 女 61.4/男 76.9
 - * 경력단절여성 비율(%): ('22) 17.2 → ('23) 17.0
- 비정규직은 전년 대비 여성보다 남성의 감소 폭이 더 커 성평등 수준이 하락하였고, 노동 시장 직종분리 비율도 소폭 감소함.
 - *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22) 女 46.0/男 30.6 → ('23) 女 45.5/男 29.8
 - * 노동시장 직종분리(%): ('22) 42.6 → ('23) 42.8

〈고용 영역 성평등 점수〉

(단위: 점)

연도	고용 영역				
		고용률	정규직 비율	노동시장 직종분리	경력단절여성 비율
'22년	74.0	78.0	77.8	57.4	82.8
'23년	74.4	79.8	77.6	57.2	83.0
(증감)	0.4	1.8	-0.2	-0.2	0.2

□ (소득 영역) '23년 79.4점으로 전년(78.3점) 대비 1.1점 상승함.

- 국민연금 수급률의 경우, 전년 대비 여성의 수급률은 상승, 남성의 수급률은 감소하여 점수가 가장 크게 상승하였고, 성별임금격차도 시간당 임금이 전년 대비 여성의 상승 폭이 남성보다 커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었음.

- * 시간당 임금(원): ('22) 女 18,113/男 25,886 → ('23) 女 18,502/男 26,042
- * 비빈곤율(%): ('22) 女 77.7/男 81.9 → ('23) 女 78.0/男 82.3
- * 국민연금 수급률(%): ('22) 女 41.4/男 59.1 → ('23) 女 41.8/男 57.8

〈소득 영역 성평등 점수〉

(단위: 점)

연도	소득 영역	임금 격차	빈곤위험	국민연금 수급률
'22년	78.3	70.0	94.9	70.0
'23년	79.4	71.0	94.8	72.4
(증감)	1.1	1.0	-0.1	2.4

- (교육 영역) '23년 95.6점으로 전년(95.4점) 대비 0.2점 상승하였고, 7개 영역 중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음.
-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완전 성평등 수준을 유지하고, 평균 교육 년수도 전년 대비 비율이 상승함.
 - * 평균 교육년수(년): ('22) 女 11.9/男 13.1 → ('23) 女 12.1/男 13.2
 - *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22) 女 73.1/男 69.9 → ('23) 女 76.6/男 73.3

〈교육 영역 성평등 점수〉

(단위: 점)

연도	교육 영역	평균 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22년	95.4	90.9	100.0
'23년	95.6	91.1	100.0
(증감)	0.2	0.2	0.0

- (건강 영역) '23년 94.2점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7개 영역 중 성평등 수준이 두 번째로 높음.
- 건강수명은 여성이 남성보다 길어 완전 성평등 수준을 유지함.
 - * 주관적 건강상태(%): ('22) 女 36.1/男 40.9
 - * 건강수명(년): ('20) 女 67.2/男 65.6 → ('22) 女 66.1/男 65.1
 - * 스트레스 비인지율(%): ('22) 女 69.7/男 73.9

〈건강 영역 성평등 점수〉

(단위: 점)

연도	건강 영역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수명	스트레스 비인자율
'22년	94.2	88.3	100.0	94.3
'23년	94.2	88.3	100.0	94.3
(증감)	0.0	0.0	0.0	0.0

주: 1) 건강수명은 2년 주기 생산으로 2023년은 2022년 자료로 대체함.
 2) 주관적 건강상태 및 스트레스 비인자율은 원자료가 아직 생산되지 않아 2022년 점수로 대체함.

□ (돌봄 영역) '23년 32.9점으로 전년(33.0점) 대비 0.1점 하락하였고, 7개 영역 중 성평등 수준이 두 번째로 낮음.

○ 노인돌봄은 2020년 대비 2023년 남성의 돌봄 수행 비율이 증가하여 성별 격차가 감소함.

* 노인돌봄의 남성 비율(%): ('20) 23.9 → ('23) 25.0

○ 육아휴직 참여는 전체 육아휴직자 규모가 감소한 상황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감소 폭이 커 육아분담의 성평등 수준은 감소하였음.

* 육아휴직자(명): ('22) 男 54,565/女 147,528 → ('23, 잠정) 男 50,455/女 145,531

○ 가사노동시간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긴 상태임.

* 가사노동시간(시간:분): 취업자 ('19) 女 2:24/男 0:49, 비취업자 ('19) 女 3:50/男 1:06

〈돌봄 영역 성평등 점수〉

(단위: 점)

연도	돌봄 영역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 참여	노인돌봄 분담
'22년	33.0	30.7	37.0	31.4
'23년	32.9	30.7	34.7	33.4
(증감)	-0.1	0.0	-2.3	2.0

주: 가사노동시간은 5년 주기 생산으로 2019년 자료로 대체함.

□ (양성평등의식 영역) '23년 73.2점으로 전년(80.0점) 대비 6.8점 하락했으며, 전체 세부 지표 중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점수의 전년 대비 하락 폭이 가장 큼.

○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4개 문항에 대해 2020년 대비 2023년 비동의 비율이 하락했는데, 여성의 가사·돌봄 수행에 대한 비동의 비율 하락이 남성의 부양 및 의사결정 문항보다 더 크게 나타남.

- *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비동의, %)
 - :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 ('20) 51.0 → ('23) 38.0
 - 가족의 의사결정은 주로 남성 ('20) 64.5 → ('23) 50.5
 - 가사는 주로 여성 ('20) 62.3 → ('23) 43.1
 - 가족 돌봄은 주로 여성 ('20) 62.6 → ('23) 43.1
-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및 성차별 경험률도 전년 대비 하락했는데, 두 지표 모두 남성보다 여성에서 하락 폭이 커 성별 격차가 커진 상황임.
- *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22) 84.6 → ('23) 81.3
- * 성차별 경험률(%): ('22) 女 92.4/男 96.9 → ('23) 女 89.3/男 9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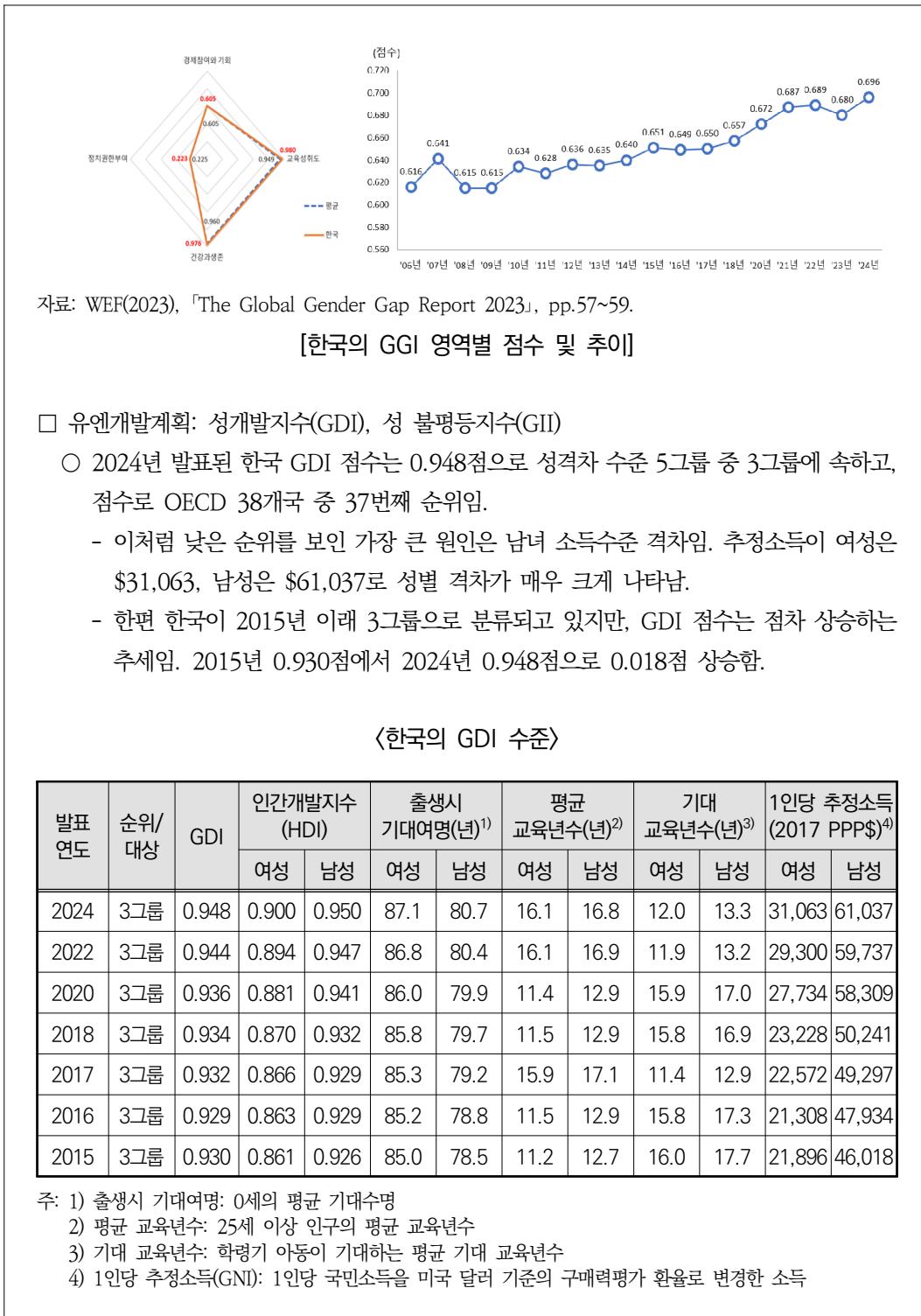
〈양성평등의식 영역 성평등 점수〉

(단위: 점)

연도	양성평등의식 영역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성차별 경험률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22년	80.0	84.6	95.4	60.1
'23년	73.2	81.3	94.7	43.7
(증감)	-6.8	-3.3	-0.7	-16.4

6. 국제성평등지수와 한국의 성평등 수준

- 세계경제포럼: 성격차지수(GGI)
- 2024년 발표된 GGI 한국 순위는 전체 146개국 중 94위로 2023년 105위 대비 11단계 상승, 점수는 0.696점으로 2023년 0.680점 대비 0.016점 상승함.
 - 순위 상승의 주된 이유는 정치적 권한의 장관 비율 개선임. 영역별로 정치적 권한이 크게 상승하였고, 경제활동 참여 및 기회, 교육적 성취 분야에서 점수가 상승함.
 - 지난 16년간 점수는 2006년 0.616점에서 2024년 0.696점으로 0.080점 상승하였고, 2023년 소폭 하락을 제외하면 대체로 상승 추세임.



- GI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높은 수준으로 인간개발에서의 성불평등이 낮은 국가라 볼 수 있음.

- 2024년 발표 기준 한국의 GII는 0.062점으로 193개국 중 16위를 차지함. 2022년 15위 0.067점과 비교하면 순위가 1단계 하락하지만, 성불평등은 0.005점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GII 수준〉

발표 연도	순위/ 대상	점 수	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	
			모성 사망비 ¹⁾	청소년 출산율 ²⁾	국회 여성의원 비율(%)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 ³⁾	경제활동참가율(%) ⁴⁾	여 성	남 성
2024	16/193	0.062	8	2.1	18.6	83.6	93.5	55.0	73.7
2022	15/191	0.067	11	2.2	19.0	83.1	93.1	53.4	72.4
2020	11/189	0.064	11	1.4	16.7	80.4	95.5	52.9	73.1
2019	10/189	0.058	11	1.4	17.0	89.8	95.6	52.8	73.3
2018	10/189	0.063	11	1.6	17.0	89.9	95.6	52.2	73.2
2017	10/188	0.067	11	1.6	16.3	88.8	94.6	50.0	71.8
2015	23/155	0.125	27	2.2	16.3	77.0	89.1	50.1	72.1
2014	17/152	0.101	16	2.2	15.7	77.0	89.1	49.9	72.0

주: 1) 모성사망비(UN Maternal Mortality Estimation Group): 임신, 출산 관련 합병증으로 출생 10만명당 사망 수

2) 청소년 출산율(UNDESA): 15~19세 여성인구 1,000명당 출산 수

3)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비율(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5세 이상 중, 중등 교육(중·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인구 비율

4) 국제노동기구 통계(ILO)

7. 양성평등수준 제고 방향

□ 영역별 성평등 추이

- 전체 지수는 각 원점수와 가중치를 고려해 산정되므로 전체 지수에 대한 영향은 가중치 수준을 고려하여 파악하는 것이 타당함. 아래 2022년 및 2023년 점수와 가중치를 고려, 지수에 대한 영향을 표를 제시하였음.

- 전체 지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양성평등의식 점수의 하락임. 2022년 대비 2023년 6.8점이 하락하였고, 가중치를 고려할 때 전체 지수에서 1.22점 하락으로 이어짐. 다음 지수 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은 돌봄 영역으로 영역 점수가 2022년 대비 2023년 0.1점 하락하였고, 가중치를 고려할 때 전체 지수에서 0.02점 하락으로 이어짐. 의사결정 영역은 가중치가 0.14점인 상황에서 영역 점수가 2022년 대비 2023년 1.8점 상승, 전체 지수의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소득과 고용 역시 가중치와 증감을 고려할 때, 지수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의사결정, 소득, 고용, 교육 등 4개 영역이 지수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양성 평등의식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지 못하였고, 양성평등의식 영역의 하락이 2023년 전체 지수의 하락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국가성평등지수 변화에 대한 영역별 영향〉

영역	가중치	점수			지수에 대한 영향*
		2022년	2023년	2022년 대비 증감	
의사결정	0.14	30.7	32.5	1.8	0.25
고용	0.18	74.0	74.4	0.4	0.07
소득	0.16	78.3	79.4	1.1	0.18
교육	0.08	95.4	95.6	0.2	0.02
건강	0.09	94.2	94.2	0.0	0.00
돌봄	0.17	33.0	32.9	-0.1	-0.02
양성평등의식	0.18	80.0	73.2	-6.8	-1.22

주: 1)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2) 영향은 증감 × 가중치로 산정

□ 영역별 성평등 변화 요인

- 2023년 통계 기준 국가성평등지수는 65.4점으로 교육, 건강, 소득, 고용, 양성평등의식 등 5개 영역이 지수보다 점수가 높고, 돌봄 및 의사결정 등 2개 영역이 지수보다 점수가 낮은 상황임.
- 전체 영역 중 가장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이는 영역은 의사결정 및 돌봄임. 이를 영역의 점수는 35점에도 못 미치는데, 가중치도 낮지 않아 전체 국가성평등지수 견인을 위해 의사결정 및 돌봄 영역 개선을 위한 노력이 경주됨.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양성평등의식

영역 역시 성평등 수준 개선을 위해 필수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부분임. 또 각 영역별 하락지표 등도 함께 관리되어야 함.

- 먼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양성평등의식의 경우, 점수는 70점 대로 상대적으로 낮지 않으나, 2022년에 비해 큰 폭 하락하여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됨. 다만, 양성평등 의식 영역 3개 지표 중 2개는 정책 개입의 결과가 아닌 의식 자체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보니 정책 개입을 통한 성평등 수준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임.
- 돌봄 영역의 경우, 돌봄의 여성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전년 대비 2023년 0.1점 하락하였지만, 세부지표 중 육아휴직 참여가 2022년 대비 2023년 2.3점 하락, 다른 지표에 비해 상대적인 하락 폭이 큰 상황임. 2023년 처음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감소하고, 여성보다 남성의 감소 폭이 커 전체 육아휴직 참여 비율의 하락을 야기하였음.
- 고용 영역의 경우, 전체 중 네 번째로 성평등 수준이 높지만, 정규직 비율과 노동시장 직종분리 등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음. 비정규직 비율의 경우, 전체 규모가 감소하였고, 여성에서도 0.5%p 감소했는데 남성의 감소 폭이 더 커서 정규직 비율 점수의 하락을 야기하였음. 노동시장 직종분리 역시 2015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22년 하반기부터 다시 회복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42.8% 수준으로 낮아 직종분리 완화를 위한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판단됨.

□ 성평등지수 활용과 관리 방안

- 지표의 관리기관과 협력하여 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중앙행정 부처는 성평등 관리 지표에 대해 성 주류화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 취약 분야를 보완할 수 있는 실증기반 정책 수립이 원활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국가승인통계를 검토,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목 차

I.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과 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6
II. 국가성평등지수 개요	7
1. 지표의 특징과 구성	9
가.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변화와 법적 기반	9
나. 국가성평등지수의 목표 및 영역별 지표구성	16
2. 산정 방법	19
III.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과 추이	27
1.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과 특징	29
가. 국가성평등지수 수준과 변화 추이	29
나. 정책목표 및 영역별 국가성평등 수준 변화와 특징	31
2. 영역별 지표의 국가성평등 수준 변화와 특징	33
가. 동등한 권한	33
나. 자원의 동등한 접근	37
다. 평등한 관계	48
IV. 국제성평등지수와 한국의 성평등 수준	55
1.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57
가.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소개	57
나. GG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62
2. 유엔개발계획의 성개발지수와 성불평등 지수	71
가. 성개발지수 소개	71

나. GD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75
다. 성불평등지수 소개	79
라. GI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85
3.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사회제도와 젠더지수	89
가. 사회제도와 젠더지수 소개	89
나. SIG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95
4. 국제성평등지수 비교와 한국 성평등 수준 차이	98
가. 국제성평등지수와 한국 성평등 수준 차이 비교	98
나. 국제성평등지수에서 나타난 한국의 순위 해석 및 시사점	101
V. 양성평등수준 제고 방향	105
1. 영역별 성평등 추이와 개선 방향	107
가. 국가성평등지수 변화 분석	107
나. 영역별 성평등 변화 요인	109
2. 국가성평등지수 활용과 관리 방안	119
■ 참고문헌	123
■ 부 록	127
〈부록 1〉 국가성평등지수 지표	129
〈부록 2〉 국가성평등지수 영역별 통계표	132
〈부록 3〉 여성폭력지표 통계표	139

표 목 차

〈표 II-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구성 변화	10
〈표 II-2〉 국가성평등지수 지표	12
〈표 II-3〉 여성폭력지표	14
〈표 II-4〉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15
〈표 II-5〉 「양성평등기본법」 조항과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18
〈표 II-6〉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값 산정에 적용되는 조정치	21
〈표 II-7〉 국가성평등지수의 영역별 가중치	22
〈표 II-8〉 1년 이상 생산주기를 가진 통계의 최신 연도	22
〈표 II-9〉 국가성평등지수 지표별 측정 방법	23
〈표 III-1〉 동등한 권한 성평등지수 변화	37
〈표 III-2〉 자원의 동등한 접근 성평등지수 변화	48
〈표 III-3〉 평등한 관계 성평등지수 변화	54
〈표 IV-1〉 GGI의 구성 및 각 영역별 지표	59
〈표 IV-2〉 GGI의 지표구성과 자료원	60
〈표 IV-3〉 GGI 지수 산출을 위한 가중치	62
〈표 IV-4〉 한국의 GGI 수준 추이	65
〈표 IV-5〉 경제참여와 기회 분야의 GGI 수준 추이	66
〈표 IV-6〉 교육적 성취 분야의 GGI 수준 추이	67
〈표 IV-7〉 건강과 생존 분야의 GGI 수준 추이	67
〈표 IV-8〉 정치적 권리 분야의 GGI 수준 추이	68
〈표 IV-9〉 OECD 국가 중 2024년 GGI 1위 국가와 한국 간의 수준 격차	68
〈표 IV-10〉 OECD 회원국의 2024년 GGI 현황	69
〈표 IV-11〉 기존 GDI와 새로운 GDI 비교	71
〈표 IV-12〉 GDI 영역과 지표	72
〈표 IV-13〉 GDI 지표별 자료원	73
〈표 IV-14〉 GDI의 최대·최소값 설정	74
〈표 IV-15〉 한국의 GDI 수준	76

〈표 IV-16〉 OECD 회원국의 2024년 GDI 현황	77
〈표 IV-17〉 GII의 영역과 지표	81
〈표 IV-18〉 GII 지표별 자료원	82
〈표 IV-19〉 한국의 GII 수준 추이	86
〈표 IV-20〉 OECD 회원국의 2024년 GII 현황	87
〈표 IV-21〉 SIGI 지표별 측정 변수와 자료원	90
〈표 IV-22〉 SIGI 변수별 표준화 방법	93
〈표 IV-23〉 법률 지표에 대한 내용별 점수 부여	94
〈표 IV-24〉 SIGI 점수 분류	95
〈표 IV-25〉 한국의 SIGI 점수	96
〈표 IV-26〉 2023년 SIGI 지역별 결과 비교	97
〈표 IV-27〉 2023년 SIGI 국가별 분류	98
〈표 IV-28〉 국제성평등지수와 OECD 회원국(38개국) 내 한국의 현황	100
〈표 IV-29〉 국제성평등지수 비교	103
〈표 V-1〉 국가성평등지수 변화	107
〈표 V-2〉 국가성평등지수 변화에 대한 영역별 영향	108
〈표 V-3〉 국가성평등지수 영역별 세부지표 증감	110
〈표 V-4〉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지표 구성	111
〈표 V-5〉 성별 비정규직 근로자	116
〈표 V-6〉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별 관리와 생산기관	120
〈표 V-7〉 주요 기본계획과 국가성평등지수 연계	121

그 림 목 차

[그림 I-1] 주요 연구 내용	5
[그림 II-1] 국가성평등지수의 프레임워크 변화	12
[그림 II-2] 개편 국가성평등지수 산정 방법	19
[그림 III-1] 국가성평등지수 수준과 변화	29
[그림 III-2] 국가성평등지수 추세	30
[그림 III-3] 국가성평등지수 증감	30
[그림 III-4] 정책목표별 국가성평등지수 추이	31
[그림 III-5] 정책목표, 영역별 성평등 추이(좌: 동등한 권한, 중앙: 자원의 동등한 접근, 우: 평등한 관계)	32
[그림 III-6] 국회의원 비율 추이	33
[그림 III-7] 장관 비율 추이	34
[그림 III-8]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추이	35
[그림 III-9] 법원, 검찰, 경찰 고위직 비율 추이	35
[그림 III-10] 관리자 비율 추이	36
[그림 III-11] 의사결정 영역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36
[그림 III-12] 고용률 추이	38
[그림 III-13] 비정규직 비율 추이	38
[그림 III-14] 노동시장 직종분리 추이	39
[그림 III-15] 경력단절여성 비율 추이	39
[그림 III-16] 고용 영역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40
[그림 III-17] 임금 격차 추이	41
[그림 III-18] 빈곤위험 추이	41
[그림 III-19] 국민연금 수급률 추이	42
[그림 III-20] 소득 영역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42
[그림 III-21] 평균교육년수 추이	43
[그림 III-22]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추이	44
[그림 III-23] 교육 영역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44

[그림 III-24] 주관적 건강상태 추이	45
[그림 III-25] 건강수명 추이	46
[그림 III-26] 스트레스 비인자율 추이	46
[그림 III-27] 건강 영역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47
[그림 III-28] 가사노동시간 추이	49
[그림 III-29] 육아휴직 참여 추이	50
[그림 III-30] 노인돌봄 분담 추이	50
[그림 III-31] 돌봄 영역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51
[그림 III-32]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추이	52
[그림 III-33] 성차별 경험률 추이	52
[그림 III-34]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추이	53
[그림 III-35] 양성평등의식 영역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54
[그림 IV-1] GGI 지수 산정 단계	61
[그림 IV-2] 2024년 한국의 GGI 수준	63
[그림 IV-3] 한국의 GGI 점수 추이	64
[그림 IV-4] SIGI 개념 프레임워크	90
[그림 V-1]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 영역별 현황	109
[그림 V-2]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성별	111
[그림 V-3]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연령별	112
[그림 V-4] 육아휴직자 규모 및 비중	114
[그림 V-5] 연령대별 전체 육아휴직자	114
[그림 V-6] 비정규직 비율 추이(2011년~2023년)	115
[그림 V-7]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	117
[그림 V-8] 노동시장 직종분리 - 던컨지수	118

부 표 목 차

〈부표 1-1〉 국가성평등지수 지표	129
〈부표 2-1〉 국회의원 비율	132
〈부표 2-2〉 장관 비율	132
〈부표 2-3〉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132
〈부표 2-4〉 법원, 검찰, 경찰 고위직 비율	133
〈부표 2-5〉 관리자 비율	133
〈부표 2-6〉 고용률	133
〈부표 2-7〉 정규직 비율	133
〈부표 2-8〉 노동시장 직종분리	134
〈부표 2-9〉 경력단절여성 비율	134
〈부표 2-10〉 (시간당) 임금	134
〈부표 2-11〉 빈곤위험(빈곤율)	134
〈부표 2-12〉 국민연금 수급률	135
〈부표 2-13〉 평균교육년수	135
〈부표 2-14〉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135
〈부표 2-15〉 주관적 건강상태	135
〈부표 2-16〉 건강수명	136
〈부표 2-17〉 스트레스 비인지율	136
〈부표 2-18〉 가사노동시간	136
〈부표 2-19〉 육아휴직 참여	137
〈부표 2-20〉 노인돌봄 분담	137
〈부표 2-21〉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137
〈부표 2-22〉 성차별 경험률	138
〈부표 2-23〉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138
〈부표 3-1〉 성폭력 범죄 발생비	139
〈부표 3-2〉 여성 살해 발생비	139
〈부표 3-3〉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 경험률	140

〈부표 3-4〉 지난 1년간 가정폭력(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률	141
〈부표 3-5〉 직장 성희롱 피해 경험률	142
〈부표 3-6〉 성폭력 및 범죄 피해 두려움	143

I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과 방법	5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 제5조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기관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양성평등 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필요 자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동법에 따르면,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의미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양성평등기본법」). 즉, 국가기관은 남녀 모두가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와 평등한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양성 평등한 사회를 구현할 의무를 부여받고, 이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2015년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24년 기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정책 전반의 성 주류화를 도모하면서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도 확장되어 왔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고령화 이슈에 대응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남녀의 노동중심 생애 설계는 물론, 일터에서의 관행적 성차별 해소를 정책추진 방향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

성평등 정책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은 더디게 개선되어 왔다. 국가 개발 수준에서 성평등 수준을 고려하는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는 비교적 높은 순위를 유지하지만, 성별 격차에 집중하는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의 경우, OECD 국가 중 34위로 낮은 순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는 두 지수의 산출 방식 차이 및 노동, 정치 영역의 뚜렷한 성별 격차에 기인한다. 더불어 각 지수의 성격에 따라 국가 점수 및 순위가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도 한국의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성평등 지표를 통해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국가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성평등지수를 작성, 발표하여 왔다(주재선 외, 2023: 3). 국가성평등 지수는 2015년 7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동법 제19조에 의거,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주재선 외, 2023: 4).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1항은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개발 및 보급 사항에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여성의 인권·복지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양성평등기본법」).

4 2024년 국가성평등보고서

국가성평등지수는 2023년까지 성평등한 사회 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등 3개 영역에 대해 8개 분야, 25개 세부지표로 구성을 유지하여 왔다. 다만, 지표 체계가 오래 유지되면서 변화하는 사회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주요 현안을 다루는 정책 형성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9년 기준 지표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연구를 추진하였다. 국가성평등지수 신규 지표는 사회경제적 기회와 자원에 대한 동등한 접근과 권한 확보를 통해 평등한 관계 설정 및 인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지표 설계 후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거쳐 지수의 영역과 지표, 여성 폭력영역의 핵심 지표를 잡정 확정하였다. 이후 2023년 측정 과정에서 나타난 지표의 통계품질 문제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표가 수정되었다. 최종 국가성평등 지수는 동등한 권한, 자원의 동등한 접근, 평등한 관계를 목표로 하는 7개 영역, 23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2023년은 기존 국가성평등지수와 개편 국가성평등 지수를 함께 측정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4년 연구는 개편된 국가성평등지수 지표체계를 적용하여 2023년 통계 기준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세부지표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성평등 변화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둔다. 더불어 성격차지수(GGI), 성불평등지수(GII) 등 국제 성평등지수를 분석하여 한국의 성평등 위치와 성평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의 전략적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과 방법

가. 연구내용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각 범주의 세부 내용은 [그림 I-1]과 같다.

1.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및 추이 분석

- 2023년 기준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및 목표, 영역별 최근 성평등 수준 분석
- 지수의 특징, 산정방안, 영역별 세부지표의 내용분석, 자료원 정리

2.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성평등 위치 분석

- 국제성평등지수(GGI, GII 등)을 활용한 한국 성평등 위치 파악
- OECD 회원국 등 주요 국가와의 성평등 수준 비교 분석

3. 양성평등 수준 제고 전략 도출

- 주요 성평등 정책과 지표의 연계표 제시
- 지표별 관리 부처 연계 등

[그림 I-1] 주요 연구 내용

먼저, 국가성평등지수 측정하고, 추이를 분석한다. 국가성평등지수의 구성 지표들을 측정하고, 성평등 목표에 따른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의 변화를 분석하여 국가성평등 지수를 산정한다. 목표별 세부지표들의 변화를 주요 변수 등을 통해 살펴보고, 국가 성평등지수와 영역별 변화 특징 및 원인 등을 분석한다. 국가성평등지수의 특성과 산정 방법 등을 제시하고, 구성 지표들에 대해 통계를 최신화하고, 자료원을 정리하여 제시 한다.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성평등 위치를 분석한다.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 값이 성평등 수준을 어느 정도 나타내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을 분석한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성평등지수 중 유엔개발계획(UNDP)의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이하 GII), 성개발지수(Gender Development Index, 이하 GDI),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지수(Gender Gap

6 2024년 국가성평등보고서

Index, 이하 GGI) 등을 활용하여 각 지수의 특징과 산출 방식 등을 제시하고, 주요 국가와 한국의 수준을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성평등지수의 영역별 세부지표 분석 결과를 활용해 변화 원인을 확인하고, 취약영역의 양성평등수준 제고 전략 등을 도출한다.

나.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성평등 관련 방법론 및 정책을 검토한다. 국가성평등지수의 개편 방향 및 추이 등을 확인하고, 관련 문헌을 검토한다. 국제 성평등지수와의 비교 분석을 위해 UNDP, WEF 등 주요 기구별 성평등지수 산출 방법론을 제시하고, 국제 기구의 공표된 성평등 지수에 관한 문현을 분석한다.

둘째, 지표별 성인지 통계를 수집, 분석한다. 영역별 성평등 지표에 대한 통계의 자료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한다. 주요 자료는 국가통계포털 등 통계 DB와 부처의 행정통계 등을 통해 수집하고, 일부 통계는 마이크로데이터 원자료 분석을 통해 생산하였다.

셋째, 각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주요 지표별 통계 수집 및 분석 이후 성평등지수 초안이 도출되면, 각 영역의 변화 수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취약 영역에 대한 적절한 기술, 해석 방안 등을 모색한다. 이후 성평등지수가 확정되면 성평등 목표 및 정책영역, 세부지표 추이를 공유하고, 취약 영역 개선 및 정책 개선 방향 발굴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얻도록 한다.

II

국가성평등지수 개요

1. 지표의 특징과 구성	9
2. 산정 방법	19

1. 지표의 특징과 구성¹⁾

가.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변화와 법적 기반

국가성평등지수는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성 불평등이 심각한 영역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성평등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된다. 국가성평등지수는 2009년 처음 개발되었다. 여성 및 사회지표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전문가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영역 및 지표 초안을 구성하였다. 이후 법적 기반이 갖추어지면서 영역과 지표들이 조금씩 변경되어 왔다. 지표구성의 변화 과정은 다음 <표 II-1>과 같다.

2009년에 최초 8개 분야 226개 지표 풀(pool)을 구성하였고, 자문회의를 거쳐 8개 분야 149개 지표를 구성하였다. 분야별 전문가집단 200명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지표 21개, 관리지표 83개를 선정하고, 분야별 가중치를 측정하였다. 대표지표는 우리나라 전체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변화 추이, 변동 요인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 동시에, 국가성평등지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를 의미한다. 이에 분야별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와 통계의 측정 가능성, 품질, 주기 등을 고려하여 21개의 대표지표를 선정하였다. 관리지표 83개는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성 불평등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되었다.

2009년 지표 개발 이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등 4번의 지표 구성 변화가 있었다. 각 시기의 지표 변화는 세부지표가 완전 성평등 상태에 도달하거나, 성평등 측정의 정합성, 통계의 품질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2016년 이후에도 국가성평등지수 지표 개편에 대한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2019년 성평등지수 전면 개편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이후 성평등 지표 확정을 위한 TF 등이 구성되어 검토하였지만, 지수 측정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큰 개편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단, 2018년 복지 분야의 빈곤 가구주 비율을 성별 빈곤 인구로 변경하면서 통계 기준을 가구 단위에서 개인 단위의 빈곤으로 변경하고, 빈곤 기준선을 최저소득 이하의 절대 빈곤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의 상대빈곤으로 변경하였다.

기존 국가성평등지수 지표가 장기간 유지됨에 따라 사회변화에 따른 주요 성평등 이슈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를 고려하여 2019년 지표의 전면 개편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지표의 변경 이유는 다음과 같다.²⁾

1) 주재선 외(2021), 「2021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p.11~16. 인용하여 작성하였음.

10 2024년 국가성평등보고서

첫째, 사회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지표들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셋째아 출생 성비나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 균로자 성비 등이다.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 지표는 참여 여부가 아니라, 산업 및 노동시장의 변화, 이로 인해 성별화되고 있는 직업훈련의 내용을 반영하여 노동시장 진입 및 경력 형성에 나타나는 성 불평등을 측정하거나, 교육 및 직업훈련에서의 성별 접근성 차이 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과 문화 분야는 성 불평등을 파악하기에 적절치 않은 지표들로 구성되어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해당 분야 지표 중 셋째아 출산율은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저출생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고, 가족관계 만족도, 여가 만족도, 정보화 격차 역시 가족 내의 성 불평등을 측정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이다.

둘째, 기존 성평등지수의 정책활용도와 사회적 영향력이 크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초기 국가성평등지수는 대표지표와 관리지표를 구분하여 대표지표는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면서 성평등지수 산정 지표로 활용하고, 관리지표는 부처별 연계 관리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성평등지수는 대표지표를 활용한 산정 이외, 부처별 협력 부족으로 관리지표의 정책개선 도구로서 역할이 낮은 상황이었다.

2019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성가족부는 2020년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지표 타당성 검증과 가중치 설정, 공청회 등을 거쳤다. 2021년 지수검토위원회를 통해 지수 개편안을 검토·보완하였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 조회, 정책자문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친 후 2022년 1월 양성평등위원회가 최종안을 심의·확정하였다. 2023년 젠더 의식 영역의 명칭과 지표의 통계적 문제를 고려해 영역 명과 지표를 변경하였다. 젠더 의식 영역은 명칭이 다소 명확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양성평등의식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양성평등의식 지표 중 노동시장 성평등 태도는 통계 품질 문제로 삭제하였고,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과 성차별 경험률을 새로 추가하였다.

〈표 II-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구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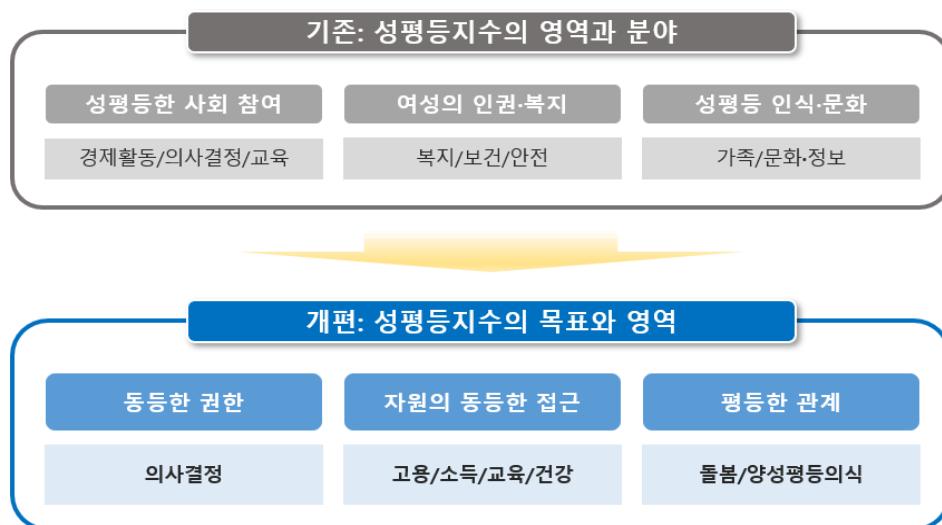
연도	지표구성 개편 내용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8개 분야 226개 지표풀 구성 후 자문회의를 통해 8개 분야 149개 지표 구성◦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200명)하여 대표 지표 21개, 관리 지표 83개, 분야별 가중치 측정◦ 최종 8개 분야(가족, 보건, 복지, 경제활동·소득,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안전) 21개의 대표 지표로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2) 개편 사유는 김경희·주재선·김수정·김은경(2019), 「국가성평등지수 개편 및 활용방안」, pp.5~6 내용을 인용 및 요약 정리한 것임.

연도	지표구성 개편 내용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 분야 20개의 지표로 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건강수명' 지표가 생산주기가 불규칙하고 완전 평등수준 도달로 삭제 -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성별 격차'를 '건강 관련 삶의 질(EQ-5D)'로 대체 - '인구 10만명당 범죄 피해자 성별 격차'를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 피해자 비율'로 대체 - '성별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을 '상용직 근로자 비율'로 대체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 분야 21개의 지표로 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입원급여 수급자의 성비'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급자의 성비'로 지표명 변경 - 보건 분야에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지표 추가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국가성평등지수 작성의 법적 근거 마련 ◦ 8개 분야 23개의 지표로 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분야에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와 '육아휴직 성비' 지표 추가 - 문화·정보 분야에서 '성별 정보화 격차'를 추가하고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의 성비' 삭제 - 보건 분야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급자 성비' 삭제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 분야 25개의 지표로 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 분야에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을 '4급 이상 공무원 비율'로 수정하고 '정부위원회 위원 비율' 추가 - 보건 분야에서 '스트레스 인자율' 추가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 분야 빙고지표 측정 방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빙고가구주를 성별 빙고인구로 변경함. 즉, 가구 단위 빙고 지표를 개인 단위 빙고으로 변경하고 빙고 기준선을 최저소득 이하의 절대 빙고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상대 빙고 기준선으로 변경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편 지표 초안 개발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편 지표로 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정책목표, 7개 영역, 23개 세부지표 확정 - 개편 지표 초안에서 일부 수정 보완 * (변경) 젠더의식 → 양성평등의식 (추가)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과 성차별 경험률 추가 (삭제) 노동시장성평등 태도(시유: 통계 활용의 품질 문제)

자료: 1) 주재선 외(2022), 「2022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12 인용
 2) 주재선 외(2023), 「2023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24 인용

개편 성평등지수는 성평등 개념에 대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이에 근거하여 시의성과 적합성을 갖춘 지표들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성평등을 권한 및 자원의 동등한 분배, 인정(Rrecognition), 그리고 동등한 참여로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성평등 개념을 기반으로 3대 목표를 '동등한 권한', '자원의 동등한 접근', '평등한 관계'로 설정하였다.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의사결정, 고용, 소득, 교육, 건강, 돌봄, 양성평등의식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23개의 지표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여성 폭력은 별도의 특별 지표로 설정하여 3개 분야의 6개의 지표로 구성하였다.



[그림 II-1] 국가성평등지수의 프레임워크 변화

개편 성평등지수의 목표-영역-지표구성 체계는 〈표 II-2〉와 같다.

〈표 II-2〉 국가성평등지수 지표

목표	영역	지표
동등한 권리	의사결정	국회의원 비율
		장관 비율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법원, 검찰, 경찰 고위직 비율
		관리자 비율
자원의 동등한 접근	고용	고용률
		정규직 비율
		노동시장 직종분리
		경력단절여성 비율
	소득	임금 격차
		빈곤위험(비빈곤율)
	교육	국민연금 수급률
		평균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목표	영역	지표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수명 <u>스트레스 비인지를</u>
	돌봄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 참여 노인돌봄 분담
평등한 관계	양성평등의식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성차별 경험률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의사결정 영역은 여성의 정치·사회·경제적 권한을 보여주는 영역으로 정치적 대표성, 행정적 대표성, 경제적 대표성을 고려하여 지표를 구성하였다. 여성 대표성은 매우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영역이다. 세부 지표는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국회의원 비율, 장관 비율, 행정적 대표성을 보여주는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법원·검찰·경찰 고위직 비율, 그리고 경제적 대표성을 보여주는 관리자 비율 등 5개로 구성된다.

고용 영역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보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개선 속도가 높지 않은 영역이다. 성평등과 관련하여 노동시장 참여(기회)와 노동시장의 분절적 구조에 주목하고, 여성의 노동 취약성을 고려하여 고용률, 정규직 비율, 경력단절 여성 비율, 노동시장 직종분리를 지표로 선정하였다.

소득 영역은 임금 및 자산 소득과 같은 시장소득의 분배 평등과 사회소득의 재분배적 보장의 성평등을 고려하여 지표를 구성하였다. 지표는 측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임금 격차, 빈곤위험(비빈곤율), 국민연금 수급률로 구성하였다.

교육 영역은 교육 기회와 교육의 질을 고려하여 지표를 구성하였다. 기존 지표에서 교육은 평균 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직업훈련 경험 비율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기회 및 성취를 나타내는 지표로 평균 교육년수는 유지하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을 대신해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을 측정하기로 하였다.

건강 영역은 기존 지표에서 여성의 건강 보호 및 증진 목표 하에 건강 관련 삶의 질 (EQ-5D),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을 사용하였으나, 개편된 지표는 젠더 이슈가 낮은 지표를 제외하고, 건강 상태 중심으로 재편하여 주관적 건강 상태, 건강수명,

스트레스 인지율 등으로 구성하였다.

돌봄 영역은 여전히 성별 격차가 크고,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모두 여성에 집중되고, 가치에 대한 평가절하가 두드러진 영역임에도 기존 지표에서 돌봄 불평등을 명시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돌봄을 하나의 영역으로 구성하고 돌봄의 평등한 참여와 공유, 돌봄 노동에 대한 인정을 측정 개념으로 하여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 참여, 노인 돌봄 분담 등 3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양성평등의식은 돌봄과 함께 새로 포함된 영역으로 양성평등의식 수준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성역할 규범과 성평등 의식 등 양성평등의식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정책적 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양성평등의식을 하나의 영역으로 구분했고, 지표는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성차별 경험률,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선정하였다. 다만, 양성 평등의식 영역은 개인의 ‘인식’, ‘의식’ 측정의 결과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표들과 구분된다.

〈표 II-3〉 여성폭력지표

지표		자료원(주기)
발생 현황	성폭력 범죄 발생비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경찰통계연보」(1년 주기)
	여성 살해 발생비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경찰통계연보」(1년 주기)
피해 현황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 경험률	여성가족부, 「성폭력안전실태조사」(3년 주기)
	지난 1년간 가정폭력(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률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3년 주기)
	직장 성희롱 피해 경험률	여성가족부, 「성희롱실태조사」(3년 주기)
사회환경	성폭력 및 범죄 피해 두려움	여성가족부, 「성폭력안전실태조사」(3년 주기)

한편 여성폭력 영역은 성별 격차도 중요하지만, 폭력의 실태와 심각성을 드러내고, 이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평등지수 본 지표에는 포함하지 않고, 핵심 지표로 별도 구성하였다. 여성폭력 영역은 발생과 피해 현황을 드러내고, 범죄 두려움을 보여주기 위하여 발생 현황, 피해 현황, 사회환경 등 3개의 세부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지표는 총 6개로 ‘성폭력 범죄 발생비’, ‘여성 살해 발생비’,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 경험률’, ‘지난 1년간 가정폭력(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률’, ‘직장 성희롱 피해 경험률’, ‘성폭력 및 범죄 피해 두려움’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폭력지표는 성평등지수의 변화와

여성 폭력 변화를 연계 분석하고 여성의 폭력 실태와 심각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상의 국가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법적 기반을 둔다. 2009년 초기 지수 개발 단계에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의 ‘3-2-1 여성정책 협의·조정 강화’를 토대로 성평등지표를 통하여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산정·발표되었다. 이후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공표되면서 법적 근거(제19조)를 갖게 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 19조 ①항에 의거, 국가 성평등지표는 세 개의 영역 즉,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5조는 국가성평등지수의 구체적 측정 분야를 규정하고 있다.

〈표 II-4〉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u>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u> ②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 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 및 조사·공표 등) ①여성가족부 장관이 조사·공표하는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이하 “국가성평등지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이하 “지역성 평등지수”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2. 보건, 복지 및 인권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3. 의사결정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4. 그 밖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성평등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양성평등기본법>

국가성평등지수는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복합지수로써 다음과 같은 특징과 성격을 가진다.

첫째, 국가성평등지수는 정책의 투입(Input)보다 성과(Outcome)를 측정하도록 개발되었다. 지수 작성 시에는 지수의 목적에 따라 투입지표와 성과지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성평등지수의 경우, OECD의 사회제도와 젠더지수(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이하 SIGI)는 성 불평등을 초래하는 전통,

사회적 규범, 문화적 관습 및 제도를 측정하기 위해 투입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하지만 대부분 국제 성평등지수는 성과지표를 활용한다. 성평등 수준의 국가별 비교를 위해서 측정·발표되고 있는 WEF의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Social Watch의 성형평성지수(Gender Equity Index), UNDP의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와 성개발지수(Gender Development Index)는 물론 지금은 발표되지 않지만 2010년까지 가장 널리 활용되었던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또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측정되는 지수이다.

둘째, 국가성평등지수는 성별 수준(Level)보다 성별 격차(Gap)에 초점을 두고 측정된다. 성별 수준은 자원과 기회에 대한 남녀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성별 수준은 한 국가의 개발 정도와 환경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분야별 성평등 수준이 국가의 개발 정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가 있다. 국가성평등지수를 성별 격차로 산정한다는 것은 국가 발전 수준과 관계없이 성별 격차가 나타나는 지점에 정책적 개입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를 가진다. 여성의 발전 수준 개선과 성 격차의 해소는 분명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성평등정책의 지향에 따라 달리 해석 가능하다. 즉, 성평등정책의 지향을 수준 개선에 둔다면, 정책의 우선 순위가 항상 낮은 수준의 지표 개선에 맞춰지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성별 격차의 해소에 정책 지향을 둔다면, 해당 분야의 발전 수준과 관계없이 남녀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지표를 우선 순위로 두고, 정책 개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성평등지수는 원칙적으로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하지만, 다수 지표를 성별 격차 즉, 성비 혹은 역성비로 구성하여 성별 격차 해소에 더 큰 관심을 준 지수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성평등지수는 성 격차가 감소할 때 성평등이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셋째, 국가성평등지수는 성평등 수준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성평등 정도를 점검, 관리할 목적으로 측정된다. 이에 성평등 달성을 아니라 여성 지위 및 권한 향상을 목적으로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나. 국가성평등지수의 목표 및 영역별 지표구성

국가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제19조 ①항과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주요 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구성은 3개의 정책목표, 7개 영역의 23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3개의 정책목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주요 요소에 기반한다.

먼저, 「양성평등기본법」의 제3장 중 제2절 양성평등 참여는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 합리적 범위에서 해당 성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 「양성평등기본법」). 제3장 제2절 양성평등 참여와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제20조 적극적 조치, 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2조 공직 참여, 제23조 정치 참여, 제24조 경제활동 참여, 제25조 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26조 일·가정 양립지원, 제27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제28조 여성인재의 관리·육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국가법령정보 「양성평등기본법」). 이는 동등한 권한 및 자원의 동등한 접근 등 2개의 정책목표에 해당한다. 적극적 참여를 통해 권한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동등한 권한 추구에 해당하고, 고용, 소득, 교육 등에서 권한으로서 동등한 자원 확보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등한 접근에 해당한다. 의사결정의 경우, 정책결정 및 공직, 정치, 경제활동 등에의 참여 보장을 주요 지표로 설정하였다. 고용 및 소득 영역의 경우, 자원에 대한 동등한 접근 권한 확보 및 결과로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표를 설정하였다.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여성인재의 관리·육성 부분은 교육 영역 및 의사결정 중 관리자 비율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 역시 양성평등한 참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장의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영역은 제29조 성차별의 금지, 제30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31조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방지 조치, 제32조 성희롱 실태조사, 제33조 복지증진, 제34조 건강증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시행령 15조에 근거하여 국가성평등지수 중 건강 및 여성폭력 영역에 연계되어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장의 제4절 양성평등 문화확산 관련 조항 중 제35조 양성평등한 가족 형성, 제37조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대해 평등한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돌봄 및 양성평등의식 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물론, 돌봄이 가족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제35조(양성평등한 가족)에 의거,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반영한다는 측면, 또 이를 통해 가사 및 돌봄 등 무급노동의 성평등한 분배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제4절에 해당한다 볼 수 있다. 이에 돌봄노동의 중요성 및 불평등한 돌봄 분배 상황을 고려하여 돌봄 영역으로 단독 구성하고, 성평등한 가사노동 및 돌봄 분배 관련 내용을 세부지표로 구성하였다. 양성평등의식의 경우, 여성 인권이나 성차별, 가족 내 성별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드러낼 수 있는 지표로 구성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성평등지수는 정책목표 및 영역을 연계하여 세부지표 점검을 통해 법령에 의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책영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다. 단, 지표의 선택은 통계의 주기, 품질, 안정성, 포괄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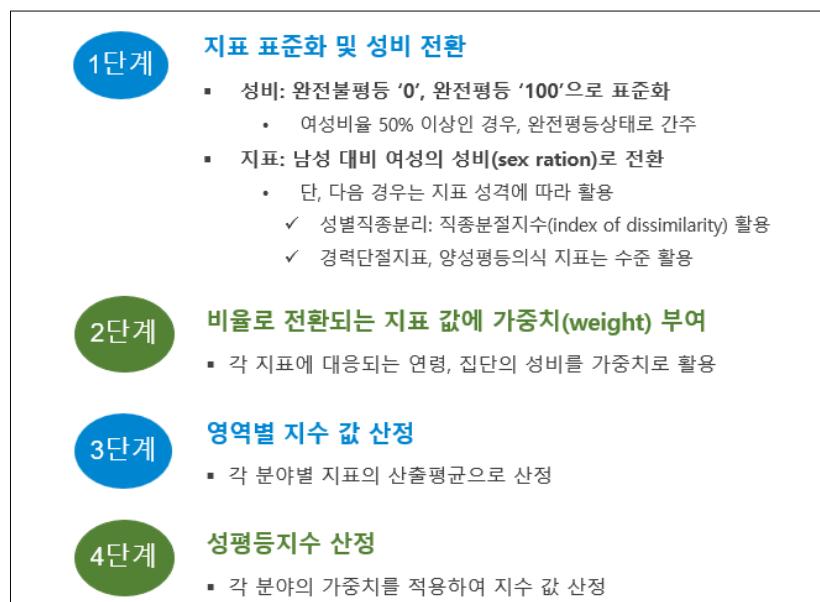
〈표 II-5〉 「양성평등기본법」 조항과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법령 조항	정책목표	영역	지표	
「양성평등기본법」 제2절 (양성평등 참여)	① 동등한 권한	의사결정	국회의원 비율 장관 비율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법원, 검찰, 경찰 고위직 비율 관리자 비율	
			고용률 정규직 비율 노동시장 직종분리 경력단절여성 비율	
			임금 격차 빈곤위험(비빈곤율) 국민연금 수급률	
	② 자원의 동등한 접근	교육	평균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수명 <u>스트레스</u> 비인지율	
			발생 현황	성폭력 범죄 발생비
「양성평등기본법」 제3절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	-	여성폭력	여성 살해 발생비	
			피해 현황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 경험률
				지난 1년간 가정폭력(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률
				직장 성희롱 피해 경험률
			사회 환경	성폭력 및 범죄 피해 두려움
「양성평등기본법」 제4절 (양성평등 문화확산 등)	③ 평등한 관계	돌봄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 참여 노인돌봄 분담	
		양성평등의식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성차별 경험률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자료: 주재선 외(2022), 「2022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15. 인용

2. 산정 방법³⁾

국가성평등지수는 다음의 4단계를 거쳐 복합 지수로 산정된다.



[그림 II-2] 개편 국가성평등지수 산정 방법

단계 1은 지표를 표준화(Normalization)하고, 성비로 전환하는 단계이다. 표준화는 지표의 점수 범위를 성평등 수준 최저 '0'에서 최고 '100'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여기서 최고점수인 '100'은 '완전평등상태'라고 말하며, 여성 혹은 남성 비율이 50% 지점에서 나타난다. 단, 성평등지수는 여성의 수준을 개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표산정에서 여성 비율이 50% 이상이면 완전평등 상태로 측정하였다. 반면 경력단절여성 비율과 성별직종분리 지표, 양성평등의식 영역의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과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은 여성 비율 50% 이상이 아닌 다른 방식을 선택하였다.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남성 통계가 없는 지표이고, 경력단절 관련 사유로 여성의 직장을 그만둔 상태를 불평등하다 판단할 수 있다. 이에 이 지표는 '완전불평등'을 모든 비취업 여성의 경력단절을 사유로 이전 직장을 그만둔 상태로

3) 주재선 외(2023), 「2023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p.28~32에서 인용 및 수정함.

보았고, ‘완전평등’ 상태를 경력단절 사유로 그만 둔 비취업 여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 보았다. 다음으로 성별 직종분리 지표는 성별 직종분리 현상을 분포의 차이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즉 성별로 직종의 분리가 전혀 없는 경우가 ‘완전평등’ 상태이며, 성별이 직종으로 완전히 나누어져 있을 때 ‘완전불평등’ 상태가 된다. 직종분리 산정은 비유사 지수(Index of dissimilarity, ID)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산식을 통해 구한다.

$$ID = \frac{1}{2} \sum_i \left| \frac{M_i}{M} - \frac{F_i}{F} \right| \times 100$$

여기서 M_i = i 직업의 남성 취업자, M = 남성 취업자, F_i = i 직업의 여성 취업자, F = 여성 취업자이다.

다음으로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과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은 성별 격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준을 파악해 성평등 정도를 측정한다. 두 지표는 최근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의식 수준이 남녀 모두에서 정체되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지표는 격차를 측정하는 것보다 현재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성평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들 지표를 제외한 지표는 모두 성비(Female-to-male ratio)로 전환하여 측정한다. 성비는 격차와 수준의 변화를 모두 설명해 주는 방법론으로 일반적으로 남성을 기준으로 여성의 비율로 측정한다. 단지, 가사노동시간과 육아휴직 참여의 경우, 여성보다는 남성의 상황 개선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역성비(Male-to-female ratio)를 통해 지표를 측정하였다.

단계 2는 성비로 전환된 지표 값을 관련 대상 모집단으로 보정하는 단계이다. 성평등은 남녀가 동등한 권리, 의무, 기회를 얻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정한 성평등지표의 지수값을 산정할 경우, 해당 성평등 지표의 대상이 되는 성별 인구로 조정한다. 예를 들어, 4급 이상 직급의 공무원 성비 ‘(4급 이상 여성 공무원)/(4급 이상 남성 공무원)’는 남녀공무원 성비의 역수인 ‘(전체 남성 공무원 수/전체 여성 공무원 수)’로 보정한다. 한편 가사노동시간은 취업 여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상 인구로 조정하는 방식이 아닌 취업자와 비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 평균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국가성평등 지수 중 성비 조정치를 부여한 영역과 지표는 <표 II-6>과 같다.

〈표 II-6〉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값 산정에 적용되는 조정치

영역	지표	조정
의사결정	국회의원 비율	25세 이상 인구 여성비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전체 공무원 여성비
	관리자 비율	취업자 여성비
소득	국민연금 수급률	60세 이상 인구의 여성비
돌봄	가사노동시간	취업상태별 가사노동 시간 평균(성별 취업 비율 고려)

주: 성비는 지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여성/남성」 비율을 나타냄.

단계 3은 영역별 점수를 산정하는 단계이다. 영역별 지수값은 단순 평균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국제성평등지수 중 WEF의 GGI는 각 하위영역 지수에 속하는 지표의 가중치를 이용해서 영역별 지수를 산정한다. 이때 가중치는 지표 값의 표준편차 역수를 가중치로 부여해서 성별 격차가 큰 국가는 상대적으로 큰 페널티를 받도록 설계하였다.⁴⁾ 이와 같은 방식은 국가 간 혹은 지역 간 차이가 작은 지표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케 할 수 있으나 한 국가의 지수 산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볼 수 없다. 이에 국가성평등지수의 영역별 지수는 모든 지표 값의 개선 정도를 동일한 가치로 보고 단순 평균하는 방식으로 측정된다.

단계 4는 국가성평등지수 값을 산정하는 단계이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서로 다른 7개 영역의 구성 지표들로 구성된 복합지수(Composite Index)로, 영역별 가중치를 활용하여 산정된다. 국가성평등지수의 가중치는 계층적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란 통계적 방법을 통해 산출하였다. 계층적 분석법은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해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가성평등지수의 가중치는 2020년 성평등 관련 전문가인 교수, 연구자, 공무원 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분석 결과 상대적 가중치는 의사결정 0.1434, 고용 0.1761, 소득 0.1635, 교육 0.0809, 건강 0.0854, 돌봄 0.1683, 양성평등의식 0.1824이었다.

4) GGI의 교육 분야의 지표 중에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을 보면 2012년 지수의 경우 상대적으로 표준편차가 적은 초등학교 취학률(표준편차: 0.060)의 가중치가 0.459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중등학교(표준편차: 0.120) 0.230, 고등교육기관(표준편차: 0.228) 0.121순이었음(WEF(2012), p.5).

〈표 II-7〉 국가성평등지수의 영역별 가중치

영역	가중치	영역	가중치
의사결정	0.1434	건강	0.0854
고용	0.1761	돌봄	0.1683
소득	0.1635	양성평등의식	0.1824
교육	0.0809	-	-

한편 국가성평등지수 산정 원칙은 2023년 기준의 통계를 활용한다. 하지만 국가 성평등지수 중 일부 지표의 경우 생산주기가 1년 이상(2년, 3년, 5년)이며, 1년 주기인 경우에도 2023년 11월 말까지 공표되지 못한 통계가 있다. 이 경우 본 연구에서는 당해 11월 말 기준 최신 통계⁵⁾를 활용하고 있다.

〈표 II-8〉 1년 이상 생산주기를 가진 통계의 최신 연도

지표	주기	최신 통계
가사노동시간	5년	2019년
노인돌봄 분담	3년	2023년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3년	2023년
건강수명	2년	2022년

5) 이와 같은 방법은 WEF가 성격차지수를 측정시 활용하는 방법이며, 대부분의 성평등지수는 국가간 비교에서 일정 시점 기준에서 가용한 최신 통계를 활용하여 성평등지수를 산정하고 있음.

〈표 II-9〉 국가성평등지수 지표별 측정 방법

영역 및 구성 지표	지표 값 측정 방법	산식 (백분율로 표시)	비고
의사결정			
국회의원 비율	25세 이상 성별 인구 비율로 조정된 국회의원의 성비	$X = W_m/f \times [F / M] \times 100$	지역구, 비례대표
장관 비율	장관 비율의 성비	$X = [F / M] \times 100$	-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공무원 인원 비율로 조정된 4급 이상 공무원 성비	$X = W_m/f \times [F / M] \times 100$	-
법원·검찰·경찰 고위직 비율	법관, 검찰, 총경 이상 경찰관 합의 성비	$X = [Ft / Mt] \times 100$ Ft=여성 법관+검찰+총경 이상 경찰관 Mt=남성 법관+검찰+총경 이상 경찰관	-
관리자 비율	임금근로자로 조정한 관리자 성비	$X = W_m/f \times [F / M] \times 100$	2018년 직업분류 (제7차 개정) 상 관리자
고용			
고용률	15~64세 고용률 성비	$X = [Fr / Mr] \times 100$ Fr=여성 고용률, Mr=남성 고용률	15~64세
정규직 비율	(100-비정규직 비율) 성비 * 비정규직 비율은 성별임금근로자로 조정한 비정규직 성비	$X = [(100 - Fr) / (100 - Mr)]$ Fr=여성 비정규직비율, Mr=남성 비정규직비율	-
노동시장 직종분리	100-성별 상이성 지수(Index of Dissimilarity)로 산정된 값	$X = 100 - ID$ $ID = \frac{1}{2} \sum_i \left \frac{M_i}{M} - \frac{F_i}{F} \right \times 100$	통계청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직종 기준
경력단절여성 비율	기혼여성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가족돌봄의 사유가 아닌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비율 * 측정 지표는 비취업이 경력단절 사유가 아닌 비율 활용	$X = 100 - Fr$ Fr=경력단절여성 비율	-

영역 및 구성 지표	지표 값 측정 방법	산식 (백분율로 표시)	비고
소득			
임금 격차	시간당 임금에 대한 성비	$X = [F / M] \times 100$	-
빈곤위험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중위 50% 이하 소득자 비율 성비	$X = [(100-Fr) / (100-Mr)] \times 100$ Fr=여성 빈곤율, Mr=남성 빈곤율	-
국민연금 수급률	60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	$X = W_m/f \times [F / M] \times 100$	-
교육			
평균 교육년수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재학생인 학생수 제외한 전국민에 대한 평균 교육년수의 성비	$X = [F / M] \times 100$	-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고등교육기관(전문대 이상) 취학률 성비 산식: $\frac{\text{고등교육기관 재학생}}{18\sim21\text{세 인구}} \times 100$	$X = [Fr / Mr] \times 100$ Fr=여성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Mr=남성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좋은 편이다'로 응답한 비율의 성비	$X = [Fr / Mr] \times 100$	-
건강수명	기대여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수명의 성비	$X = [F / M] \times 100$	-
스트레스 비인지율	만 19세 이상 인구의 스트레스 비인지율 성비	$X = [(100-Fr) / (100-Mr)] \times 100$ Fr=여성 스트레스 인지율 Mr=남성 스트레스 인지율	스트레스 인지율을 비인지 비율로 변경 후 측정
돌봄			
가사노동시간	취업자 비율로 조정한 가사노동시간(가정관리+돌봄노동) 역성비	$X = W_f/m \times [(M' / F')] \times 100$ M', F'는 남성 혹은 여성 취업자의 평균가사노동 시간과 비취업자의 평균가사노동시간을 단순평균한 값(성별 취업률 보정을 위해 활용)	-

영역 및 구성 지표	지표 값 측정 방법	산식 (백분율로 표시)	비고
육아휴직 참여	당해 연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 여성비	$X = [M / F] \times 100$	-
노인돌봄 분담	노인돌봄 분담 시간의 여성비	$X = [M / F] \times 100$	남성 대비 여성의 비중으로 산정
양성평등의식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여성 인권이 존중되는 수준	$X = Tr$ Tr은 '매우 존중된다'와 '존중되는 편이다'의 비율	-
성차별 경험률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은 차별 * 신체적/언어적 차별, 고용 관련 차별, 재화/용역 차별, 사회적 차별 등 포함	$X = [Fr / Mr] \times 100$ Fr=여성 성차별 경험 Mr=남성 성차별 경험	-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12세 이상 인구 중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비동의(전혀 동의하지 않음+동의하지 않음)하는 비율 * 성역할 고정관념 4개 질문에 대한 비동의 비율 평균으로 계산 -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가족의 의사 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가족 돌봄(자녀, 부모 등)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X = Tr$ Tr은 응답자의 성역할 태도에 대해 비동의하는 비율	-

주: 1) F, M은 각각 해당 지표 여성지표 값과 남성지표 값을 나타냄.

2) W_m/f: 가중치(Weight)로써 해당 지표의 적용대상 인구를 기준으로 (여성인구/남성인구)의 역수, 'T'는 100을 나타냄.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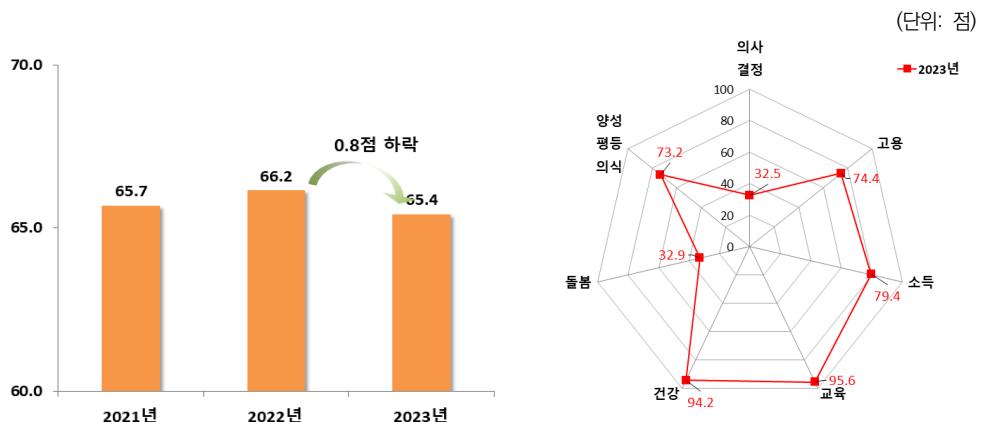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과 추이

- | | |
|----------------------------|----|
| 1.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과 특징 | 29 |
| 2. 영역별 지표의 국가성평등 수준 변화와 특징 | 33 |

1.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과 특징

가. 국가성평등지수 수준과 변화 추이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⁶⁾은 2023년 기준 65.4점이다. 국가성평등 수준은 2021년 65.7점에서 2022년 66.2점⁷⁾으로 0.5점 상승하였으나, 2023년 65.4점으로 하락하였다. 2023년 수치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교육 영역이 95.6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건강 영역(94.2점), 소득 영역(79.4점), 고용 영역(74.4점), 양성평등의식 영역(73.2점) 순이다. 반면, 의사결정 영역은 32.5점으로 7개 분야 중 가장 수준이 낮고, 두 번째 낮은 영역이 돌봄, 32.9점으로 나타났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III-1] 국가성평등지수 수준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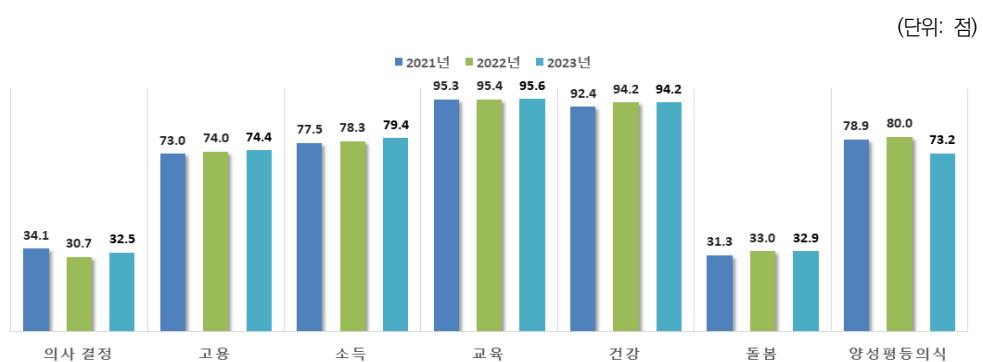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각 영역별 국가성평등 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그림 III-2]와 [그림 III-3]에 제시하였다.⁸⁾ 성평등 수준이 개선된 영역은 소득, 고용 영역인데, 소득 영역은 2021년 77.5점에서 2022년 78.3점, 2023년 79.4점으로 증가해 3년간 1.9점 상승하였다. 고용 영역의 경우, 2021년 73.0점에서 2022년 74.0점, 2023년 74.4점으로

6) 본 보고서에 제시된 모든 연도는 지표의 통계 생산연도를 기준으로 제시함.

7)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점수는 66.2점으로 2023년 보고서에서 보고한 65.7점에 비해 0.5점 증가하였음. 이는 2023년 보고서 발간 시 개신되지 않았던 통계자료가 본 보고서 발간 시전에 개신된 경우(비빈곤율,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비율), 통계수치가 변경된 경우(육아휴직 참여, 노동시장 직종분리) 등에 의한 것임을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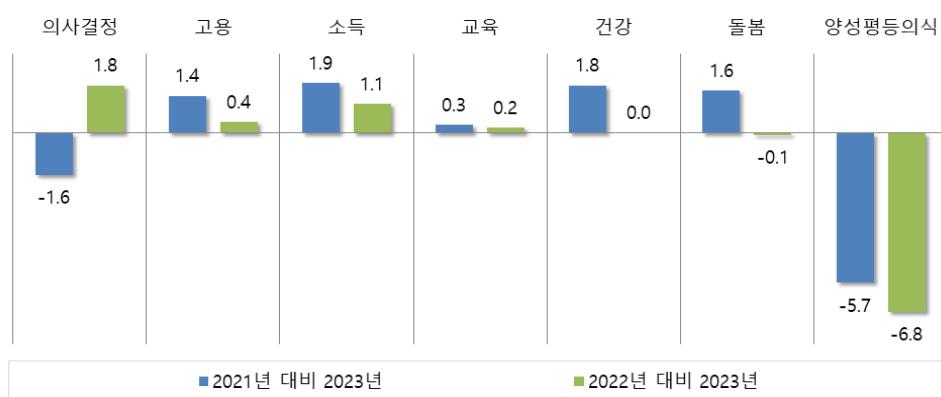
8) 추세를 분석하기에 3년은 비교적 짧은 기간이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상승해 1.8점 상승하였다. 교육과 건강은 타 영역에 비해 성평등 수준이 높아 2021년 이미 90점을 넘어섰는데, 가장 점수가 높은 교육 영역은 2021년 95.3점에서 2022년 95.4점, 2023년 95.6점으로 나타났다. 건강 분야는 2021년 92.4점에서 2022년과 2023년 94.2점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양성평등의식과 돌봄 영역은 성평등지수 점수가 2021년에서 2022년 소폭 상승했다, 2023년 하락하였다. 양성평등의식의 경우, 2021년 78.9점에서 2022년 80.0점으로 상승, 2023년 73.2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돌봄 영역은 2021년 31.3점에서 2022년 33.0점으로 상승하였으나, 2023년 32.9점으로 0.1점 하락하였다. 의사결정 영역은 2023년 기준 가장 점수가 낮은 영역 이기도 한데, 2021년 34.1점에서 2022년 30.7점으로 하락하였다가 2023년 32.5점으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III-2] 국가성평등지수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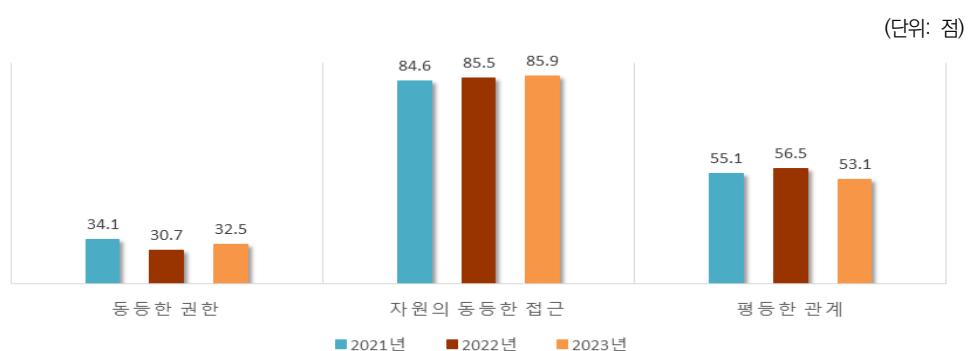


[그림 III-3] 국가성평등지수 증감

나. 정책목표 및 영역별 국가성평등 수준 변화와 특징

여기서는 국가성평등지수를 정책목표 및 영역별로 변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국가성평등 지수는 3개의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7개 영역이 배치되어 있다. 첫 번째 정책목표는 동등한 권한으로 의사결정 영역 1개로 구성된다. 두 번째 정책목표는 자원의 동등한 접근으로 고용, 소득, 교육, 건강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정책목표는 평등한 관계로 돌봄 및 양성평등의식 2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2023년 기준으로 자원의 동등한 접근이 85.9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 평등한 관계 53.1점, 동등한 권한 32.5점 순이다.

자원의 동등한 접근의 경우, 성평등 달성을 수준이 가장 높은 정책목표로 지난 3년간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2021년 84.6점에서 2022년 85.5점, 2023년 85.9점으로 각 0.9점, 0.4점씩 상승하였다. 다음이 평등한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한 경우인데, 2021년 55.1점에서 2022년 56.5점으로 1.4점 상승했다, 2023년 53.1점으로 3.4점 하락하였다. 평등한 관계 부분에서 3.4점 하락한 것이 국가성평등지수 하락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동등한 권한은 의사결정 영역으로 측정되는데, 2021년 34.1점으로 가장 높았다가 2022년 30.7점으로 낮아졌다 2023년 32.5점으로 다시 성평등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III-4] 정책목표별 국가성평등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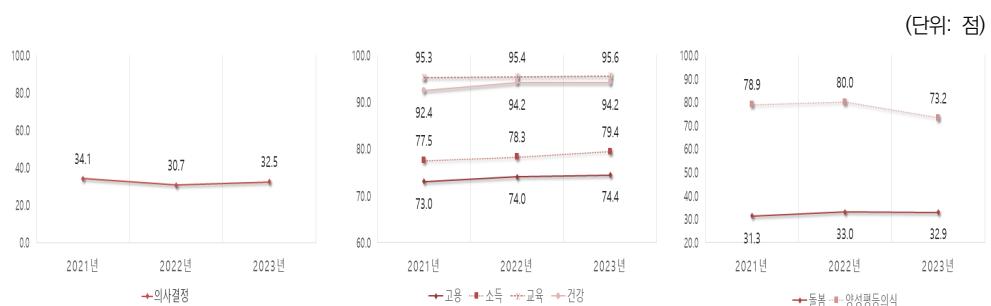
다음에서 각 정책목표별로 구성 영역의 성평등 수준 변화를 보았다. 먼저 동등한 권리 확보는 의사결정 1개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그림 III-5]와 같이 3개 정책목표 중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뒤에서 의사결정 영역의 세부지표를 살펴보겠지만, 5개 세부 지표 중 국회의원 비율, 장관 비율, 관리자 비율 등에서 성평등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이

32 2024년 국가성평등보고서

전체 의사결정 영역이 낮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보여진다. 다만, 2021년 34.1점에서 2022년 30.7점으로 하락했다, 2023년 32.5점으로 회복되는 양상인데, 이는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법원·검찰·경찰관리자 비율이 지속 개선된 결과로 판단된다.

다음은 자원의 동등한 접근을 위한 고용, 소득, 교육, 건강 등 4개 영역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정책목표는 3개 목표 중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이는데, 전체 7개 영역 중 교육 및 건강 영역의 성평등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교육 영역은 전체 7개 영역 중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영역으로 해당 영역 2개 지표 중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여성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이 남성보다 높아 이미 성평등을 달성한 상황이다. 건강 영역의 성평등 수준이 높은 것 역시 여성의 건강수명이 남성보다 길어 건강수명 지표가 이미 성평등을 달성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교육과 건강 영역은 2021년에서 2023년까지 소폭이지만 지속 상승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및 소득 영역의 경우 70점대 수준으로 교육과 건강에 비해 성평등지수 점수가 낮지만, 2021년에 비해 2022년, 2023년 지속적으로 점수가 상승하는 양상이다.

평등한 관계를 위한 돌봄, 양성평등의식 영역은 모두 2021년에서 2022년 상승했다 2023년 하락한 양상이다. 먼저 돌봄 영역은 전체 7개 영역 중 두 번째로 점수가 낮은데, 2023년 32.9점이다. 2021년 31.3점에서 2022년 33.0점으로 상승했으나, 2023년 32.9점으로 0.1점 하락하였다. 양성평등의식 영역은 7개 영역 중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은 아니나 2021년 78.9점에서 2022년 80.0점으로 상승했다 2023년 73.2점으로 6.8점 하락해 전체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III-5] 정책목표, 영역별 성평등 추이(좌: 동등한 권리, 중앙: 자원의 동등한 접근, 우: 평등한 관계)

2. 영역별 지표의 국가성평등 수준 변화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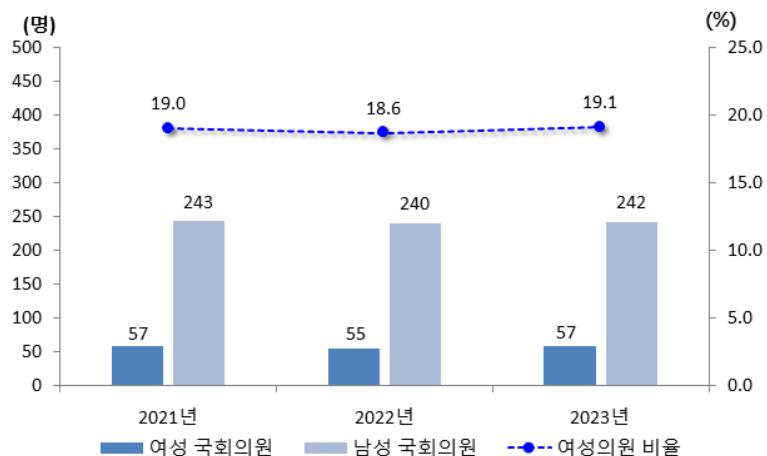
여기서는 정책목표의 각 영역별 지표의 수준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3개 정책 목표에 대해 각 영역별 관련 통계의 추이를 보여주고, 변화를 해석하였다.

가. 동등한 권한

1) 의사결정 영역

의사결정 영역은 국회의원 비율, 장관 비율,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법원·검찰·경찰 고위직 비율, 관리자 비율로 측정되며, 2023년 기준 7개 분야 중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다. 이 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2021년 34.1점을 2022년 30.7점으로 하락했다 2023년 32.5점으로 2022년 대비 1.8점 상승하였다.

국회의원 여성 비율은 입법기관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국제 사회에서 여성의 정치적 권한을 측정하고 비교하는 지표로 가장 많이 활용된다. 국회 의원은 4년 주기로 선출되며, 보궐선거 등으로 국회의원 규모가 변경될 수 있다. 국회 의원 여성 비율은 2021년 19.0%에서 2022년 18.6%로 감소했다 2023년 19.1% 수준으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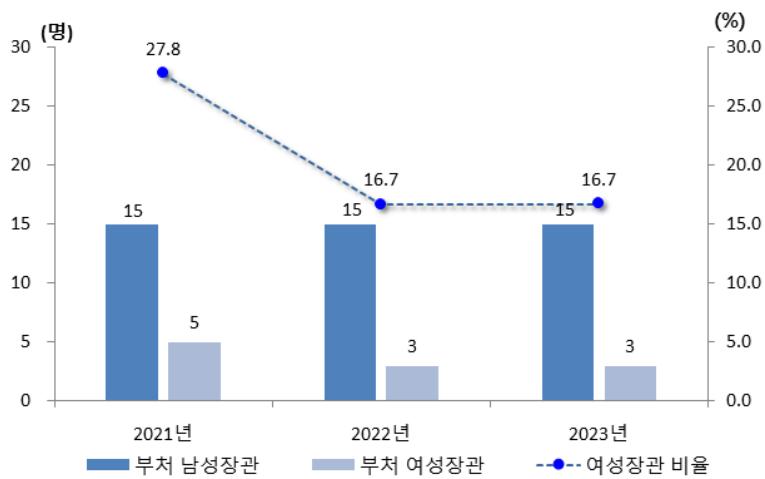


자료: 국제의원연맹(IPU)

[그림 III-6] 국회의원 비율 추이

34 2024년 국가성평등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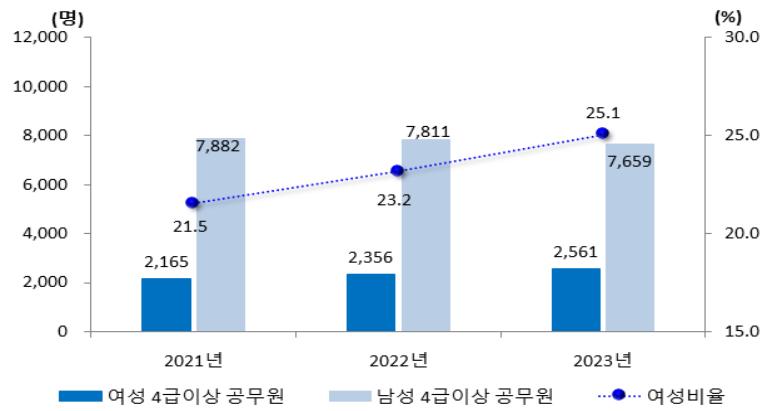
여성 장관의 비율은 신규 추가된 지표로 성별 격차가 비교적 큰 지표이다. 여성장관 비율은 2021년 27.8%였으나, 2022년 16.7%로 하락하였고, 2023년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료: 국제의원연맹(IPU)

[그림 III-7] 장관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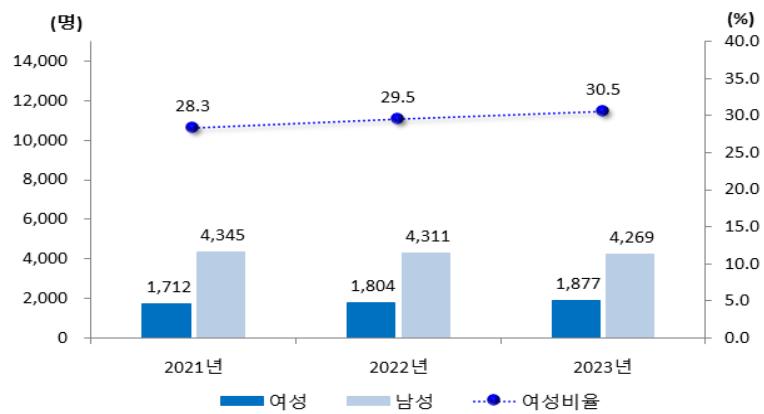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은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관리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직급으로 행정영역의 관리직 지위에서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2021년 21.5%에서 지속 상승하여 2023년 25.1%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9%p 높아진 수준으로 의사결정 영역의 성평등 개선을 견인하였다. 정부는 2018년 ‘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 수립 이후 2023년에 ‘제2차 통합(균형)인사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제3차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2023~2027)’에 따라 2027년까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 13.5%, 본부과장급 여성 비율 30.0%를 목표로 하고 있다(인사혁신처, 2023: 39). 적극적 정책 개입을 통해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자 노력한 결과, 4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비율이 지속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인사혁신처(각 연도),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

[그림 III-8]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추이

법원, 검찰, 경찰 고위직 비율은 신규 지표로 4급 이상 공무원 비율과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보인다. 2021년 28.3%에서 지속 상승하여 2023년 30.5%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0%p 높아진 수준으로 2023년 최초로 30%대를 돌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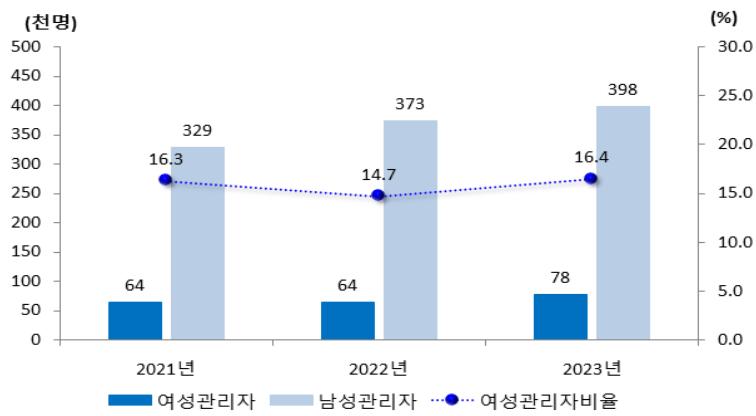
자료: 인사혁신처(각 연도),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

[그림 III-9] 법원, 검찰, 경찰 고위직 비율 추이

관리자 비율은 제7차 표준직업분류체계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 지휘, 조정하는데 직무 시간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직군의 비율을 의미한다(통계청, 2017: 89). 여성 관리자 수는 2021년 64천명에서 2022년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2023년 78천명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여성관리자 비율은 2022년 여성관리자 수는 전년과 동일한데,

36 2024년 국가성평등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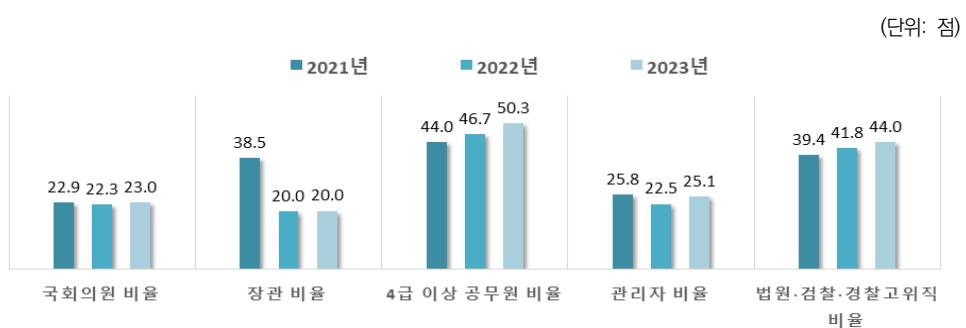
남성관리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2021년 16.3%에서 2022년 14.7%로 다소 하락 후 2023년 16.4%로 회복하는 양상을 보인다.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III-10] 관리자 비율 추이

의사결정 영역 지표들의 성평등 수준 변화를 보면,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법원·검찰·경찰 고위직 비율은 2021년 이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는데, 4급 이상 공무원 성비는 2021년 44.0점에서 2023년 50.3점, 법원·검찰·경찰 관리자 비율은 2021년 39.4점에서 2023년 44.0점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국회의원 성비는 약 23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관 성비는 2021년 38.5점에서 2022년, 2023년 각 20.0점으로 낮아진 상황이고, 관리자 비율 역시 2021년 25.8점에서 2022년 22.5점으로 낮아졌다 2023년 25.1점으로 다시 개선된 상황이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III-11] 의사결정 영역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이상에서 살펴본 동등한 권한의 2021년에서 2023년 성평등지수 변화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 III-1>과 같다. 동등한 권한을 위한 1개 영역인 의사결정 영역은 2023년 32.5점으로 2022년 대비 1.8점 상승하였으나, 2021년 대비하면 1.6점 낮아졌다. 의사 결정의 5개 지표 중 2022년 대비 변동이 없는 장관 비율을 제외하고 모든 지표에서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었으나, 2021년과 대비하면 장관 비율, 관리자 비율은 각각 18.5점, 0.7점 하락하였다.

<표 III-1> 동등한 권한 성평등지수 변화

(단위: 점)

영역	영역별 지수 변화				지표	지표 변화			
	2021	2022	2023	'22 대비 증감		2021	2022	2023	'22 대비 증감
의사결정	34.1	30.7	32.5	1.8	국회의원 비율	22.9	22.3	23.0	0.7
					장관 비율	38.5	20.0	20.0	0.0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44.0	46.7	50.3	3.6
					관리자 비율	25.8	22.5	25.1	2.6
					법원, 검찰, 경찰 고위직 비율	39.4	41.8	44.0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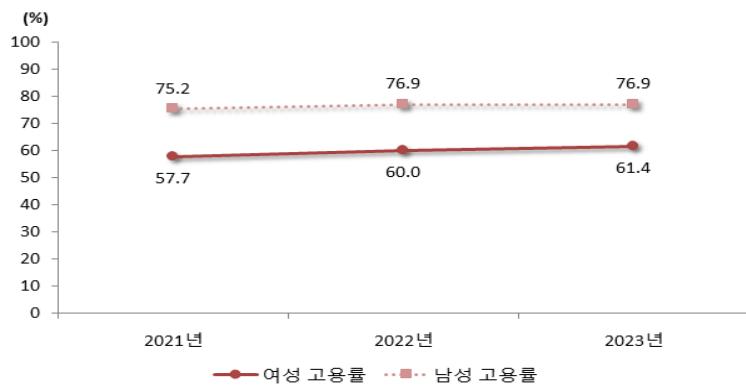
나. 자원의 동등한 접근

1) 고용 영역

고용 영역은 여성의 노동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률, 정규직 비율, 노동시장 직종 분리, 경력단절여성 비율 지표로 측정되며, 2023년 기준 7개 영역 중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 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2021년 73.0점에서 지속 상승하여 2023년 74.4점으로 전년 대비 0.4점 상승하였다. 고용 영역은 점차 개선되고는 있으나 속도는 높지 않은 영역이다.

지표별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여성 고용률은 2021년 57.7%에서 2022년 60.0%, 2023년 61.4%로 지속 상승하였다. 남성의 고용률은 2021년 75.2%에서 2022년 76.9%로 상승 후 2023년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률 성비는 2021년 76.7점에서 2023년 79.8점으로 2021년 대비 3.1점 상승하였다.

38 2024년 국가성평등보고서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III-12] 고용률 추이

정규직 비율 지표는 비정규직 비율을 활용해 측정한다.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2021년 47.4%에서 2022년 46.0%로 하락 후 2023년 45.5%로 다시 하락하였다. 남성 역시 2021년 31.0%에서 2022년 30.6%, 2023년 29.8%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를 고려한 같은 기간 정규직 비율의 성비는 2021년 76.2점에서 2023년 77.6점으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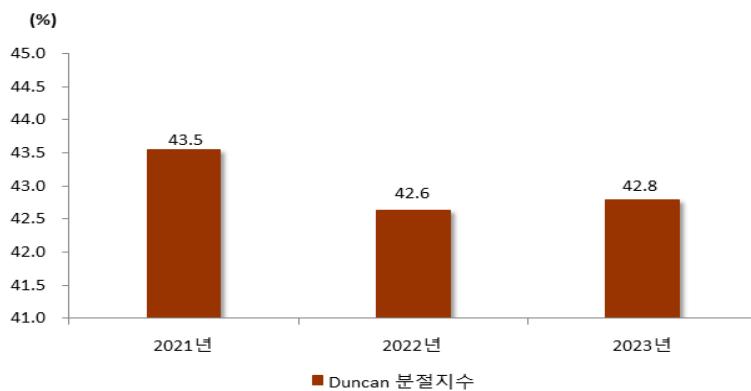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그림 III-13] 비정규직 비율 추이

노동시장 직종분리는 신규로 추가된 지표로 2021년 43.5%에서 2022년 42.6%로 하락 후 2023년 42.8%로 소폭 상승한 상황으로 이는 전년 대비 0.2%p 증가한 수치이다. 성평등지수는 직종분리가 없는 상태를 성평등 달성이이라 판단하여 100에서 뺀 수치를 사용하는데, 성평등지수는 2021년 56.5점에서 2022년 57.4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2023년 57.2점으로 하락한 상황이다.



자료: 통계청(각 연도),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III-14] 노동시장 직종분리 추이

경력단절여성 비율 지표에서 경력단절여성은 2021년 1,448천명에서 지속 감소하여 2023년 1,349천명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15세에서 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관련 사유로 일을 그만둔 여성의 비율을 의미한다. 2021년 17.4%에서 더디지만 지속 감소하여 2023년 17.0%까지 감소한 상황이다. 성평등지수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비율이 0%인 상태, 즉 기혼여성 중 일을 그만두었을 때, 그 사유가 경력단절과 관계 없는 상황인 경우를 성평등 달성이이라 본다. 이에 지수에서는 100에서 아래 경력단절여성 비율을 뺀 값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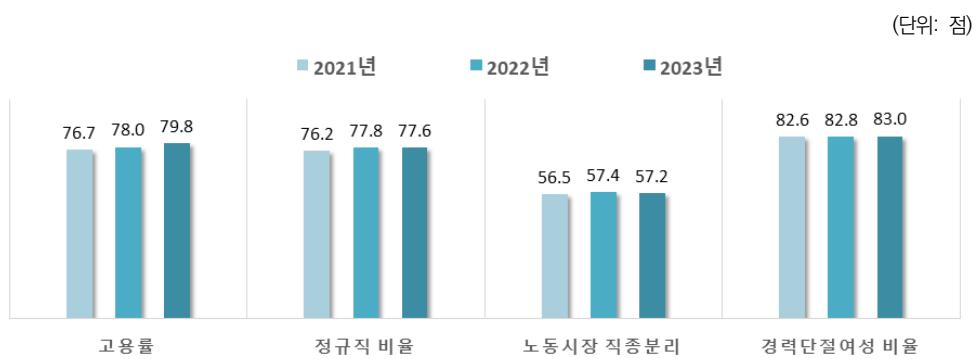


주: 15세~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율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지역별고용조사」 부가조사.

[그림 III-15] 경력단절여성 비율 추이

고용 영역의 구성 지표 중 모든 지표가 2021년 대비 2023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고용률이 2021년 76.7점에서 2023년 79.8점으로 점수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동시장 직종분리의 경우, 2021년 대비 2023년 0.7점 증가했지만, 여전히 4개 지표 중 가장 낮은 점수에 머물면서 개선 폭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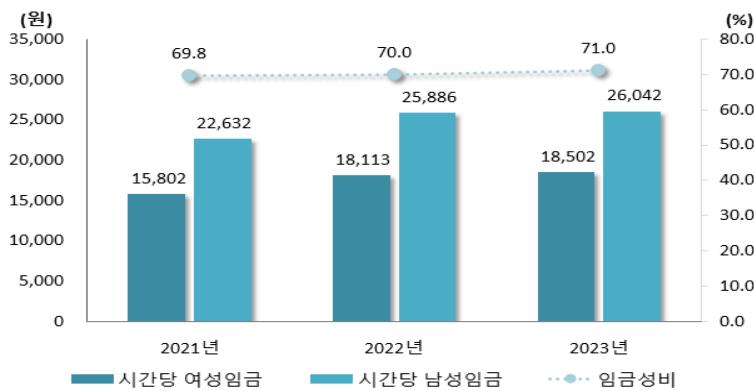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III-16] 고용 영역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2) 소득 영역

소득 영역은 임금 격차, 빈곤위험(빈곤율), 국민연금 수급률로 측정되며 2023년 기준 7개 영역 중 성평등 수준이 세 번째로 높다. 2021년 77.5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3년 79.4점으로 전년 대비 1.1점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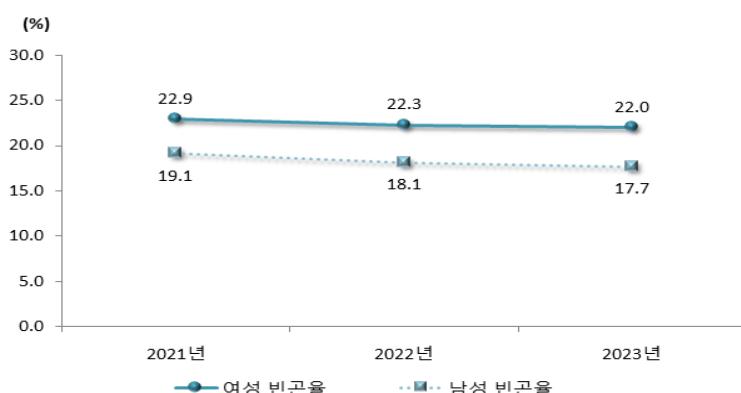
지표별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임금 격차는 노동시장의 환경과 대우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시간당 임금에 대한 성비로 측정하였다. 시간당 여성 임금은 2021년 15,802원에서 2022년 18,113원, 2023년 18,502원으로 지속 증가하였다. 임금성비 역시 2021년 69.8%에서 2023년 71.0%로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의 임금 수준은 남성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개선 속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그림 III-17] 임금 격차 추이

빈곤위험은 성평등 측정에서는 비빈곤율로 측정된다.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중위 소득 50% 이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 빈곤율이 하락하는 모양세이다. 여성 빈곤율⁹⁾은 2021년 22.9%에서 2022년 22.3%, 2023년 22.0%를 기록하였다. 남성의 빈곤율 역시 2021년 19.1%에서 2023년 17.7%까지 하락하였다. 다만,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빈곤율 하락 폭이 더 커 남성 대비 여성의 비빈곤율 성비는 2021년 95.3점에서 2023년 94.8점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주: 빈곤율은 시장소득 중위값 50% 이하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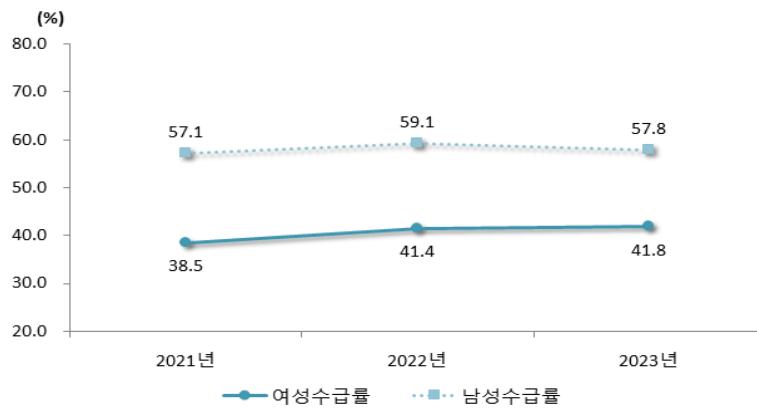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 III-18] 빈곤위험 추이

9) 빈곤율 연도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년도에서 n-1을 기준으로 작성되나, 본 연구의 빈곤율 연도는 조사년도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42 2024년 국가성평등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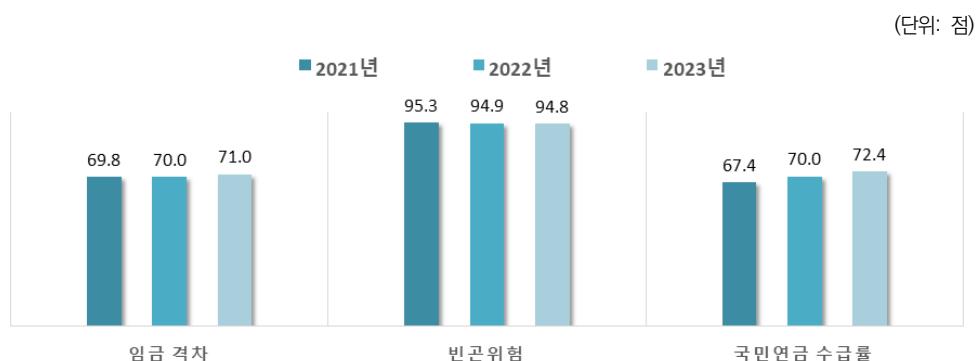
국민연금 수급률 추이는 여성의 경우 2021년 38.5%에서 2022년 41.4%, 2023년 41.8%로 지속 상승하였다. 남성의 경우는 2021년 57.1%에서 2022년 59.1%로 상승 했다 2023년 57.8%로 전년 대비 1.3%p 하락하였다. 이에 남성 대비 여성 수급률은 2021년 67.4점에서 2022년 70.0점, 2023년 72.4점으로 상승하였다.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각 연도), 「국민연금통계연보」.

[그림 III-19] 국민연금 수급률 추이

소득 영역의 성평등 수준 변화를 살펴보면, 국민연금 수급률이 2021년 67.4점에서 2023년 72.4점으로 가장 크게 개선되었고, 다음이 임금 격차 2021년 69.8점에서 2023년 71.0점 순이다. 비빈곤율의 경우, 2021년 95.3점에서 2022년 94.9점으로 소폭 하락했다 다시 2023년 94.8점으로 하락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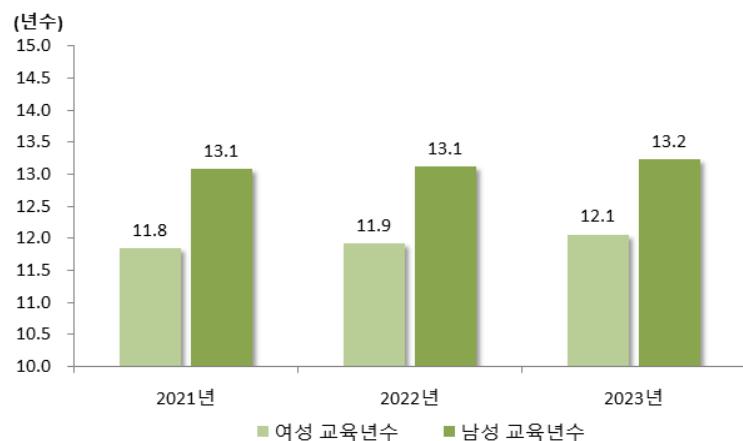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III-20] 소득 영역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3) 교육 영역

교육 영역은 평균 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로 측정되며, 2023년 기준 7개 영역 중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1년 95.3점에서 매년 소폭 증가하여 2023년 95.6점으로 전년 대비 0.2점 상승하였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평균 교육년수는 교육 기회의 충족과 관련성이 높은 지표로 여성과 남성 모두 소폭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여성은 2021년 11.8년에서 2023년 12.1년으로 증가하였으며, 남성은 2021년 13.1년에서 2023년 13.2년으로 증가하였다. 남녀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여성의 상승 정도가 더 커 남녀의 교육년수 차이는 소폭 좁혀지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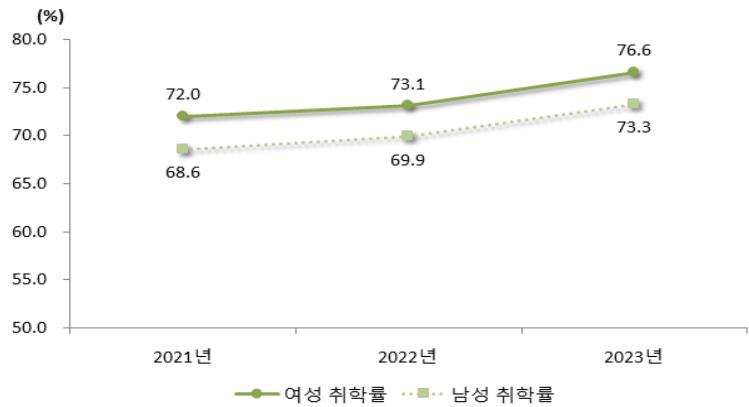
주: 15세 이상 인구 중 평균 교육년수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III-21] 평균교육년수 추이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에 따른 대체 지표로 여성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2021년 72.0%에서 2023년 76.6%로 지속 상승하여 2023년의 경우, 전년 대비 3.5%p 상승한 수준이다. 남성도 2021년 68.6%에서 2023년 73.3%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3.4%p 증가한 수준이다. 남녀 모두 상승하고 있으며, 여성의 고등 교육기관 취학률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44 2024년 국가성평등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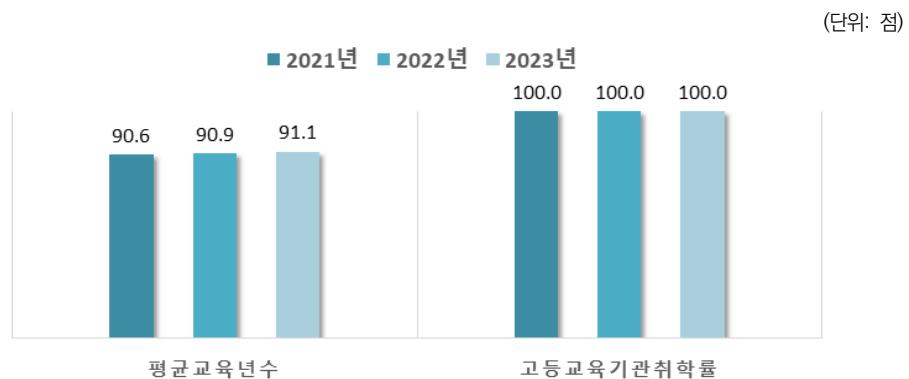


주: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전문대학, 교육대학, 일반대학, 각종 대학 과정 등을 포함하여 집계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기본통계」, 통계청(각 연도), 「장래인구추계」.

[그림 III-22]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추이

교육 영역에서의 성평등 수준은 전반적으로 상승 추이를 보인다. 평균 교육년수의 성비는 2021년 90.6점에서 2023년 91.1점으로 개선되었으며,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성비는 여성의 취학률이 더 높게 나타나면서 2021년 이래 완전 성평등 수준(100.0점)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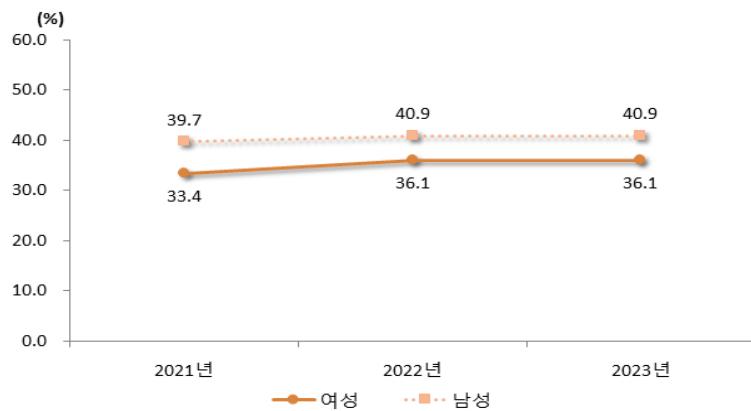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III-23] 교육 영역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4) 건강 영역

건강 영역은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수명, 스트레스 비인지율로 측정되며, 2023년 기준 7개 영역 중 성평등 수준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 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2021년 92.4점에서 2023년 94.2점으로 상승하였으며, 2022년과 2023년이 동일하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는 여성의 경우, 2021년 33.4%에서 2022년 36.1%로 상승하였고, 2023년은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 2022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남성 역시 2021년 39.7%에서 2022년 40.9%로 상승하였다. 주관적 건강 상태의 성별 격차는 2021년 6.3%p에서 2022년 4.8%p로 감소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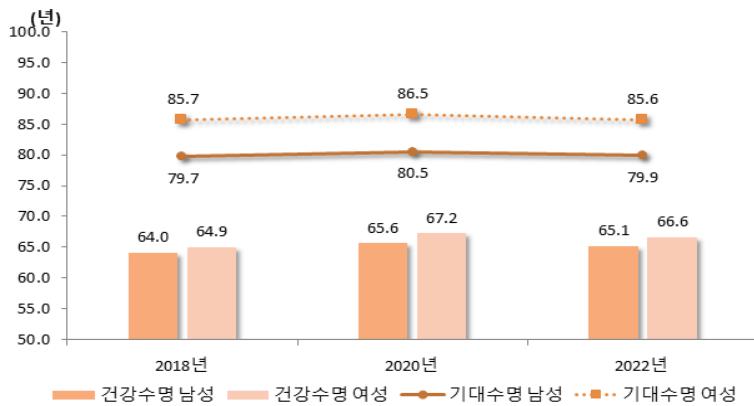
주: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생각하는 분율임.

자료: 질병관리청(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III-24] 주관적 건강상태 추이

건강수명의 경우, 2년 주기로 발표하여 3개년도 자료를 비교하고자 2018년, 2020년, 2022년 자료를 제시하였다. 여성 건강수명은 2018년 64.9년에서 2020년 67.2년으로 길어졌다가 2022년 66.6년으로 소폭 짧아졌다. 남성의 건강수명 역시 2018년 64.0년에서 2020년 65.6년으로 증가하였다가 2022년 65.1년으로 소폭 짧아졌다. 기대수명 역시 남녀 모두 2018년 대비 2020년 다소 길어졌다 2022년 짧아지는 양상이다. 즉, 남녀 모두 2020년 대비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이 짧아진 상황이다.

46 2024년 국가성평등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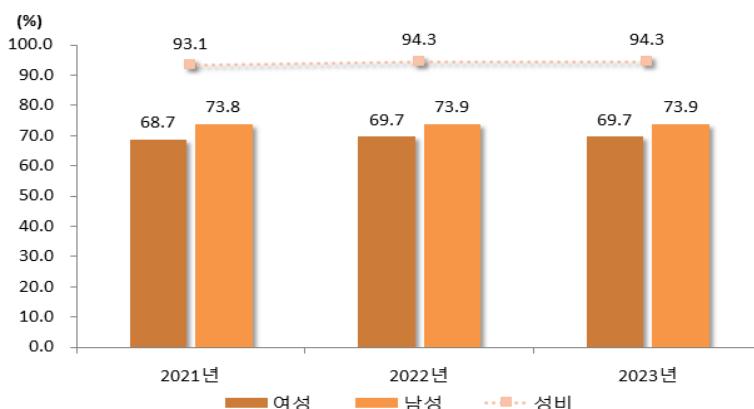


주: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유병기간을 제외한 수명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생명표」.

[그림 III-25] 건강수명 추이

스트레스 비인지율의 경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태를 지수로 활용한다. 매년 여성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남성의 스트레스 인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스트레스 비인지율의 경우, 여성은 2021년 68.7%에서 2022년 69.7%로 증가하였고, 2023년은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 2022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남성 역시 2021년 73.8%에서 2021년 73.9%로 0.1%p 증가하였다. 2021년 대비 2022년 남성보다 여성에서 비인지율이 더 증가함에 따라 성비는 2021년 93.1점에서 2022년 94.3점으로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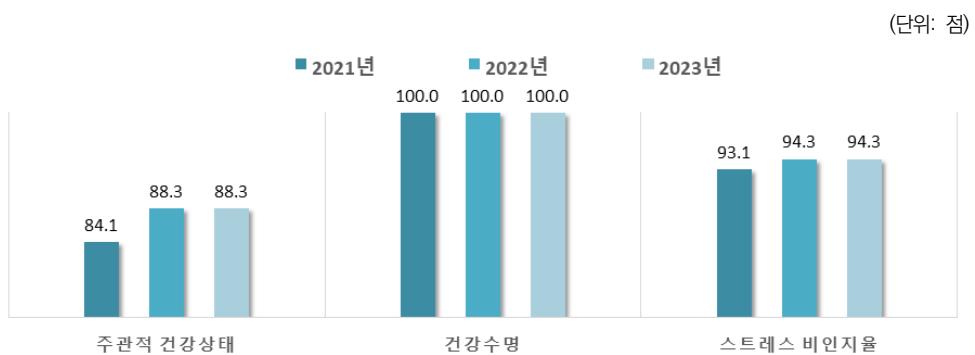


주: 스트레스 비인지율은 100에서 스트레스 인지율을 뺀 비율임.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분율임.

자료: 질병관리청(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III-26] 스트레스 비인지율 추이

종합해 보면 건강 영역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평등을 보인다. 지표별로 보면, 주관적 건강상태는 2021년 84.1점에서 2022년 88.3점으로 상승, 2023년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비인지율은 2021년 93.1점에서 2022년 94.3점으로 상승, 2023년도 동일하다. 반면 건강수명의 경우는 여성의 건강수명이 더 높게 나타나면서 2021년 이래 완전 성평등 수준(100.0점)을 유지하고 있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III-27] 건강 영역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이상에서 살펴본 자원의 동등한 접근의 성평등지수 변화를 요약하면 <표 III-2>와 같다. 자원의 동등한 접근의 영역별 성평등 개선을 보면 2022년 대비 고용 영역이 0.4점, 소득 영역이 1.1점, 교육 영역이 0.2점 상승하였고, 건강 영역은 94.2점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고용 영역은 고용률이 1.8점,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0.2점 상승한 반면, 정규직 비율과 노동시장 직종분리가 0.2점 낮아졌다. 그러나 고용률 개선에 따라 전반적인 고용 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소폭 향상되었다. 소득 영역은 비빈곤율이 0.1점 하락했지만, 성별 임금격차와 국민연금 수급률일 각 1.0점, 2.4점 상승하면서 4개 영역 중 가장 높은 향상 수준을 보여준다. 교육 영역은 평균교육년수에서 0.2점 소폭 상승하였으며, 건강 영역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I-2〉 자원의 동등한 접근 성평등지수 변화

(단위: 점)

영역	영역별 지수 변화				지표	지표 변화			
	2021	2022	2023	'22 대비 증감		2021	2022	2023	'22 대비 증감
고용	73.0	74.0	74.4	0.4	고용률	76.7	78.0	79.8	1.8
					정규직 비율	76.2	77.8	77.6	-0.2
					노동시장 직종분리	56.5	57.4	57.2	-0.2
					경력단절여성 비율	82.6	82.8	83.0	0.2
소득	77.5	78.3	79.4	1.1	임금 격차	69.8	70.0	71.0	1.0
					빈곤위험	95.3	94.9	94.8	-0.1
					국민연금 수급률	67.4	70.0	72.4	2.4
교육	95.3	95.4	95.6	0.2	평균 교육년수	90.6	90.9	91.1	0.2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100.0	100.0	100.0	0.0
건강	92.4	94.2	94.2	0.0	주관적 건강상태	84.1	88.3	88.3	0.0
					건강수명	100.0	100.0	100.0	0.0
					스트레스 비인지율	93.1	94.3	94.3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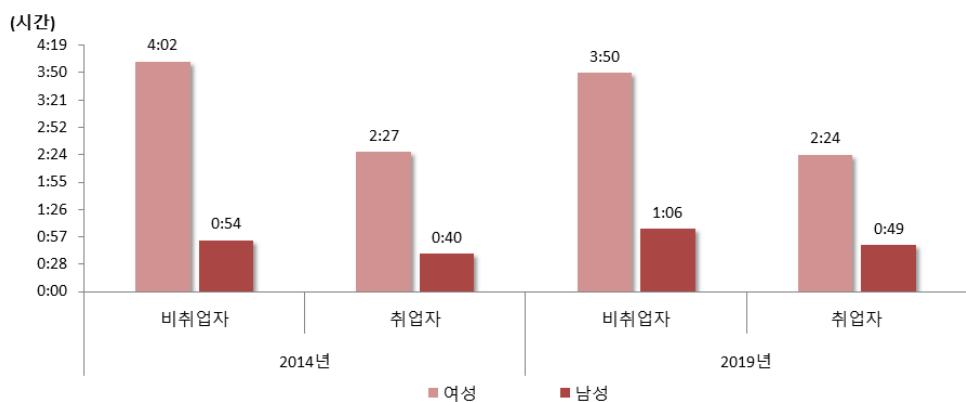
다. 평등한 관계

1) 돌봄 영역

돌봄 영역은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 참여, 노인돌봄 분담으로 측정되며, 2023년 기준 7개 영역 중 성평등 수준이 여섯 번째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 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2021년 31.3점에서 2022년 33.0점으로 상승했다 2023년 32.9점으로 전년 대비 0.1점 감소하였다.

지표별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가사노동시간은 일상생활에서 분담과 책임에 있어 성별 간 불평등 구조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분야로 가정관리와 돌봄 노동을 포함한 시간이다. 따라서 의식주와 관련한 가사노동 시간과 가족 및 가구원 돌봄을 위해 소요되는 돌봄노동 시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며, 성별과 취업 여부에 따른 가사노동 시간 차이를 모두 고려하여 평균 시간으로 산정하고 있다. 여성 비취업자 가사노동 시간은 2014년 4시간 2분에서 2019년 3시간 50분으로 12분 감소하였으며, 여성 취업자의 가사노동 시간은 2014년 2시간 27분에서 2019년 2시간 24분으로 3분 감소했다.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큰 변화는 없는 수준이며, 취업 여부와 관계 없이 여전히 남성보다 긴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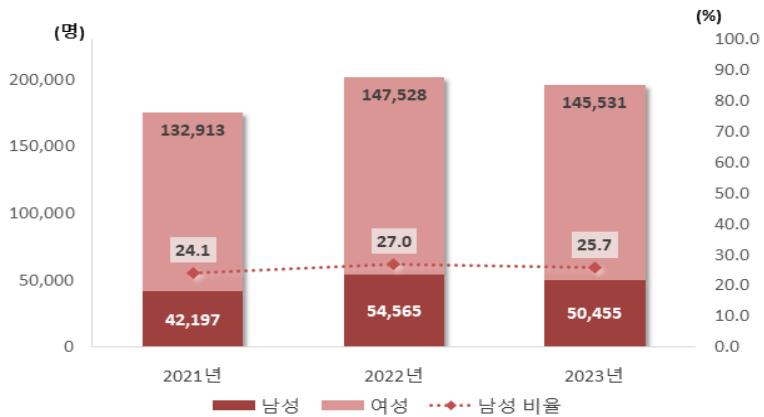


주: 가사노동은 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를 포함함.

자료: 통계청(2014, 2019), 「생활시간조사」.

[그림 III-28] 가사노동시간 추이

육아휴직 참여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아동 돌봄의 분담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로 남녀 모두 육아휴직자 수가 2021년에 비해 2022년 증가하였다가 2023년 감소하는 양상이다. 여성 육아휴직자 수는 2021년 132,913명에서 2022년 147,528명으로 큰 폭 증가하였다가 2023년 145,531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남성 육아휴직자 역시 2021년 42,197명에서 2022년 54,565명으로 처음 5만명을 넘어섰다가 2023년 50,455명으로 소폭 감소한 양상이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021년 24.1%에서 2022년 27.0% 까지 증가하였지만, 2023년 전년 대비 여성보다 남성에서 육아휴직자 수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5.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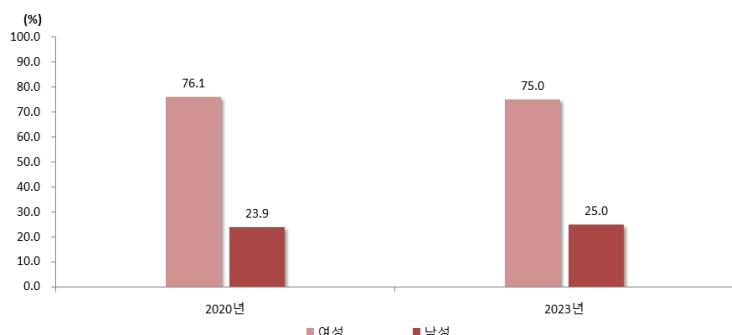


주: 2023년 수치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육아휴직통계」.

[그림 III-29] 육아휴직 참여 추이

노인돌봄 분담¹⁰⁾ 지표는 노인돌봄을 하는 주요 행위자의 성별 비율을 측정한 것으로 여성은 2020년 76.1%에서 2023년 75.0%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남성은 2020년 23.9%에서 2023년 25.0%로 소폭 증가하였다. 노인돌봄 분담의 성비는 2023년 기준 33.4점으로 성별 격차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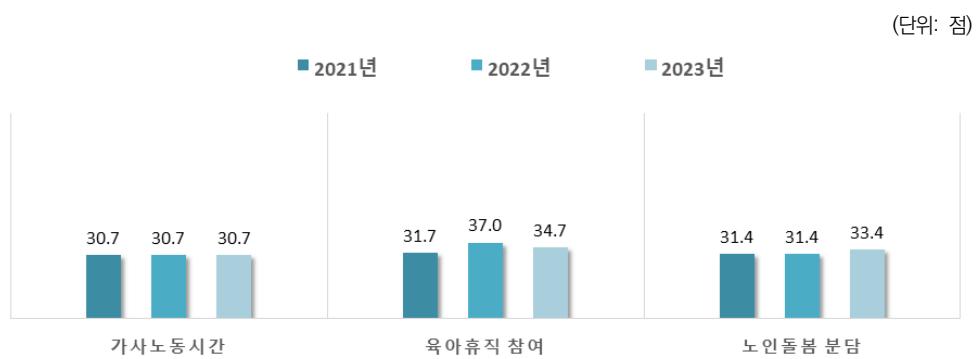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2020, 2023),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III-30] 노인돌봄 분담 추이

10) 노인돌봄 주체는 동거 혹은 비동거 가족원 중 노인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및 형제 자매의 배우자로 제한하며, 청소·빨래·시장보기, 외출동행, 식사준비, 신체기능유지 지원 각각을 중복하여 비율 산정함.

돌봄 영역은 전년 대비 동일하거나 소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가사노동시간은 자료원이 갱신되지 않아 동일한 점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참여는 2021년 31.7점에서 2022년 37.0점으로 개선되었다 2023년 다시 34.7점으로 하락하였다. 노인돌봄 분담은 2021년 31.4점에서 2023년 33.4점으로 상승하였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III-31] 돌봄 영역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2) 양성평등의식 영역

양성평등의식 영역은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성차별 경험률,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측정되며, 2023년 기준 7개 영역 중 성평등 수준이 다섯 번째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 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2021년 78.9점에서 소폭 상승하여 2022년 80.0점으로 개선되었으나, 2023년 73.2점으로 전년 대비 6.8점 하락하였다.

지표별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면,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관련 여성은 2021년 77.8%에서 2022년 81.1%로 3.3%p 증가하였다가 2023년 77.0%로 전년 대비 4.1%p 하락하였다. 남성 역시 2021년 87.8%에서 2022년 88.2%로 상승하였다가 2023년 85.5%로 전년 대비 2.7%p 하락하였다.

52 2024년 국가성평등보고서



주: “존중된다”(매우 존중된다+존중되는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국가인권위원회(각 연도), 「인권의식실태조사」.

[그림 III-32]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추이

성차별 경험률은 신규 지표로 지난 1년간 성별로 인한 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를 응답한 비율이다. 여성과 남성 모두 2021년 대비 2022년 증가하였다가 2023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지수는 여성 대비 남성 비율을 계산한 것으로 2021년 93.9점에서 2022년 95.4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3년 94.7점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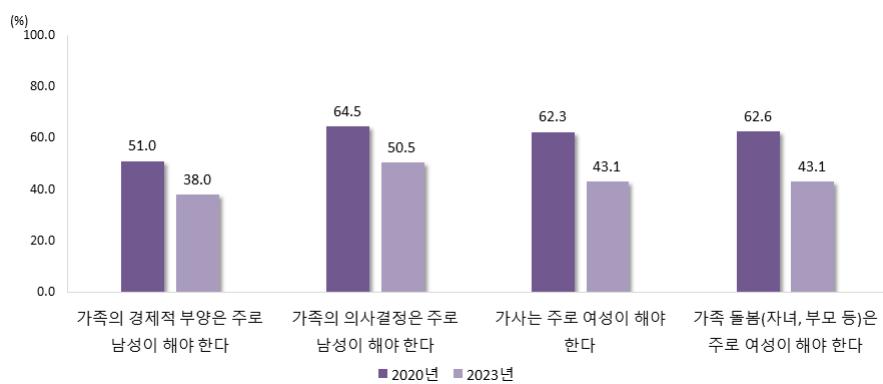
주: 남녀 모두 “지난 1년 동안 성별로 인한 차별 경험”에 “없다”고 응답한 비율을 제시함. 성비는 여성 대비 남성 비율임.

자료: 국가인권위원회(각 연도), 「인권의식실태조사」.

[그림 III-33] 성차별 경험률 추이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은 신규 지표로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비동의 비율로 측정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는 항목에 비동의하는 비율이 2020년 51.0%에서 2023년 38.0%로 13.0%p 감소하였으며, ‘가족의 의사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에 대한 비동의 비율도 2020년 64.5%에서 2023년 50.5%로 14.0%p 감소하였다.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에 대한 비동의 비율은 2020년 62.3%에서 2023년 43.1%로 19.2%p 감소하였으며, ‘가족 돌봄(자녀, 부모 등)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에 대한 비동의 비율은 2020년 62.6%에서 2023년 43.1%로 19.5%p 하락하여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4개 문항 중 가사노동 및 가족 돌봄의 주체를 여성으로 보는 문항에 대한 비동의 비율이 약 19%p 정도로 크게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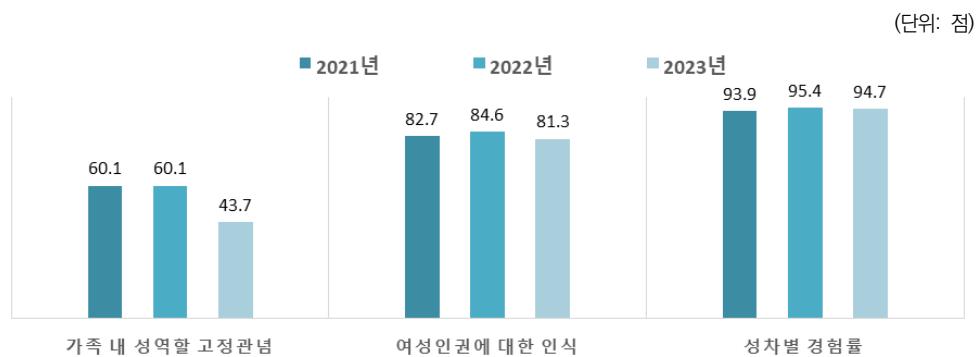


주: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여성가족부(2020, 2023), 「가족실태조사」.

[그림 III-34]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추이

양성평등의식 영역의 성평등 변화 추이를 보면, 3개 세부지표 모두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이 가장 크게 하락하였는데, 2021년 60.1점에서 2023년 16.4점 하락하여 2023년 43.7점으로 나타났다.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은 2021년 82.7점에서 2022년 84.6점으로 상승하였으나 2023년 81.3점으로 하락하였다. 성차별 경험률 역시 2021년 93.9점에서 2022년 95.4점으로 상승하였으나, 2023년 94.7점으로 하락하였다.



주: 1)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2) 성별역할고정관념은 4개 문항의 평균임.

[그림 III-35] 양성평등의식 영역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이상에서 살펴본 평등한 관계에 대한 성평등지수 변화는 양성평등의식 영역의 하락이 두드러진다. 양성평등의식의 세 지표 모두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하였으나, 특히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이 2023년 43.7점으로 2022년 대비 16.4점 하락하여 양성평등의식 영역의 성평등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돌봄 영역은 2021년 31.3점에서 2022년 33.0점으로 상승하였으나 2023년 32.9점으로 전년 대비 0.1점 하락하였다.

〈표 III-3〉 평등한 관계 성평등지수 변화

(단위: 점)

영역	영역별 지수 변화				지표	지표 변화			
	2021	2022	2023	'22 대비 증감		2021	2022	2023	'22 대비 증감
돌봄	31.3	33.0	32.9	-0.1	가사노동시간	30.7	30.7	30.7	0.0
					육아휴직 참여	31.7	37.0	34.7	-2.3
					노인돌봄 분담	31.4	31.4	33.4	2.0
양성평등 의식	78.9	80.0	73.2	-6.8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60.1	60.1	43.7	-16.4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82.7	84.6	81.3	-3.3
					성차별 경험률	93.9	95.4	94.7	-0.7

IV

국제성평등지수와 한국의 성평등 수준

- | | |
|-----------------------------|----|
| 1.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 57 |
| 2. 유엔개발계획의 성개발지수와 성불평등 지수 | 71 |
| 3.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사회제도와 젠더지수 | 89 |
| 4. 국제성평등지수 비교와 한국 성평등 수준 차이 | 98 |

1.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가.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소개¹¹⁾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이하 GGI)는 2006년부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¹²⁾에서 발표하는 지수로서 경제, 교육, 건강, 정치에 대한 성 격차를 통해 국가별 성평등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가장 최근 자료는 2024년에 발표되었다.

GGI는 성평등을 개인의 권리, 의무, 기회가 생물학적 성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사회 발전단계, 남녀가 그들의 잠재 능력을 완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GGI는 첫째, ‘수준(Level)’보다 ‘격차(Gap)’에 초점을 둔다. 한 국가의 실제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과 기회의 수준이 아니라, 자원과 기회에 대해 접근하는 성별 격차를 측정한다. 선진국의 경우, 사회 구성원이 교육과 보건의 기회에 더 많은 접근 기회를 얻지만, 이러한 국가 차원의 높은 접근성이 남녀 모두에 동등하게 적용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GGI는 자원 접근성을 절대 수준보다 성별 격차에 주목해 제시한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가 작을수록 그 국가는 더 높은 성평등 점수를 획득한다, 예를 들어 교육 성취도의 경우 성별 교육 수준이 아닌 남성 대비 여성의 비(Ratio)를 기초로 산정한다.

둘째, ‘수단(Means)’이 아닌 ‘성과(Outcomes)’에 따른 차이를 평가하여 측정한다. GGI는 경제참여, 교육, 건강, 정치 권한 부여 등 성과지표와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보는 데 목적을 둔다. 다만, 국가의 특정 정책이나 문화, 관습 등을 지수 산정에 활용하지는 않고, 국가별 프로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1) 성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의 구성과 소개는 거의 변화가 없음. 이에 선행연구인

주재선·정성미·한진영·박송이(2019). 「2019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pp.74~79, 김경희·이민아·이은아·김은경(2020). 「2020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p.84~94; 주재선·김영란·조선미·송치선(2021). 「2021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p.63~74, 주재선·김효주·조선미·권도연(2022). 「2022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p.63~75. 원문을 대부분 발췌 및 인용하여 작성함.

12) 세계경제포럼(WEF)은 각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 최고경영자 등이 모여 세계경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비영리 국제기구임. 매년 글로벌 경쟁력보고서(GCR)와 성평등보고서(GGGR)를 발표하고, 다보스 포럼을 개최함.

셋째, ‘여성 권한(Women’s empowerment)’보다 ‘성평등(Gender equality)’에 주목한다. GGI는 여성의 권한 수준이 아니라 성평등 주요 영역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한다. GGI는 각 지표에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감소해 왔는지를 확인하는데 목표를 둔다. 또 여성과 남성의 각 성과가 평등한 국가들에 좋은 점수를 제공한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을 능가할 때는 지표에 대한 폐널티를 따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GGI는 선택된 지표에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감소할 경우 평등한 국가로 본다.

1) 지표의 구성

GGI는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권한 부여’의 네 가지 영역에 총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은 남녀 간 빈곤의 불균형을 낮출 뿐 아니라, 가계 수입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여성의 경제적 개입의 질과 관련되어 의미가 있다. 경제활동 영역은 참여(Participation), 급여(Remuneration), 승진(Advancement)의 관점에서 성별 격차를 파악하고 있으며 구성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 유사업무 임금성비, 추정 소득, 입법·고위직 및 관리직 비율, 전문·기술직 비율의 5개 지표이다. GGI의 두 번째 영역인 교육적 성취는 여성의 권한을 증진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구성 지표는 총 4개로 문해율과 초등, 중등, 고등교육 취학률에 대한 남성 대비 여성 비율이다. GGI의 세 번째 영역은 건강과 생존으로 출생 성비와 건강기대수명 성비의 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역은 기본적으로 남녀가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 면서도 근본적인 개인의 안전과 관련 있는 주제이다. GGI의 네 번째 영역인 정치권한 부여 영역은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 여성의 대표성을 파악하는 영역으로 국회의원 비율, 장관 비율, (지난 50년 동안) 국가 수장 재직기간의 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표 IV-1〉 GGI의 구성 및 각 영역별 지표

영역	지표	내용 및 산정 방법
경제참여와 기회	경제활동참가율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남성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참가율: 15~64세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비율
	유사업무 임금성비	유사업무에서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수준 - 경영자 의견 조사 ¹⁾ 를 통해 측정
	추정소득	여성 추정소득/남성 추정소득 - 국가별 GDP(PPP \$US)를 성별 경제활동인구 비율, 비농촌 임금 성비, 성별 인구의 결합으로 산정
	입법·고위직 및 관리직 비율	입법, 고위직 및 관리자 중 여성 비중/남성 비중
	전문·기술직 비율	전문 및 기술직 중 여성 비중/남성 비중
교육 성취도	문해율	여성 문해율/남성 문해율 * 문해율: 15세 이상 인구의 문자 해독률
	초등교육 취학률	여성 초등교육 취학률/남성 초등교육 취학률 ²⁾ * (6~11세 재적 학생수)/(6~11세 적령인구)×100
	중등교육 취학률	여성 중등교육 취학률/남성 중등교육 취학률 ²⁾ * (12~17세 재적 학생수)/(12~17세 적령인구)×100
	고등교육 취학률	여성 고등교육 취학률/남성 고등교육 취학률 ²⁾ * (대학 재적 학생수)/(고졸 직후 연령 ³⁾ 부터 5세 연령구간 인구)×100
건강과 생존	출생 성비	여아 ⁴⁾ 출생수/남아 출생수
	건강기대수명	여성 건강 기대수명/남성 건강 기대수명
정치권한 부여	국회의원 비율	국회의원 여성 비중/국회의원 남성 비중
	장관 비율	장관 여성 비중/장관 남성 비중
	국가수장 재직기간	최근 50년 이내 총리 이상 여성 재직년수/남성 재직년수

- 주: 1) 경영자 의견조사의 질문은 “한국에서 유사 업무에 대한 여성들의 임금과 남성들의 임금은 동등합니까”이며, 답항은 7점 척도로 ‘아주 낮다’ 1점, ‘남녀가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 7점으로 되어 있음.
 2) 초등, 중등 취학률은 순취학률(Net enrolment ratio)로 산정하며, 대학 취학률은 총취학률(Gross Enrolment Ratio)로 산정함.
 3) 고졸 직후 연령은 일반적으로 18세임.
 4) 여아를 기준으로 남아 출생비를 보는 일반적인 출생성비와 정의를 달리함.

2) 지표별 자료원

성격차지수 산정에 활용되는 자료원은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이하 ILO)와 WEF 자료를, 교육 성취도 영역은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이하 UNESCO) 또는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이하 UNDP)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과 생존 영역의 지표들은 세계은행(World Bank)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 자료를, 정치 권한 부여 영역은 국제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이하 IPU)과 WEF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지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국제기구가 공표하는 정량적 통계 수치를 사용하고, 각국 정부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표 IV-2〉 GGI의 지표구성과 자료원

하위지수	지 표	자료원
경제참여와 기회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노동기구(ILO), ILOSTAT
	유사업무 임금 수준	세계경제포럼(WEF), 기업임원의견조사(Executive Opinion Survey)
	추정소득	국제노동기구(ILO), ILOSTAT,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s
	입법·고위직 및 관리직 비율	국제노동기구(ILO), ILOSTAT
	전문·기술직 비율	국제노동기구(ILO), ILOSTAT
교육성취도	문해율	유네스코(UNESCO), UIS Stat Education Statistics Data portal. 없는 경우는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Human Development Reports 2013에서 2023년 사이 가장 최근 가능한 자료
	초등교육 취학률	유네스코(UNESCO), UIS Stat Education Statistics Data portal
	중등교육 취학률	유네스코(UNESCO), UIS Stat Education Statistics Data portal
	고등교육 취학률	유네스코(UNESCO), UIS Stat Education Statistics Data portal
건강과 생존	출생 성비	세계은행(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s
	건강 기대 수명	세계보건기구(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base
정치권한 부여	국회의원 비율	국제의회연맹(IPU)
	장관 비율	유엔 여성(UN Women)
	(지난 50년 동안) 국가수장 재직기간	세계경제포럼(WEF) 측정 자료

자료: WEF(2024),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24」, p.65.

3) 측정 방법

GGI는 수준보다는 격차, 정책보다는 성과, 여성권한보다는 성평등 개선에 더 관심을 두고 측정하는 지수이다. 이 지수는 절대적인 기준에 비해 성과를 수량화하는 지수로 성평등과 관련된 주요 영역과 지표를 담고 있다(Grieg et al., 2006). 초기 GGI 지수는 정량(Hard data)적인 지표와 함께 각 국가의 기업 대표를 조사 대상으로 세계경제포럼의 기업임원 의견조사(Executive Opinion Survey)를 통한 질적(Soft data)인 척도도 함께 사용했다. 하지만 최근 산정에 활용되는 지표는 자료 입수의 한계와 조사의 주관적 요소 때문에 정량적인 지표만을 사용한다. GGI 지수는 세 단계의 과정을 통해 산정된다.

1단계

모든 자료는 남성 대비 여성 비(성비)로 변환

- 성비는 평등기준점 1에서 절삭. 단, 출생성비는 0.944, 기대수명은 1.06이 평등기준점임.

2단계

하위 지수(영역) 측정은 영역별 지수의 표준편차 변화 (1%p 변화)를 가중치로 활용

3단계

영역별 단순 평균하여 지수 산정

[그림 IV-1] GGI 지수 산정 단계

* 산정된 지수 해석 시 유의 사항

- 지표의 가장 높은 점수는 1(완전 평등)이고 가장 낮은 점수는 0(완전 불평등)으로 평등과 불평등, 0과 1 사이에 분포함
- 지표별 가중치는 하위지수(영역) 측정에만 활용되며, GGI 점수는 영역별 성평등 점수를 동일 가중치를 적용(단순평균)하여 산정함
- GGI 점수는 비율 값을 활용하여 계산된 점수로, 해석하는 데 있어 엄격한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음. 점수는 단지, 한 나라의 성 격차가 얼마나 증감했는지에 대한 지표로만 의미를 두어야 함

〈표 IV-3〉 GGI 지수 산출을 위한 가중치

영역	지표	단위	가중치	
			지표별	전체
경제참여와 기회	경제활동참가율	비율 (Ratio)	0.199	$(0.199+0.310+0.221+0.149+0.121) \times (1/4)$
	유사업무 임금 수준		0.310	
	추정소득		0.221	
	입법·고위직 및 관리직 비율		0.149	
	전문·기술직 비율		0.121	
교육 성취도	문해율	비율 (Ratio)	0.191	$(0.191+0.459+0.230+0.121) \times (1/4)$
	초등교육 취학률		0.459	
	중등교육 취학률		0.230	
	고등교육 취학률		0.121	
건강과 생존	출생 성비		0.693	$(0.307+0.693) \times (1/4)$
	건강 기대 수명		0.307	
정치권한부여	국회의원 비율		0.310	$(0.310+0.247+0.443) \times (1/4)$
	장관 비율		0.247	
	(지난 50년 동안) 국가수장 재직기간		0.443	

주: 하위영역 가중치는 지표값 표준편차의 역수임.

자료: WEF(2024), 「The Global Gender Gap Index Report 2024」, p.67.

나. GG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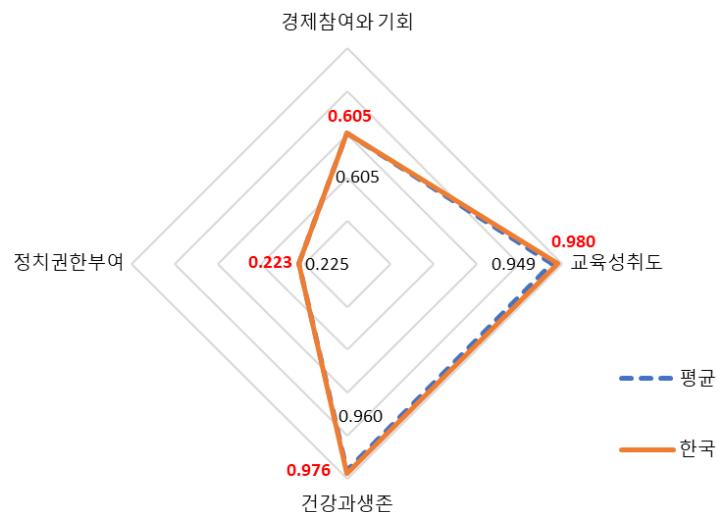
1) 한국의 GGI 수준

2024년 발표된 GGI의 한국 순위는 전체 146개국 중 94위로 2023년도 105위에 대비해 11단계 상승하였고, 점수는 0.696점으로 2023년 0.680점 대비 0.016점 상승하였다. GGI는 점수가 1이면 완전평등상태이고 0이면 완전불평등상태로 점수가 상승하였다는 것은 기존 대비 성평등 수준이 개선하였음을 의미한다. 순위가 상승한 주된 이유는 정치적 권한의 장관 비율 개선이 주된 원인¹⁴⁾이며, 경제참여 및 기회의 관리직 비율, 교육적 성취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점수가 비교적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13) WEF(2023).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23」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작성함.

14) 장관 비율의 경우, 국가성평등지수는 2023년 1월 기준 통계를 활용하고, GGI는 2024년 1월 기준 통계치를 활용하기 때문에 각 수치가 다를 수 있음.

분야별로 정치적 권한이 크게 상승하며, 경제활동참여 및 기회, 교육적 성취 분야에서 상승하며, 건강과 생존 분야는 2023년과 동일한 점수를 보였다. 4개 분야 점수를 살펴보면, 교육적 성취와 건강과 생존 분야가 각 0.980점, 0.976점으로 완전성평등에 가까운 상황이고, 다음이 경제참여와 기회가 0.605점이고, 정치적 권한 부여가 0.22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GGI 산출 대상인 전체 146개국의 분야별 평균 점수와 비교할 때, 교육성취도 및 건강과 생존 분야는 평균보다 점수가 높고, 경제 참여와 기회는 동일 하지만, 정치적 권한 부여는 평균에 비해 0.002점 낮은 수준이다.([그림 IV-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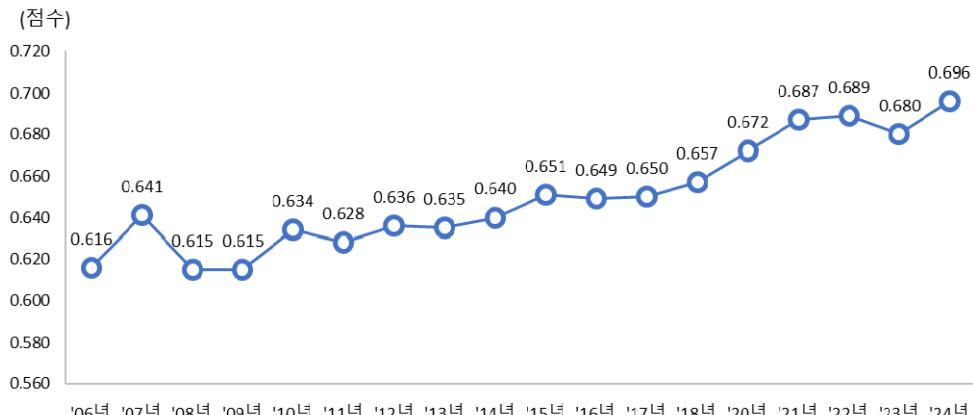


주: 각 영역별 평균 점수는 인구 가중치를 반영한 것임.

자료: WEF(2024),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24」, p.13, 325.

[그림 IV-2] 2024년 한국의 GGI 수준

다음에서 GGI 점수 변화 추세를 살펴보았다. 한국은 GGI 점수에서 2008년 이후 대체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왔으나, 2023년은 소폭 하락하고, 2024년은 다시 반등한 특성을 보인다([그림 IV-3] 참고).



자료: WEF(2023),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23」, pp.57~59.

[그림 IV-3] 한국의 GGI 점수 추이

지난 16년간의 추이를 보면 점수는 2006년 0.616점에서 2024년 0.696점으로 0.080점 상승한다. 성격차지수 점수는 대체로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다른 국가들의 점수 상승세와 GGI 측정 대상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 때문에 순위는 2006년 92위 이후 계속 100위권 밖에 머물렀다 2022년 99위로 100위권 내로 진입했고, 2023년 105위로 다시 밀려났으나 2024년은 94위로 재진입한다. 영역별 순위를 살펴보면, 건강과 생존 분야가 2006년 94위에서 2024년 47위로 47단계 상승하였고, 정치적 권한 부여 분야가 2006년 84위에서 2024년 72위로 상승하였다. 교육적 성취는 점수가 향상됨에도 순위는 하락하여, 2006년 82위였으나 2024년 100위로 18단계 하락하였다. 경제 참여와 기회 분야는 2006년 96위에서 2024년 112위로 16단계 하락하였다. 점수는 모든 영역에서 상승하였는데, 특히 경제참여와 기회 부분에서 상승 폭이 크다. 정치적 권한 부여 분야에서 2006년 0.067점에서 2024년 0.223점으로 0.156점 상승하였고 다음으로 경제 참여와 기회는 2006년 0.481점에서 2024년 0.605점으로 0.124점 상승하였다. 기존 점수가 높은 수준이었던 교육적 성취 및 건강과 생존 영역은 2006년 대비 2024년 각 0.032점, 0.009점 상승하였다.

〈표 IV-4〉 한국의 GGI 수준 추이

(단위: 점, 순위)

발표년도	순위	점수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2024	94/146	0.696	0.605(112위)	0.980(100위)	0.976(47위)	0.223(72위)
2023	105/146	0.680	0.597(114위)	0.977(104위)	0.976(46위)	0.169(88위)
2022	99/146	0.689	0.592(115위)	0.976(97위)	0.976(52위)	0.212(72위)
2021	102/156	0.687	0.586(123위)	0.973(104위)	0.976(54위)	0.214(68위)
2020	108/153	0.672	0.555(127위)	0.973(101위)	0.980(1위)	0.179(79위)
2018	115/149	0.657	0.549(124위)	0.973(100위)	0.973(87위)	0.134(92위)
2017	118/144	0.650	0.533(121위)	0.960(105위)	0.973(84위)	0.127(90위)
2016	116/144	0.649	0.537(123위)	0.964(102위)	0.973(76위)	0.120(92위)
2015	115/145	0.651	0.557(125위)	0.965(102위)	0.973(79위)	0.107(101위)
2014	117/142	0.640	0.512(124위)	0.965(103위)	0.973(74위)	0.112(93위)
2013	111/136	0.635	0.504(118위)	0.959(100위)	0.973(75위)	0.105(86위)
2012	108/135	0.636	0.509(116위)	0.959(99위)	0.973(78위)	0.102(86위)
2011	107/135	0.628	0.493(117위)	0.948(97위)	0.974(78위)	0.097(90위)
2010	104/134	0.634	0.520(111위)	0.947(100위)	0.973(79위)	0.097(86위)
2009	115/134	0.615	0.520(113위)	0.894(109위)	0.973(80위)	0.071(104위)
2008	108/130	0.615	0.487(110위)	0.937(99위)	0.967(107위)	0.071(102위)
2007	97/128	0.641	0.580(90위)	0.949(94위)	0.967(106위)	0.067(95위)
2006	92/115	0.616	0.481(96위)	0.948(82위)	0.967(94위)	0.067(84위)
2006~2024 점수 변화		△0.080	△0.124	△0.032	△0.009	△0.156

자료: WEF(각 년도),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24년 지표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14개 지표 중 경제활동참가율, 추정소득, 관리직 비율, 장관 비율은 순위와 점수가 향상되었다. 전문직 비율이 1점(1순위)으로 완전 평등한 상태로 나타났고, 출생성비는 0.944점이지만 1순위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순위가 높은 것은 여성 국가수장 재임기간인데, 23년 36위에서 24년 37위로 소폭 하락 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순위를 보여줬고, 건강기대수명 역시 56위로 중상 수준을 유지 하였다. 100위권 밖의 순위를 보인 것은 추정소득(114위, 0.503점), 관리직 비율(127위, 0.195점), 고등교육기관 취학률(115위, 0.861점), 국회의원 비율(103위, 0.238점)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건강과 생존이 47위(0.976점)로 전체 분야 중 순위가 가장 높았고, 경제 참여 및 기회가 112위(0.605점)로 전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분야별로 GGI 수준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참여와 기회 분야는 2024년 112위, 0.605점으로 순위와 점수 모두 2020년 이후 소폭 상승하였다. 전문·기술직 비율에서 2024년 1위, 1.000점으로 완전 평등한 상태를 달성하였는데, 2020년 88위(0.927), 2022년 68위(0.998), 2023년 1위(1.000)를 거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다. 경제활동 참가율과 추정소득 역시 2020년 이후 지속 개선되어 2024년 82위(0.764점)과 114위(0.503점)을 기록하였다. 다만, 유사업무 임금성비는 2020년 119위(0.551점)에서 2023년까지 순위와 점수 모두 상승하나, 2024년은 84위(0.617점)으로 하락한다. 경제참여와 기회 분야에서 가장 순위와 점수가 낮은 지표는 입법·고위직 및 관리직 비율로, 2020년 0.108점, 142위에서 2024년 0.195점, 127위로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IV-5〉 경제참여와 기회 분야의 GGI 수준 추이

지표(F/M)	2024년		2023년		2022년		2020년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경제참여와 기회 분야 전체	112	0.605	114	0.597	115	0.592	127	0.555
경제활동참가율	82	0.764	85	0.747	90	0.737	92	0.756
유사업무 임금성비	84	0.617	76	0.620	98	0.603	119	0.551
추정소득(US \$)	114	0.503	119	0.495	120	0.493	121	0.476
입법·고위직 및 관리직 비율	127	0.195	128	0.171	125	0.194	142	0.108
전문·기술직 비율	1	1.000	1	1.000	68	0.998	88	0.927

주: 발표 연도 기준

교육적 성취 분야는 문해율이 72위(0.992)로 가장 순위가 높고, 다음이 초등교육 취학률 87위(0.998점), 중등교육 취학률 93위(0.995), 고등교육 취학률 115위(0.861) 순이다. 초등교육 취학률은 2020년 84위, 2022년 70위, 2023년 69위 등으로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나, 2024년 87위로 하락하였다. 문해율의 경우,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연속 1위, 1.000점으로 완전 평등한 수준을 유지했는데, 2023년 처음으로 0.008점 감소하면서 74위로 순위가 하락했고 2024년 또한 동일한 점수로 72위에 위치하였다. 중등교육 취학률은 2020년 100위권 밖이었으나, 2022년 처음 82위로 진입했다 2024년 93위로 하락하였다. 고등교육 취학률은 2020년 120위에서 2024년 115위로 여전히 100위권 밖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점수는 일정 수준 증가세를 유지하는 상황

이다. 전반적으로 교육적 성취 분야는 남녀 모두 높은 성취 수준을 보이나, 성격차를 측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순위는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6〉 교육적 성취 분야의 GGI 수준 추이

지표(F/M)	2024년		2023년		2022년		2020년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교육적 성취 분야 전체	100	0.980	104	0.977	97	0.976	101	0.973
문해율	72	0.992	74	0.992	1	1.000	1	1.000
초등교육 취학률(Net)	87	0.998	69	0.999	70	1.000	84	0.998
중등교육 취학률(Net)	93	0.995	85	0.994	82	0.994	107	0.996
고등교육 취학률(Gross)	115	0.861	115	0.833	113	0.817	120	0.791

주: 발표 연도 기준

건강과 생존 분야는 건강기대수명에서 2020년 1순위에서 2022년 57위로 순위가 하락한 이후 2024년 56위 1.047점으로 유지되고 있다. 출생 성비는 2020년 0.944점, 1위로 올라선 후 2024년 0.944점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표 IV-7〉 건강과 생존 분야의 GGI 수준 추이

지표(F/M)	2024년		2023년		2022년		2020년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건강과 생존 분야 전체	47	0.976	46	0.976	52	0.976	1	0.980
출생 성비	1	0.944	1	0.944	1	0.944	1	0.944
건강기대수명	56	1.047	57	1.047	57	1.047	1	1.060

주: 발표 연도 기준

정치적 권한 분야를 전체적으로 2020년 이후 2022년까지 순위가 소폭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3년 하락하지만 2024년 크게 상승한다. 가장 순위가 높은 지난 50년 동안 국가 수장 재직기간의 경우, 2020년 29위에서 2024년 37위로 하락하였고, 점수는 0.104점으로 유지 중이다. 장관 비율은 2020년 0.285점, 2022년 0.385점에서 2023년 0.200점으로 하락하지만, 2024년 0.417점으로 크게 상승하여 순위는 52위로 상승하였다. 국회 의원 비율은 2024년 103위로 순위가 가장 낮고, 2020년 이후 계속 100위권 밖에 머물고 있지만, 점수는 소폭 개선되는 추세를 보인다.

〈표 IV-8〉 정치적 권한 분야의 GGI 수준 추이

지표(F/M)	2024년		2023년		2022년		2020년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정치적 권한 분야 전체	72	0.223	88	0.169	72	0.212	79	0.179
국회의원 비율	103	0.238	102	0.236	104	0.229	108	0.200
장관 비율	52	0.417	88	0.200	58	0.385	73	0.285
지난 50년 동안 국가 수장 (총리 이상)의 재직기간	37	0.104	36	0.104	31	0.104	29	0.104

주: 발표 연도 기준

2) 주요 국가의 GGI 수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회원국의 2024년 GGI 수준을 보면 전체 38개 국가 중 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가 1위부터 4위까지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OECD 회원국 중 8개 국가가 10위권 내 포진해 있다. 한국은 94위로 이는 38개 국가 중 34번째로, 한국보다 낮은 GGI 점수를 보인 국가는 헝가리 101위(0.686점), 체코가 104위(0.684점), 일본 118위(0.663점), 튀르키예 127위(0.645점)로 나타났다.

종합 GGI 점수는 1위인 아이슬란드가 0.935점으로 한국의 0.696점에 비해 0.239점이 높다. 아이슬란드와 한국의 GGI 점수 차이는 정치적 권한 분야의 차이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난다. 아이슬란드는 정치적 권한 분야 점수가 0.972점으로 한국보다 0.749점 더 높다. 이외에도 아이슬란드는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성취도에서 한국보다 높았다. 단지, 한국은 건강과 생존에서는 아이슬란드보다 약간 높은 점수와 순위를 보여주었다.

〈표 IV-9〉 OECD 국가 중 2024년 GGI 1위 국가와 한국 간의 수준 격차

구분	종합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 성취도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1위 국가 (아이슬란드)	1	0.935	7	0.815	79	0.992	124	0.962	1	0.972
대한민국	94	0.696	112	0.605	100	0.980	47	0.976	72	0.223
점수 격차	93	-0.239	105	-0.21	21	-0.012	-77	0.014	71	-0.749

주: 발표 연도 기준

분야별로 보면 경제참여와 기회 분야는 아이슬란드가 전체 7위로 0.815점이고, OECD 국가 중 1위이다. 이어서 146개국 중 노르웨이가 9위, 핀란드가 10위, 스웨덴이 12위이다. 한국의 점수는 112위 0.605점으로 OECD 국가 중 1위인 아이슬란드와 0.210점 차이를 보인다. 교육적 성취 분야에서는 38개국 중 핀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미국,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뉴질랜드, 아일랜드, 프랑스, 슬로바키아, 벨기에, 영국, 콜롬비아, 네덜란드, 이스라엘, 코스타리카, 체코 등 17개국이 완전 평등상태인 1.000점을 기록 하여 한국의 0.980보다 0.020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과 생존 분야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리투아니아에서 0.980점으로 공동 1위를 하였고, 한국은 47위 0.976점으로 1위 국가와 0.004점 차이가 있었다. 정치적 권한 분야는 아이슬란드가 1위로서 점수는 0.972점이며, 한국은 0.223점으로 무려 0.749점이 낮았다.

〈표 IV-10〉 OECD 회원국의 2024년 GGI 현황

국가명	종합 순위	종합 점수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한국	94	0.696	112	0.605	100	0.980	47	0.976	72	0.223
아이슬란드	1	0.935	7	0.815	79	0.992	124	0.962	1	0.972
핀란드	2	0.875	10	0.796	33	1.000	70	0.970	3	0.734
노르웨이	3	0.875	9	0.799	74	0.993	123	0.962	2	0.746
뉴질랜드	4	0.835	36	0.741	1	1.000	99	0.966	4	0.631
스웨덴	5	0.816	12	0.794	29	1.000	118	0.963	11	0.506
독일	7	0.810	82	0.676	91	0.987	63	0.972	6	0.604
아일랜드	9	0.802	41	0.737	1	1.000	111	0.964	10	0.507
스페인	10	0.797	45	0.732	41	0.998	100	0.966	13	0.494
리투아니아	11	0.793	24	0.760	60	0.995	1	0.980	24	0.440
벨기에	12	0.793	57	0.718	30	1.000	90	0.968	16	0.486
영국	14	0.789	58	0.717	1	1.000	104	0.965	18	0.474
덴마크	15	0.789	37	0.741	46	0.998	112	0.964	22	0.452
포르투갈	17	0.787	27	0.754	68	0.993	62	0.973	26	0.429
코스타리카	19	0.785	81	0.679	1	1.000	59	0.973	15	0.489
스위스	20	0.785	53	0.720	77	0.992	115	0.964	19	0.463
칠레	21	0.781	92	0.662	88	0.990	68	0.970	12	0.502

70 2024년 국가성평등보고서

국가명	종합 순위	종합 점수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프랑스	22	0.781	48	0.726	1	1.000	75	0.970	27	0.428
호주	24	0.780	42	0.736	84	0.991	88	0.968	28	0.424
네덜란드	28	0.775	74	0.694	1	1.000	126	0.962	23	0.443
에스토니아	29	0.774	19	0.777	1	1.000	32	0.979	41	0.340
라트비아	30	0.773	26	0.755	1	1.000	48	0.975	35	0.363
멕시코	33	0.768	109	0.612	62	0.994	49	0.975	14	0.490
슬로베니아	34	0.766	23	0.762	1	1.000	60	0.973	43	0.327
캐나다	36	0.761	33	0.746	55	0.996	92	0.968	42	0.334
미국	43	0.747	22	0.765	1	1.000	77	0.970	63	0.251
콜롬비아	45	0.745	71	0.701	1	1.000	51	0.975	47	0.306
룩셈부르크	46	0.744	44	0.735	38	0.999	108	0.965	55	0.278
오스트리아	49	0.743	67	0.706	61	0.995	76	0.970	48	0.303
폴란드	51	0.740	62	0.712	53	0.996	1	0.980	57	0.272
슬로바키아	56	0.731	52	0.720	1	1.000	1	0.980	71	0.224
그리스	73	0.714	80	0.680	66	0.994	95	0.967	78	0.214
이탈리아	87	0.703	111	0.607	56	0.996	94	0.967	67	0.243
이스라엘	91	0.699	75	0.690	1	1.000	109	0.964	106	0.139
헝가리	101	0.686	72	0.697	34	0.999	1	0.980	131	0.069
체코	104	0.684	104	0.632	1	1.000	37	0.978	110	0.126
일본	118	0.663	120	0.568	72	0.993	58	0.973	113	0.118
튀르키예	127	0.645	133	0.507	90	0.987	98	0.966	114	0.118

주: 발표 연도 기준

2. 유엔개발계획의 성개발지수와 성불평등 지수

가. 성개발지수 소개

1) GDI의 의의와 특징¹⁵⁾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이하 UNDP)은 2014년부터 새롭게 개편한 성개발지수(Gender Development Index, 이하 GDI)를 발표하였다. GDI는 1995년 제4차 여성대회에서 처음 발표한 이후로 2009년까지 약 10년간 매년 발표되었으나, 여러 한계로 인해 2009년에 폐기되었다. 현재 GDI는 2014년에 개편된 것이다. 기존의 GDI가 HD(Human Development Index)를 기준으로 성별 격차를 고려할 경우 HDI가 얼마나 바뀌게 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개선된 GDI는 여성과 남성의 HDI를 개별로 계산함으로써 여성집단과 남성집단의 HDI를 각각 산출하였다. 그 결과 남녀 간의 HDI 수치의 절대 격차에 기초하여 순위를 매기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별, 지역별, 연도별 남녀 HDI의 절대 수치의 비교가 가능하게 되었다¹⁶⁾.

〈표 IV-11〉 기존 GDI와 새로운 GDI 비교

지수명	기준 GDI	새로운 GDI
영문명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ender Development Index
우리나라 순위	2009년 ¹⁾ 155개국 중 25위	2023/2024년 ¹⁾ 3그룹 ²⁾
발표기간	1995년~2009년	2014년~현재
지수 구성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시 기대여명 • 성인 문해율(15세 이상 인구) • 초중고 취학률 • 1인당 추정소득(G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시 기대여명 • 평균 교육년수(25세 이상 인구) • 기대 교육년수 • 1인당 추정소득(GNI)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별 성불평등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 • 국가별 수준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HDI를 산정 후 성비를 산출하는 방식 • 국가별 수준 미반영, 성별격차만 반영

주: 1) 발표 연도 기준

2) GDI는 순위가 아니라, 국가를 접수에 따라 그룹으로 분류함. GDI 1그룹 0.975 이상, 2그룹 0.950~0.975 미만, 3그룹 0.925~0.950 미만, 4그룹 0.900~0.925 미만, 5그룹 0.900 미만

15) GDI 지표 구성과 소개는 거의 변화가 없음. 이에 선행연구인 주재선, 정성미, 한진영, 박송이 (2019). 「2019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pp.86~89, 김경희, 이민아, 이은아, 김은경(2020).

「2020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p.63~74, 주재선, 김영란, 조선미, 송치선(2021). 「2021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p.75~83, 주재선, 김효주, 조선미, 권도연(2022). 「2022년 국가성평등 보고서」, pp.76~84 원문을 대부분 발췌 및 인용하여 작성함.

16) 자료는 UNDP HDR 홈페이지(<http://hdr.undp.org>) 중 Frequently Asked Questions-GDI 부분을 참고하였음.

새로 발표된 GDI는 인간 개발의 기본적인 세 가지 차원인 건강, 교육, 경제(적절한 표준 삶)에서의 성취 수준에 대한 성별 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UNDP, 2014: 7). 이에 따라 GDI는 해당 국가의 HDI 수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었던 과거의 집계 방식에서 벗어나, HDI의 성별 차이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즉, 성별에 따른 HDI를 산정한 후 성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측정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의 HDI에서 국가의 발전 수준이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배제하고, 남녀 간의 격차만이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을 의미한다.

2) 지표의 구성

GDI는 3개 영역의 총 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영역으로는 평균수명, 교육영역으로는 2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년수와 기대 교육년수, 경제영역으로는 국민총생산(GNI)을 기준으로 한 1인당 추정 소득이다.

출생시 기대여명은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를 말한다. 기대 교육년수는 연령별 취학률 패턴이 지속된다면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교육 연수이다. 1인당 GNI(추정소득)는 1인당 국민소득을 미국 달러 기준의 구매력 평가 환율로 변경한 것으로 성별 인구 비중, 경제활동인구 비중, 임금 격차의 세 변수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표 IV-12〉 GDI 영역과 지표

영역	2009년 GDI 지표 구성	2014년 이후 GDI 지표 구성
건강	• 출생 시 기대여명	• 출생 시 기대여명
교육	• 성인 문해율 • 총 취학률	• 2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년수 • 기대 교육년수
경제	• 1인당 GDP(PPP\$)	• 1인당 추정소득(GNI, PPP US\$)

3) 지표별 자료원

지수 산정에 활용된 자료원을 보면 출생시 기대여명은 유엔경제사회국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기대 교육년수는 UNESCO 통계연구소(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 CEDLAS와 세계은행, ICF Macro, UNICEF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평균 교육년수는 UNESCO 통계연구소 자료 및 Barro와 Lee의 방법론에 의해 산출된 자료와 함께, OECD, ICF Macro, UNICEF 통계 자료가 사용되었다. 추정소득은 ILO, IMF, 세계은행, UN 통계위원회, UN 경제사회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유엔개발보고서 담당자들이 산출

하고 있다(UNDP, 2022: 6).

〈표 IV-13〉 GDI 지표별 자료원

지표	자료원
출생시 기대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DESA(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22 Revision.
기대 교육년수 (학령기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CEDLAS and World Bank(2023). Socio-Economic Database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CF Macro(various years).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2023). UIS Developer Portal, Bulk Data Download Service. UNICEF(various years).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
평균 교육년수 (25세 이상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Barro and Lee(2018). Dataset of Educational Attainment. ICF Macro(Various years).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 OECD(2023). OECD.Stat.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2023). UIS Developer Portal, Bulk Data Download Service. UNICEF(various years).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
1인당 추정소득 (PPP US\$)	<p>남녀 경제활동인구 비율 및 남녀 임금 비율(전 부문, 2017년 GNI 기준, PPP\$), 남녀 인구 비율을 환산하여 계산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LO(2023). ILOSTAT database. IMF(2023).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UNDESA(2023). World Population Prospects.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2023). National Accounts Main Aggregate Database. World Bank(2023).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자료: UNDP(2024). Human Development Report 2023/2024-Technical notes. p.7.
https://hdr.undp.org/sites/default/files/2023-24_HDR/hdr2023-24_technical_notes.pdf
(2024년 12월 1일 접속).

4) 측정 방법

GDI는 네 단계의 순서를 거쳐 계산된다(UNDP, 2020).

첫째 단계는 남녀별 소득의 추정이다. 이를 위한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S_f = \frac{W_f / W_m \cdot EA_f}{W_f / W_m \cdot EA_f + EA_m}$$

S_f : 여성의 소득 비율

W_f / W_m : 남성대비 여성임금비

EA_f : 경제활동참가인구 중 여성비중

여성 1인당 소득추정은 국민총생산에 여성 임금비율과 여성인구 비중을 곱하여 구한다.

$$GNI_{pcf} = GNI_{pc} \cdot S_f / P_f$$

P_f : 여성인구 비중

남성 1인당 소득추정 역시 국민총생산에 남성 임금비율과 남성인구 비중을 곱하여 구한다.

$$GNI_{pcm} = GNI_{pc} \cdot S_m / P_m$$

P_m : 남성인구 비중

둘째 단계는 지표들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모든 지표들을 0에서 1까지의 척도로 전환한다.

〈표 IV-14〉 GDI의 최대·최소값 설정

지표	최소값	최대값
기대 교육년수	0	18
평균 교육년수	0	18
추정소득	100	75,000
기대여명	여성	22.5
	남성	17.5
		87.5
		82.5

최솟값과 최댓값을 이용하여, 지표의 표준화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text{지표의 표준화} = \frac{(\text{실제값} - \text{최소값})}{(\text{최대값} - \text{최소값})}$$

두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 분야는 각 지표의 지수값을 구하여 산술 평균값을 취한다.

셋째 단계는 여성 HDI값과 남성 HDI값을 산출하는 것이다. 여성 HDI와 남성 HDI는 세 분야 지수들의 기하평균값을 취한다.

$$HDI_f = (I_{Health_f} \cdot I_{Education_f} \cdot I_{Economy_f})^{1/3}$$

$$HDI_m = (I_{Health_m} \cdot I_{Education_m} \cdot I_{Economy_m})^{1/3}$$

넷째 단계는 GDI를 계산하는 것이다.

$$GDI = \frac{HDI_f}{HDI_m}$$

나. GD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1) 한국의 GDI 수준¹⁷⁾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는 각 국가의 GDI 점수를 발표하되, 순위를 매기지 않고, 대신 5그룹으로 나누어 각 국가들이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를 집계하고 있다. 이 분류에 따르면, 1그룹은 GDI 점수가 0.975점 이상인 국가이다. 다시 말해 남성과의 격차가 ±2.5% 이하인 국가를 1그룹(0.975~1.000 또는 1.000~1.025)으로 상정하였다. 2그룹은 격차가 ±5% 이하(0.950~0.975 또는 1.025~1.050), 3그룹은 ±7.5% 이하(0.925~0.950 또는 1.050~1.075), 4그룹은 ±10% 이하(0.900~0.925 또는 1.075~0.100), 5그룹은 ±10%를 초과(0.900 미만 또는 0.100 초과)인 국가로 범주화하였다.¹⁸⁾ 국가별 순위 대신 수준을 범주화한 이유는 이 GDI 지표의 개발 의도가 국가별 비교보다는 남녀 개발지수의 격차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를 감소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기준에 따라 2024년 발표된 한국의 GDI 수준은 0.948점으로 성격차 수준 5그룹 중 3그룹에 속해 있고, 점수로 볼 때 OECD 38개 국가 중 37번째 순위로 나타난다. 이처럼 낮은 순위를 보인 가장 큰 원인은 남녀 소득수준 격차이다. 추정소득이 여성은 \$31,063, 남성은 \$61,037으로 성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한편 한국이 2015년 이래 3그룹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GDI 점수는 점차 상승하는 추세다. 즉, 2015년 0.930점에서 2024년 0.948점으로 0.018점 상승하였다.

17) UNDP(2024). Human Development Report 2023/2024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작성함.

18) GDI는 남녀 개발의 절대적 수준보다는 여성과 남성이 얼마나 동등한지의 상대적 격차를 중심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GDI가 1에 가까울수록 성평등 수준이 높음. 따라서 GDI 점수의 절대 값과 그룹 등급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상황 역시 성평등이 낮은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높은 GDI 점수가 곧 높은 성평등 수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음. 즉, GDI는 GDI 점수와 그룹 등급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해석이 필요함.

〈표 IV-15〉 한국의 GDI 수준

발표 연도	순위/ 대상	GDI	인간개발지수 (HDI)		출생시 기대여명(년) ¹⁾		기대 교육년수(년) ²⁾		평균 교육년수(년) ³⁾		1인당 추정소득 (2017 PPP US\$) ⁴⁾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24	3그룹	0.948	0.900	0.950	87.1	80.7	16.1	16.8	12.0	13.3	31,063	61,037
2022	3그룹	0.944	0.894	0.947	86.8	80.4	16.1	16.9	11.9	13.2	29,300	59,737
2020	3그룹	0.936	0.881	0.941	86.0	79.9	11.4	12.9	15.9	17.0	27,734	58,309
2018	3그룹	0.934	0.870	0.932	85.8	79.7	11.5	12.9	15.8	16.9	23,228	50,241
2017	3그룹	0.932	0.866	0.929	85.3	79.2	15.9	17.1	11.4	12.9	22,572	49,297
2016	3그룹	0.929	0.863	0.929	85.2	78.8	11.5	12.9	15.8	17.3	21,308	47,934
2015	3그룹	0.930	0.861	0.926	85.0	78.5	11.2	12.7	16.0	17.7	21,896	46,018
2015~2024 (통계발표기준) 점수 변화	-	△ 0.018	△ 0.039	△ 0.024	△2.1	△2.2	△4.9	△4.1	▽4.0	▽4.4	△ 9,167	△ 15,019

주: 1) 출생시 기대여명: 0세의 평균 기대수명

2) 기대 교육년수: 학령기 아동이 기대하는 평균 기대 교육년수

3) 평균 교육년수: 2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년수

4) 1인당 추정소득(GNI): 1인당 국민소득을 미국 달러 기준의 구매력평가 환율로 변경한 소득

2) 주요 국가의 GDI 수준

2014년에 개편된 GDI는 이전의 GDI와 달리 해당 국가의 경제적 수준과 비례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즉 이전의 GDI는 추정소득이 높을수록 GDI 점수가 높게 나와 해당 국가의 GDP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새로 바뀐 GDI는 남녀의 차이만을 보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관관계가 약화하였다.

2024년 발표된 OECD 국가의 GDI 현황을 보면 HDI 순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에 비해 GDI 점수는 넓게 펴져있다. 리투아니아가 점수가 1순위로 가장 높지만, 한국은 전체 OECD 국가 38개국 중 37위, 튀르키예가 38위로 최하위이다. 등급별 분포를 보면 GDI 점수가 가장 높은 리투아니아는 2등급이며¹⁹⁾,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미국,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덴마크 등 26개 국가는 GDI 1그룹에 속해 있고 칠레, 오스트리아, 스위스, 뉴질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독일, 네덜란드 등 8개 국가는 GDI 2그룹에 속해 있지만,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는 GDI 3그룹으로 분류된다.

19) 1등급 범주인 0.975~1.000과 1.000~1.025의 범위를 벗어나서 2등급임. 즉 여성의 HDI가 남성에 비해 높은 경우에도 격차에 따라 등급화하고 있음.

지표별 차이를 보면 GDI 1그룹 국가 중 상당수가 평균 교육년수에서 여성이 남성을 앞지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라트비아, 폴란드, 미국, 슬로베니아, 포르투칼,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웨덴, 아일랜드, 핀란드, 캐나다 등 다수 국가가 여성 평균 교육년수가 남성보다 길고, 2그룹과 3그룹 국가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여성의 평균 교육년수가 남성보다 짧았다. 기대교육년수 지표의 경우 1그룹과 2그룹 국가일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3그룹에 속하는 한국과 튀르키예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기대 교육년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IV-16〉 OECD 회원국의 2024년 GDI 현황

국가명	GDI		HDI		출생시 기대여명(년)		기대 교육년수(년)		평균 교육년수(년)		1인당 추정소득 (2017 PPP US\$)	
	그룹	성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대한민국	3	0.948	0.900	0.950	87.1	80.7	16.1	16.8	12.0	13.3	31,063	61,037
리투아니아	2	1.028	0.891	0.867	79.1	69.5	17.1	15.8	13.6	13.4	33,012	43,912
에스토니아	1	1.022	0.908	0.888	83.0	75.0	16.8	15.1	13.8	13.3	31,199	43,737
라트비아	1	1.022	0.887	0.868	80.1	71.5	17.3	15.9	13.6	13.0	26,345	38,716
폴란드	1	1.009	0.884	0.876	80.8	73.2	16.7	15.2	13.3	13.0	27,366	43,446
미국	1	1.005	0.928	0.923	81.0	75.5	17.3	15.6	13.7	13.5	53,469	77,898
슬로바키아	1	1.002	0.856	0.854	78.8	71.9	15.3	14.2	13.0	13.0	26,634	37,967
슬로베니아	1	0.999	0.924	0.925	84.6	79.6	18.3	16.6	12.9	12.8	35,264	47,843
포르투갈	1	0.998	0.873	0.874	84.9	79.3	17.1	16.6	9.6	9.5	31,845	39,199
콜롬비아	1	0.998	0.756	0.758	77.1	70.3	14.7	14.2	9.0	8.7	12,252	17,854
코스타리카	1	0.995	0.803	0.807	80.0	74.8	16.7	15.6	8.9	8.7	16,531	23,965
룩셈부르크	1	0.993	0.920	0.927	84.8	80.4	14.3	14.1	12.9	13.0	66,697	90,256
아일랜드	1	0.991	0.943	0.951	84.4	81.0	19.5	18.8	11.9	11.4	66,876	108,424
이스라엘	1	0.991	0.910	0.918	84.5	80.6	15.6	14.5	13.5	13.4	37,415	49,792
핀란드	1	0.989	0.937	0.947	84.9	79.8	20.3	18.3	13.1	12.7	42,302	56,914
헝가리	1	0.989	0.846	0.855	78.3	71.6	15.4	14.7	12.1	12.4	27,203	41,768
캐나다	1	0.988	0.929	0.940	84.8	80.9	16.5	15.4	14.0	13.8	39,765	57,230
스페인	1	0.988	0.902	0.913	86.5	81.2	18.4	17.2	10.5	10.7	32,835	47,543

78 2024년 국가성평등보고서

국가명	GDI		HDI		출생시 기대여명(년)		기대 교육년수(년)		평균 교육년수(년)		1인당 추정소득 (2017 PPP US\$)	
	그룹	성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체코	1	0.988	0.888	0.899	81.2	75.1	16.9	15.8	12.8	13.1	30,761	49,404
노르웨이	1	0.986	0.957	0.970	85.1	81.7	19.5	17.8	13.2	12.9	61,067	77,164
프랑스	1	0.986	0.903	0.916	86.0	80.4	16.4	15.6	11.5	11.9	38,135	57,263
스웨덴	1	0.983	0.941	0.957	85.1	81.9	20.7	17.5	12.8	12.5	47,828	66,019
덴마크	1	0.981	0.942	0.960	83.8	80.0	19.4	18.2	13.2	12.8	51,753	72,387
멕시코	1	0.979	0.770	0.787	78.2	71.5	15.0	14.1	9.1	9.4	13,548	25,008
호주	1	0.978	0.935	0.956	85.5	81.7	22.0	20.2	12.8	12.6	41,131	57,496
영국	1	0.976	0.926	0.949	83.8	80.4	18.2	17.1	13.4	13.4	35,910	57,591
아이슬란드	1	0.975	0.946	0.969	84.3	81.4	20.5	17.8	13.9	13.7	45,506	63,420
벨기에	1	0.975	0.929	0.952	84.4	80.2	19.9	18.0	12.5	12.6	43,720	63,804
칠레	2	0.973	0.847	0.870	81.9	77.2	17.1	16.5	11.0	11.2	18,612	30,337
오스트리아	2	0.972	0.912	0.938	84.6	80.2	16.8	15.9	12.0	12.6	41,899	71,616
스위스	2	0.971	0.949	0.977	85.9	82.5	16.7	16.5	13.5	14.3	56,928	82,109
뉴질랜드	2	0.970	0.924	0.953	84.7	81.3	20.2	19.2	12.9	13.0	34,940	52,542
이탈리아	2	0.969	0.890	0.918	86.0	82.0	17.1	16.2	10.6	10.9	31,413	57,808
그리스	2	0.969	0.878	0.907	83.3	78.0	20.2	19.9	11.1	11.7	24,821	38,227
일본	2	0.968	0.904	0.933	87.8	81.8	15.4	15.5	12.4	13.0	33,478	54,395
독일	2	0.966	0.932	0.964	83.5	78.5	17.4	17.3	14.0	14.5	41,022	70,040
네덜란드	2	0.960	0.925	0.964	83.9	80.9	18.9	18.2	12.4	12.8	44,139	70,575
튀르키예	3	0.941	0.825	0.876	81.5	75.4	19.6	19.8	8.1	9.6	20,538	45,077

주: 1) 발표 연도 기준

2) GDI 점수 순위로 정렬; 그룹: GDI 1그룹 0.975 이상, 2그룹 0.950~0.975 미만, 3그룹 0.925~0.950
미만, 4그룹 0.900~0.925 미만, 5그룹 0.900 미만

자료: UNDP(2024). Human Development Report 2023/2024.

다. 성불평등지수 소개²⁰⁾

1)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이하 GII) 특징²¹⁾

GII는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를 통해 2010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지수로, 1995년 이래 발표했던 여성개발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이하 GDI)와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이하 GEM)를 대체하는 지수이다. GII은 생식건강, 권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불이익을 파악하도록 지표가 구성된다. GII는 성평등할 때 인간개발이 최적화될 수 있다는 개념 하에,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인간개발의 손실로 접근한다.

GII는 기존 GDI와 GEM의 한계와 비판을 수용하여 개발되었기에 지표의 선정과 지수 산정 방법에 있어 차별화된다. 지표 선정은 기본적으로 개념적 연관성²²⁾(Conceptual relevance), 해석의 명확성²³⁾(Non-ambiguity), 통계의 신뢰성²⁴⁾(Reliability), 가치 부기²⁵⁾(Value added)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국가의 발전 수준에 의존하지 않는 지표로 구성하였다. GII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비교변수가 아닌 여성만의 생식건강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GII가 발표되기 이전 UNDP에서 발표해 오던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가 경제 분야와 정치 분야에서 대표성과 관련된 지표 즉 행정관리적 여성 비율, 국회의원 여성 비율, 전문기술적 여성 비율 등의 지표를 포함했던 점을 상기한다면 상당히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과거의 GEM 지표 중 위의 지표들이 소수 엘리트 여성의 상태만을 제한적으로 반영한다는 비판을 수렴한 결과로 보인다. 즉, 국회의원 여성 비율을 제외한 다른 지표들을 없애는 대신 대부분의 여성에게 해당하는 모성사망률과 청소년 출산율

- 20) GII지표 구성과 소개는 거의 변화가 없어 주재선, 정성미, 한진영, 박송이(2019). 「2019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pp.93~96; 김경희, 이민아, 이은아, 김은경(2020). 「2020년 국가 성평등보고서」, pp.74~84; 주재선(2021). 국제성평등지수로 보는 한국의 성평등 수준; 주재선, 김영란, 조선미, 송치선(2021). 「2021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p.83~92의 원문을 대부분 발췌 및 인용하여 작성하였음.
- 21) 본 절은 주재선(2021). “국제성평등지수로 보는 한국의 성평등 수준”의 원문을 대부분 발췌 및 인용하여 작성하였음.
- 22) 인간개발 정의와 이론과 강력한 관련성. 즉, 지표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는 개념임.
- 23) 해석이 단순해야 한다는 것으로, 각각의 영역에서 지표 값이 높을수록(혹은 낮을수록)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개념임.
- 24) 정의, 통계의 질, 생산과정 등에서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는 개념임.
- 25) 각 지표는 명확히 새로운 정보를 주어야 함.

이라는 보다 인간 개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표로 교체하였다.

둘째, GII는 기존 지수 추정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던 자료 대체(Imputation)에 의존하지 않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GDI와 GEM의 지표 중 소득은 절대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와 순위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국가의 3/4 이상은 소득을 추정하여 지수를 산정하였다. 특히 소득은 GDI에 있어 HDI와 격차를 가져오는 주된 요인이고 때문에, 추정에 의한 측정은 주요 문제점 중의 하나였다. 이에 GII는 소득수준이 성격차를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임에도 지표구성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다.

셋째, GII는 성불평등 수준만을 고려하여 지수를 산정하도록 하여, 국가의 발전 정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GII는 세 가지 영역에서 성 불평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성취의 손실을 파악한다. 따라서 지수는 인간개발에서 불평등이 전혀 없는 경우 '0'에서, 완전불평등한 경우 '1'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넷째, GII 측정은 영역 간의 불이익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즉, 영역들이 서로 보완적(Complementarities)임을 고려하여 영역 간의 남녀불평등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때, 불평등 수준이 더 커지도록 설계하였다. 즉, 교육 분야의 불평등은 취업 기회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되고, 이는 여성 빈곤으로 이어져 모성 사망비 증가 등의 복합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일 때 불평등이 더 높아지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와 같은 측정 방법은 GII의 주요한 특징으로, 특정 영역의 낮은 성취는 다른 영역의 높은 성취에 의해서 완전하게 보상될 수 없게 구성한 것이다.²⁶⁾ 그리고 GGI 등 대부분의 성평등지수는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어떠한 영역이나 지표를 대상으로 추진해도 동일한 상승효과를 보이나, GII는 불평등 정도가 높은 영역 혹은 지표에 추진할 경우 보다 높은 상승효과를 나타낸다.

2) 지표의 구성

GII는 생식 건강, 여성 권한, 노동 참여의 3개 영역으로 구축되어 있고 총 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26) GII는 영역간의 상관관계가 정(+)의 방향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구축한 지수임. 기존의 국제성평등지수의 경우 성불평등 해소 정책을 어떤 영역이나 지표를 대상으로 추진하여도, 성불평등 개선 정도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반면, GII의 경우 어떤 영역 혹은 지표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정책효과가 다르게 나타남. 이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음.

각 영역별 지표구성을 보면 첫째, 생식건강 영역은 모성 사망률과 청소년 출산율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영역의 지표들이 남녀를 비교한 데 비해, 이 영역의 지표는 여성 특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두 지표의 선정 근거는 여성특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관련된 여성의 건강이 남녀의 격차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출산과 관련한 산모의 사망 위험은 기초교육, 적절한 영양, 피임에 대한 접근성, 의료 서비스, 숙련된 출산조력자를 통해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대부분 큰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에도, 상당수의 여성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고 있어 여성의 건강유지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청소년 출산율로 측정되는 조기 출산은 건강에 대한 문제와 아울러 산모의 미래 인간개발 기회의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지표로 선정되었다. 청소년 출산은 산모와 아기 건강에 대한 높은 위험과 관련이 있고, 출산 여성의 교육 중단과 그로 인한 저숙련 일자리 취업의 가능성성이 크다.

〈표 IV-17〉 GII의 영역과 지표

영역	지표	내용
생식건강	모성 사망비	여성의 임신, 분만 및 관련 합병증으로 인해 출생 10만명당 사망하는 여성의 수
	청소년 출산율	15~19세 여성인구 1,000명당 출산 수 (UN의 출산율 전망치 활용)
여성권한	여성의원 비율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인구 비율	2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성별 인구 비율
노동참여	경제활동참가율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비율

자료: UNDP(2024), Human Development Index 2023/2024, p.297.

둘째, 여성 권한 영역은 여성의원 비율과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비율이라는 두 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의원 비율은 대부분의 성평등지수에서 선택하고 있는 지표로써 정치 분야의 권한을 측정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가장 대표적으로 모든 영역의 여성의 지위와 권한을 보여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은 권한 영역에서 교육 분야의 성불평등을 파악하기 위해 선택한 지표이다. 교육 수준은 경제와 정치 등 향후 여성의 지위와 연관된 지표로, GII지수는 중등 및 고등교육 성취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참여 영역은 경제활동참가율로 측정하고 있다. GII는 GDI, GEM,

GGI 등 대부분의 지수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득변수를 지표에서 제외하고 있다. 소득통계가 국가별로 충분하지 않고 대부분 추정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지표별 자료원

지수 산정에 활용된 자료원은 모성사망비는 유엔 모성사망 추정 집단 결과(2019)를 활용했고, 청소년 출산율은 유엔 경제사회국(UNDESA, 2022)의 자료를 활용했다. 여성의원 비율은 국제의원연맹(IPU)의 데이터베이스(2022)를 근거로 하였고,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인구 비율은 유네스코 통계연구소(2022)와 Barro and Lee(2018)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국제노동기구(ILO, 2022)의 노동시장지표에서 수집하였다.

〈표 IV-18〉 GII 지표별 자료원

영역	지표	자료원
생식건강	모성사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WHO, UNICEF, UNFPA, World Bank Group and UNDESA/ Population Division(2023).
	청소년 출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DESA(2023). World Population Prospects.
여성권한	여성의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U(2023). Parline database: Monthly ranking of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Barro and Lee(2018). Dataset of Educational Attainment. ICF Macro(various years).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 OECD(2023). OECD.Stat.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2023). UIS Developer Portal, Bulk Data Download Servic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various years).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
노동참여	경제활동 참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ILO(2023). ILOSTAT database.

자료: UNDP(2024). Human Development Report 2023/2024-Technical notes. p.9.

4) 측정 방법

GII는 여성과 남성 간의 불평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지표 간 연관에서 변화에 민감하도록 설계하였다. 지수 산정은 Atkinson 불평등지수 산정 방식을 원용하고 있다. 지수는 성별 차이를 균등배분(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지수²⁷⁾로 만드는 과정을

27) 개별지표를 균등배분지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불평등에 대한 혐오수준을 정해야 함. 불평등혐

통해 표준화하여 측정하게 된다. 단계별 측정 과정은 다음의 다섯 단계를 거친다 (UNDP, 2020: 9).

첫 번째 단계는 최솟값과 최댓값을 다루는 단계이다. 기하평균을 계산할 때는 0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지표의 최솟값을 0.1로 지정한다. 모성사망비 추정의 경우는 100,000명 출생당 최솟값 10, 최댓값 1,000으로 조정한다. 이는 사실상 모성 사망비가 1,00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국가가 모성건강을 위한 조건과 지원을 마련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10명 이하인 경우는 국가 간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판단에 기반한다.

두 번째 단계는 기하평균을 이용하여 전체 영역의 성별 지표를 계산함으로써 여성 (G_F)과 남성(G_M) 각각에 대해 차원 간 통합을 한다. 먼저 여성 지표값 산출을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G_F = \sqrt[3]{\left(\frac{10}{MMR} \cdot \frac{1}{ABR}\right)^{\frac{1}{2}} \cdot (PR_F \cdot SE_F)^{\frac{1}{2}} \cdot LFPR_F}$$

MMR : 모성사망비

ABR : 청소년 출산율

PR_F : 여성의원 비율

SE_F :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여성 비율

$LFPR_F$: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남성 지표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G_M = \sqrt[3]{1 \cdot (PR_M \cdot SE_M)^{\frac{1}{2}} \cdot LFPR_M}$$

PR_M : 남성의원 비율

SE_M :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남성 비율

$LFPR_M$: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오수준(ϵ)은 만약에 불평등에 대한 혐오가 없으면 $\epsilon=0$ 으로 설정하며, 혐오가 높을수록 ϵ 값을 높임. GII는 불평등 혐오수준(ϵ)을 GDI 산정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epsilon=2$ 를 설정하여 계산함.

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에서 산출한 수치에 대해 조화평균을 이용하여 여성과 남성 지표를 계산한다. 기하평균의 조화평균은 여성과 남성의 불평균 측정하고 영역 간 연관성을 수정하기 위해 실시한다.

$$HARM(G_F, G_M) = \left[\frac{(G_F)^{-1} + (G_M)^{-1}}{2} \right]^{-1}$$

네 번째 단계는 생식건강, 권한, 노동시장 영역에 대한 산출평균에 대해 기하평균을 계산한다. 동일한 가중치를 사용하여(즉, 남녀를 동일하게 치우함) 남녀 지수 값을 합산 함으로써, 불평등정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참고수준(Reference standard)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영역별로 지수 값을 합산한다. 여기서 참고수준은 영역 내 지표를 산출평균한 후 영역 간 동일가중치를 사용하여 기하평균으로 구한다.

$$G_{\overline{F}, \overline{M}} = \sqrt[3]{\overline{Health} \cdot \overline{Empowerment} \cdot \overline{LFPR}}$$

위 산출 공식의 각 구성요소를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overline{Health} &= (\sqrt{\frac{10}{MMR} \cdot \frac{1}{ABR}} + 1)/2 \\ \overline{Empowerment} &= \frac{(\sqrt{(PR_F) \cdot (SE_F)} + \sqrt{(PR_M) \cdot (SE_M)})}{2} \\ \overline{LFPR} &= \frac{(LFPR_F + LFPR_M)}{2}\end{aligned}$$

마지막 단계는 $HARM(G_F, G_M)$ 을 $G_{\overline{F}, \overline{M}}$ 으로 나눈 후 다음의 식으로 성불평등 정도를 산출한다. 이는 Atkinson 지수 산정 방법과 같다.

$$GII = 1 - \frac{HARM(G_F, G_M)}{G_{\overline{F}, \overline{M}}}$$

라. GI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²⁸⁾

1) 한국의 GII 수준

GI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높은 수준이다. 정확히 말하면 인간개발에서의 성불평등이 낮은 국가이다. 2024년 발표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GII는 0.062점으로 193개국 중 16위를 차지하였다. 2022년 15위 0.067점과 비교하면 순위가 1단계 하락하지만, 성불평등은 0.005점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2022년과 비교하여 성불평등이 약간 감소한 주요한 원인으로는 모성 사망비가 2020년 11명에서 8명으로 3명 감소한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 지표들의 경우, 청소년 출산율이 2022년 2.2명에서 2024년 2.1명으로 감소하며,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에서의 성별 격차가 소폭 감소된 것도 성불평등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에 국회 여성의원 비율은 2022년 19.0%에서 2024년 18.6%로 소폭 낮아져 성불평등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영역별로 보면 생식건강은 모성 사망비가 8명, 청소년 출산율이 2.1명으로 성불평등 수준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국회 여성의원 비율(%)과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 비율 등의 여성권한 영역은 비교적 높은 성불평등 수준을 보이며, 노동 참여 영역 또한 성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지표별로 보면, 모성사망비는 2014년 10만명당 16명에서 2024년 8명으로 절반으로 감소하였으며, 청소년출산율은 2014년 2.2명에서 2020년까지 감소하지만, 2022년 2.2명으로 증가하고 2024년 2.1명으로 소폭 감소한다. 국회 여성의원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나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를 보인다. 단, 2024년은 18.6%로 2022년과 비교 하여 0.4%p 낮아졌다.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 비율(%)은 2022년 발표와 비교하여 남성은 0.4%p, 여성은 0.7%p 상승하며,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의 경우 매년 상승 추이를 유지하여 성별 격차가 축소되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성별 격차가 18.7%p로 여전히 높게 나타난다.

한국의 순위 변화를 보면, 2014년의 17위에서 2017년에 10위로 크게 상승한 이후 2019년도까지 10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2020년은 11위, 2022년은 15위, 2024년 16위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28) UNDP(2024). Human Development Report 2023/2024의 통계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음.

〈표 IV-19〉 한국의 GII 수준 추이

발표 연도	순위/대상	점수	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	
			모성 사망비 ¹⁾	청소년 출산율 ²⁾	국회 여성의원 비율(%)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 ³⁾	경제활동참가율(%) ⁴⁾	여성	남성
2024	16/193	0.062	8	2.1	18.6	83.8	93.5	55.0	73.7
2022	15/191	0.067	11	2.2	19.0	83.1	93.1	53.4	72.4
2020	11/189	0.064	11	1.4	16.7	80.4	95.5	52.9	73.1
2019	10/189	0.058	11	1.4	17.0	89.8	95.6	52.8	73.3
2018	10/189	0.063	11	1.6	17.0	89.9	95.6	52.2	73.2
2017	10/188	0.067	11	1.6	16.3	88.8	94.6	50.0	71.8
2015	23/155	0.125	27	2.2	16.3	77.0	89.1	50.1	72.1
2014	17/152	0.101	16	2.2	15.7	77.0	89.1	49.9	72.0
2014~2024 (발표 연도) 점수 변화	-	-0.039	-8	-0.1	2.9	6.6	4.4	5.1	1.7

주: 1) 모성사망비(UN Maternal Mortality Estimation Group): 임신, 출산 관련 합병증으로 출생 10만명당 사망 수

2) 청소년 출산율(UNDESA): 15~19세 여성인구 1,000명당 출산 수

3)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비율(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5세 이상 중, 중등 교육(중·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인구 비율

4) 국제노동기구 통계(ILO)

자료: UNDP(2024). Human Development Report 2023/2024. p.293.

2) 주요 국가의 GII 수준

2024년 GII의 순위별 국가를 보면 덴마크(1위, 0.009), 노르웨이(2위, 0.012), 스위스(3위, 0.018), 스웨덴(4위, 0.023), 네델란드(5위, 0.025), 핀란드(6위, 0.032), 아이슬란드(9위, 0.039), 룩셈부르크(10위, 0.043), 벨기에(11위, 0.044), 오스트리아(12위, 0.048), 슬로베니아(13위, 0.049), 이탈리아(14위, 0.057), 스페인(15위, 0.059)에 이어 우리나라는 0.062로 16위이다.

영역별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생식건강 경우 모성사망비는 노르웨이와 폴란드가 각각 2명으로 매우 낮았다. 그 뒤를 아이슬란드, 스페인, 호주, 이스라엘, 체코가 3명 이었다. 한국은 8명으로 전체 OECD 국가 중 중간 순위에 위치하였다. 청소년 출산율은 덴마크가 1.8명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이 한국으로 2.1명이었다. 여성권한 영역에서,

국회의원 비율은 뉴질랜드가 5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멕시코(49.8%), 아이슬란드(47.6%) 순이었다. 한국은 18.6%로 OECD 38개국 중 35위에 위치하여 매우 낮은 순위를 보였다.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의 비율 경우 오스트리아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 중등 이상 교육을 받은 인구가 100%에 달했다. 한국은 여성이 83.8%, 남성이 93.5%로 여성의 참여비율이 낮았고, 상대적으로 남성과 격차도 높은 편이었다. 노동참여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의 남녀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아이슬란드(70.7%), 뉴질랜드(66.9%), 스웨덴(63.7%), 노르웨이(62.5%) 순으로 높았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5.0%로 전체 OECD 국가 중 22위로 중위권에 위치한 있는 반면, 남성은 73.7%로 5위를 차지하면서 노동참여에서 남녀 격차가 높게 나타났다.

〈표 IV-20〉 OECD 회원국의 2024년 GII 현황

국 가 명	종합 순위	종합 점수	생식 건강		여성 권한		노동 참여		
			모성 사망비 (명)	청소년 출산율 (명)	국회 여성의원 비율(%)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대한민국	16	0.062	8	2.1	18.6	83.8	93.5	55.0	73.7
덴마크	1	0.009	5	1.8	43.6	95.1	95.2	59.4	67.4
노르웨이	2	0.012	2	2.2	45.0	99.1	99.3	62.5	69.6
스위스	3	0.018	7	2.2	39.0	96.9	97.5	61.5	71.9
스웨덴	4	0.023	5	3.3	46.4	92.4	92.7	63.7	70.4
네덜란드	5	0.025	4	2.7	37.8	89.8	92.7	63.6	72.4
핀란드	6	0.032	8	4.1	45.5	99.2	98.9	58.2	64.2
아이슬란드	9	0.039	3	5.1	47.6	99.8	99.7	70.7	78.3
룩셈부르크	10	0.043	6	4.2	33.3	96.6	89.3	58.0	65.1
벨기에	11	0.044	5	5.1	44.3	88.7	90.7	50.8	59.5
오스트리아	12	0.048	5	5.2	41.0	100.0	100.0	56.6	66.7
슬로베니아	13	0.049	5	4.4	33.1	97.8	98.8	54.3	63.6
이탈리아	14	0.057	5	3.9	33.0	78.6	86.1	40.7	58.1
스페인	15	0.059	3	6.3	41.4	78.5	83.2	53.2	62.9
호주	17	0.063	3	7.7	44.5	94.6	94.4	62.3	71.1
캐나다	18	0.069	11	6.6	35.0	97.8	97.6	61.5	69.5

88 2024년 국가성평등보고서

국가명	종합 순위	종합 점수	생식 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	
			모성 사망비(명)	청소년 출산율(명)	국회 여성의원 비율(%)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독일	19	0.071	4	7.2	34.8	95.4	95.9	56.1	66.6
아일랜드	20	0.072	5	5.9	27.4	88.6	86.4	59.4	70.5
포르투갈	21	0.076	12	7.1	37.0	59.7	61.9	54.7	63.1
일본	22	0.078	4	2.8	15.4	98.2	99.1	54.2	71.4
뉴질랜드	23	0.082	7	11.8	50.4	82.0	81.8	66.9	75.9
프랑스	24	0.084	8	9.4	36.4	84.3	88.3	52.5	60.2
이스라엘	26	0.092	3	7.4	23.3	92.5	94.5	61.2	68.5
에스토니아	27	0.093	5	8.1	25.7	97.6	98.1	60.6	71.4
영국	28	0.094	10	10.0	31.3	99.8	99.8	59.1	68.0
리투아니아	30	0.098	9	9.7	28.4	95.5	97.9	58.8	67.7
폴란드	31	0.105	2	9.2	27.5	86.5	90.7	50.1	65.5
체코	32	0.113	3	9.4	23.5	99.8	99.8	52.2	67.9
그리스	37	0.120	8	8.3	21.0	69.9	77.8	44.7	60.4
라트비아	39	0.142	18	10.5	30.0	99.8	99.3	55.6	67.9
미국	44	0.180	21	15.1	28.1	95.4	95.1	56.8	68.0
슬로바키아	46	0.184	5	26.6	21.3	98.8	99.1	56.2	67.3
칠레	49	0.190	15	22.8	32.7	82.2	84.4	50.1	70.6
헝가리	56	0.230	15	21.9	14.1	97.6	98.8	53.7	67.8
코스타리카	58	0.232	22	35.7	47.4	50.2	48.1	50.1	72.9
튀르키예	63	0.259	17	15.7	17.4	59.1	78.1	35.1	71.4
멕시코	84	0.352	59	53.7	49.8	63.7	65.4	45.0	76.3
콜롬비아	95	0.392	75	57.6	29.2	59.7	57.1	51.1	76.2

주: 발표연도 기준

자료: UNDP(2024). Human Development Report 2023/2024. p.293.

3.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사회제도와 젠더지수

가. 사회제도와 젠더지수 소개

1) 사회제도 및 양성평등지수(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이하 SIGI) 특징²⁹⁾

SIGI는 여성과 소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역의 차별적인 사회제도를 측정하는 지수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개발 센터에서 2009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SIGI의 특징은 결과 수준에서 관찰되는 성별 격차의 근본 원인을 측정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제 혹은 지역 성평등지수 결과 수준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박탈과 불평등을 측정한다. 이 때문에 이들 지수는 성평등의 성취를 중심으로 측정되어, 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교육 취학률, 소득 및 임금 격차, 의료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의 불평등 지표를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SIGI는 이들 성취 수준의 근본이 되는 부분을 측정한다. 즉, 성평등에 영향을 주는 사회제도를 측정한다. 사회제도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란 장벽에 있는 여성과 소녀들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과 수준에서 나타나는 차별 수준 보다 더 큰 차별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2) 지표의 구성과 선정 근거, 자료원

SIGI는 4개 차원, 16개 지표, 25개 기본 변수로 구성된다. SIGI의 네 가지 차원은 가족 내 차별, 신체적 무결성 제약, 생산과 재정 지원에 대한 접근 제약, 시민권 제약으로 여성과 여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회경제적 영역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내 차별 차원은 여성의 의사결정권을 제한하고 가정과 가족 내에서 여성의 지위를 저평가하는 사회제도이다.

둘째, 신체적 무결성 제약 차원은 여성과 소녀의 다중 위험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사회제도이다.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대한 여성의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신체에 대한 통제권과 출산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회제도를 다룬다.

셋째, 생산과 재정 지원에 대한 접근 제한 차원은 중요한 생산 자원과 자산에 대한 여성의 접근과 통제가 제한되는 상황이다.

29) 본 절은 OECD(2023), SIGI 2023 Global Report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넷째, 시민권 제약 차원은 차별적인 사회제도가 여성의 공공 및 사회 영역에 대한 접근과 참여, 발언권을 제한하는 상황이다.

차원 (4개)	가족 내 차별	신체적 무결성 제약	생산과 재정 차원의 접근 제약	시민권 제약
지표 (1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결혼 ▪ 가구 책임 ▪ 이혼 ▪ 상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에 대한 폭력 ▪ 여성 할례 ▪ 실종 여성 ▪ 출산 자율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자산 접근 ▪ 비토지자산 접근 ▪ 재정서비스 접근 ▪ 직장 내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권 ▪ 이동의 자유 ▪ 정치적 발언 ▪ 사법 접근

자료: OECD(2023: 167), SIGI 2023 Global report, Figure A.B.1. 재구성

[그림 IV-4] SIGI 개념 프레임워크

SIGI는 각 차원 측정을 위해 4개의 지표로 구성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각 지표는 세 가지 변수를 기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변수는 공식 및 비공식 법률의 차별 수준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변수는 사회적 규범과 관행의 차별 수준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적 변수는 법적 프레임워크에서의 성별 차별을 설명한다. 법적 변수 자료는 OECD 개발 센터에서 법률에 대한 173개 문항으로 구성된 조사(법률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 한다. 이 설문조사는 먼저 법률 전문가, 국내외 로펌의 전문 변호사가 설문지를 작성하고, 그 후 팀의 검토를 거쳐 각국 정부에 보내져 자료의 유효성을 검증받고 있다. 다음으로 태도 변수는 사회 규범의 차별 수준을 설명한다. 태도 변수는 대부분 2차 자료 소스를 통해 수집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행 변수는 비율과 성평등 측면에서 차별의 수준을 설명한다. 이들 변수에 대한 자료는 국제기구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수집한다.

〈표 IV-21〉 SIGI 지표별 측정 변수와 자료원

차원	지표	변수	자료원
가정 내 차별	자녀 혼인	자녀 혼인에 관한 법률	OECD Development Centre/OECD
		남아 혼인 비율	UNICEF
		여야 혼인 비율(SDG 지표 5.31)	
	가구 책임	가구 책임에 대한 법률	OECD Development Centre/OECD

차원	지표	변수	자료원
신체적 무결성 제약		가구 내 성역할 태도	World Values Survey
		여성 소득에 대한 태도	
		여성의 일과 자녀에 대한 태도	
		무급 돌봄과 가사 비	
		일평균 남성의 평균 무급돌봄과 가사 시간	
	이혼	일평균 여성의 평균 무급돌봄과 가사 시간	United Nations
		이혼에 관한 법률	
생산과 재정 자원에 대한 접근 제약	여성에 대한 폭력	상속에 관한 법률	OECD Development Centre/OECD
		여성폭력에 관한 법률	OECD Development Centre/OECD
		친밀한 파트너 폭력에 정당화하는 태도	WHO, World Values Survey, European Commission
		전 생애 동안 친밀한 파트너 폭력	WHO
	여성성기훼손 (여성 할례, FGM)	지난 12월간 친밀한 파트너 폭력 비율	United Nations
		소녀와 여성 할례 방지 법률	OECD Development Centre/OECD
		FGM에 대한 여성의 태도	UNICEF
		FGM에 대한 남성의 태도	
	재생산 자율성	FGM 비율	
		실종여성	United Nations
		실종 여성: 남아선호로 측정	United Nations
비토지 자산에 대한 접근	토지자산에 대한 접근	안전하고 합법적 낙태에 대한 여성권리 법률	OECD Development Centre/OECD
		미종족가족계획 요구 비율	United Nations
		토지자산에 대한 접근에 관한 법률	OECD Development Centre/OECD
		토지소유의 성별 격차	The DHS Program
	비토지 자산에 대한 접근	남성 소유 토지	
		여성 소유 토지	
		비 토지 자산 접근에 관한 법률	OECD Development Centre/OECD

차원	지표	변수	자료원
시민 권리 제약	주택 소유에 대한 접근	주택소유의 성별 격차	The DHS Program
		남성의 주택소유	
		여성의 주택소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금융자산과 서비스에 관한 성을 기반으로 한 법률적 차별	OECD Development Centre/OECD
		은행계좌 소유의 성별 격차	World Bank
		남성의 은행계좌 소유	
		여성의 은행계좌소유	
	직장 권리	직장 권리에 관한 법률	OECD Development Centre/OECD
		직업에 있어 여성 권리에 관한 태도	World Values Survey
		기업임원이 되는 여성 능력에 대한 태도	
		관리직의 성별 격차(SDG 지표 5.2.2)	United Nations
		최고관리직의 성별 격차	World Bank
국가 성평등 보고서	시민권	시민권리에 관한 법률	OECD Development Centre/OECD
		이동자유에 관한 법률	OECD Development Centre/OECD
		안전감의 성별 격차	Gallup
		남성의 안전감	
	정치적 목소리	여성의 안전감	
		정치적 목소리에 관한 법률	OECD Development Centre/OECD
		여성의 정치 지도자 능력에 대한 태도	World Values Survey
	사법 접근	정치적 대표성의 성별 격차	IPU Parline
		사법접근에 관한 법률	OECD Development Centre/OECD
		사법 시스템과 법원 신뢰도의 성별 격차	Gallup
		남성의 사법 시스템과 법원에 대한 신뢰도	
		여성의 사법 시스템과 법원에 대한 신뢰도	

자료: OECD(2023: 169~177), SIGI 2023 Global report, Table A B.1. 재구성

3) 측정 방법

이론적으로 SIGI의 계산은 48개의 변수를 기반으로 측정된다. SIGI의 측정 변수는 개념적 관련성³⁰⁾, 성 불평등의 근본적인 요인³¹⁾, 데이터 품질, 신뢰성 및 적용 범위³²⁾, 차별성³³⁾, 통계적 연관성³⁴⁾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하지만, 데이터 격차로 인해 개념적 프레임워크와 SIGI 측정에 사용되는 변수는 발표 연도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SIGI는 변수로 측정된 차별 수준을 16개 지표로 집계하고, 이를 다시 4개 차원으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측정하며, 4개 차원을 합산하여 SIGI 점수를 산출한다. SIGI 점수는 0에서 100까지의 범위이며, 0이 최상의 결과이고 100이 최악의 결과이다. SIGI 척도에 맞추기 위해 모든 정량적 변수는 변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최소-최대 정규화 프로세스에 따라 재조정되며, 변수별 표준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IV-22〉 SIGI 변수별 표준화 방법

변수	표준화 방법
여성 박탈의 절대적 수준 측정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가 여성에 가장 좋은 결과, 100%가 여성에 가장 나쁜 결과 • 남성 대응 변수가 없는 경우(여성 할례 비율, 가족계획에 대한 미충족 수요 등)
특정 범주 인구 중 여성 비율 측정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가 최상의 결과로 남성과 여성의 평등 상태 의미 • 여성 비율이 50%를 넘길 경우도 완전 평등 상태로 판단. 50%로 제한. 최소-최대 정규화 프로세스에 따라 0점에서 100점 점수로 재조정³⁵⁾
남성 대비 여성의 상대적 성취(박탈) 측정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이 최상의 결과, 남성과 여성이 평등함을 의미 • 여성 대비 남성 비율이 1을 초과하면 차별이 존재한다고 판단. 단, 여성이 남성 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여 1 이하로 떨어져도 폐널티를 적용하지 않음. 최소-최대 정규화 프로세스에 따라 0점에서 100점 점수로 재조정

한편 법적 자료와 같은 절적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점수화한다. SIGI는 법률

-
- 30) 변수는 차별적 사회제도의 개념적 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며,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함.
- 31) 변수는 여성과 남성에게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요인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함.
- 32) 변수는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함. 이상적으로는 데이터가 국가/ 지역별로 표준화되어 있어야 하며, 국가/지역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함.
- 33) 변수는 뚜렷한 차별 기관을 측정해야 하며 다른 변수에서 측정하지 않는 새로운 정보를 추가 해야 함.
- 34) 동일한 차원에 포함된 변수는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증복되지 않고 유사한 사회제도 영역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함.
- 35) 단, 자연 출생 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05명이므로 변수는 105로 제한됨.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SIGI 법률 설문조사(2023)는 173개의 질문으로 구성되며, 이 중 114개의 질문이 법적 변수를 만드는 데 활용된다. SIGI 법률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정보는 인코딩되어 SIGI 개념 프레임워크의 각 지표에 걸쳐 15개의 법적 변수를 구축하는 데 활용된다.

SIGI 법률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법적 차별의 수준을 정량화하기 위해 다음 〈표 IV-23〉과 같이 코딩된다. 5단계 분류(0, 25, 50, 75, 100)를 통해 법률 정보를 점수화하고, 공식 및 비공식 법률의 차별 수준을 반영하여 측정한다. 0점은 여성과 남성이 법적 또는 비공식적 차별 없이 동등한 법적 보호를 법적 또는 관습적 예외 없이 여성과 남성 사이에 평등한 법적 보호를 의미하며, 100은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완전히 차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IV-23〉 법률 지표에 대한 내용별 점수 부여

범주	점수
• 법적 프레임워크는 여성과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제공하고, 모든 여성 그룹에 적용됨. • 여성은 차별하는 관습적, 종교적, 전통적 관행이나 법률은 존재하지 않음.	0
• 법적 프레임워크는 여성과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제공하고, 모든 여성 그룹에 적용됨. • 그러나 일부 관습적, 종교적 또는 전통적 관행이나 법률이 여성은 차별하는 경우가 있음.	25
• 법적 프레임워크는 여성과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제공함. • 그러나 예외가 있거나 모든 여성 그룹에 적용되지는 않음.	50
• 법적 체계가 일부 여성의 권리를 제한함.	75
• 법적 체계가 여성의 권리를 완전히 차별하고 있음.	100

자료: OECD(2023: 169~177), SIGI 2023 Global report, Table A B.1. 재구성

SIGI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단계에 따라 측정된다.

단계 1: 변수의 합으로 지표 측정

이론적으로 SIGI의 각 지표는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영역을 측정하는 세 가지 변수, 즉 법적 변수, 태도 변수, 관행 변수를 활용한다. 단, 국가별 데이터 격차로 인해 특정 지표는 한두 가지 변수로만 측정한다. 변수는 주어진 지표 내에서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여성폭력과 정치적 목소리 측정은 다음과 같다.

$$\text{여성폭력} = \ln\left(\frac{1}{3}e^{\text{법률 변수}} + \frac{1}{3}e^{\text{관행 변수}} + \frac{1}{3}e^{\text{태도 변수}}\right)$$

$$\text{정치적 목소리} = \ln\left(\frac{1}{2}e^{\text{법률 변수}} + \frac{1}{2}e^{\text{관행 변수}}\right)$$

단계 2: 지표의 합으로 차원 측정

차원의 측정은 각 차원 내 지표의 단순평균(동일한 가중치 부여)로 측정된다. 예를 들어 가족 내 차별은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text{가족 내 차별} = \ln\left(\frac{1}{4}e^{\text{자녀 혼인}} + \frac{1}{4}e^{\text{가구 책임}} + \frac{1}{4}e^{\text{이혼}} + \frac{1}{4}e^{\text{상속}}\right)$$

단계 3: 차원의 합으로 SIGI 측정

4개 차원의 평균을 통해 각 국가에 대한 SIGI 점수로 집계한다. 즉, 4개 차원의 합은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측정한다.

$$\text{SIGI 점수} = \ln\left(\frac{1}{4}e^{\text{가족 내 차별}} + \frac{1}{4}e^{\text{신체적 무결성 제약}} + \frac{1}{4}e^{\text{생산 및 재정 차원 접근 제약}} + \frac{1}{4}e^{\text{시민권 제약}}\right)$$

나. SIG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SIGI는 사회제도의 차별을 측정하는 지수로써, 0점이 가장 성평등한 결과를 의미하며, 100점이 가장 불평등한 결과를 의미한다. SIGI는 측정된 점수를 5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다. 즉, 점수가 $0 \leq \text{SIGI} \leq 20$ 은 사회제도의 차별이 ‘매우 낮음’ 국가로, $20 < \text{SIGI} \leq 30$ 미만은 ‘낮음’, $30 < \text{SIGI} \leq 40$ 은 ‘중간’, $40 < \text{SIGI} \leq 50$ 은 ‘높음’, $50 < \text{SIGI} \leq 100$ 은 ‘매우 높음’으로 국가로 구분하고 있다.

〈표 IV-24〉 SIGI 점수 분류

분류	점수
매우 낮음(Very Low)	$0 \leq \text{SIGI} \leq 20$
낮음(Low)	$20 < \text{SIGI} \leq 30$
중간(Medium)	$30 < \text{SIGI} \leq 40$
높음(High)	$40 < \text{SIGI} \leq 50$
매우 높음(Very high)	$50 < \text{SIGI} \leq 100$

SIGI는 측정연도에 따라 측정 지표에 있어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2019년은 23점으로 5개 그룹 중 ‘낮음’으로 분류되었다. 차원별로 보면, 신체적 무결성 제약과 시민권 제약이 각각 18점과 20점으로 ‘매우 낮음’으로 분류되었고 가족 내 차별(22점)과 생산 및 재정 자원 접근 제약(33점)으로 ‘중간’을 분류되었다. 2023년의 경우 SIGI는 20점으로 ‘매우 낮음’으로 사회제도의 차별이 한 단계 낮아졌다. 차원별로 보면 2019년과 비교하여 4개 차원 모두에서 사회제도의 차별 수준이 낮아졌다. 생산 및 재정 자원 접근 제약은 29점으로 2019년과 ‘중간’에서 ‘낮음’으로 차별 수준이 한 단계 낮게 분류되었고, 이외 가족내 차별, 신체적 무결성 제약, 시민권 제약에서는 ‘매우 낮음’으로 분류되었다.

〈표 IV-25〉 한국의 SIGI 점수

(단위: 점)

연도	SIGI 점수	분류	차원별 SIGI 점수			
			가족내 차별	신체적 무결성 제약	생산 및 재정 자원 접근 제약	시민권 제약
2019	23	낮음 (Low)	22	18	33	20
2023	20	매우 낮음 (Very low)	20	16	29	14

자료: OECD(2023: 162), SIGI 2023 Global report, Table A A. 3. 참조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OECD 국가는 평균 15점으로 ‘매우 낮음’으로 분류되었고, 비OECD 국가는 평균 34점으로 ‘중간’으로 분류되었다. G20 국가는 평균 24점으로 사회제도의 성차별 수준이 ‘낮음’으로 분류되었고 G20 이외 국가는 30점으로 ‘중간’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지역별로 아프리카가 40점으로 사회제도의 성차별 수준이 ‘높음’으로 분류되며, 아시아가 37점으로 ‘중간’, 아메리카가 ‘21점’으로 ‘낮음’, 그리고 유럽이 14점으로 ‘매우 낮음’으로 분류되었다. 즉, 사회제도에서 성차별이 가장 낮은 지역은 유럽이고, 아프리카는 사회제도에서 성차별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표 IV-26〉 2023년 SIGI 지역별 결과 비교

(단위: 점)

영역	SIGI 점수	분류	차원별 SIGI 점수			
			가족내 차별	신체적 무결성 제약	생산 및 재정 자원 접근 제약	시민권 제약
전체	29	Low	38	27	27	27
OECD 국가유무별						
OECD 국가	15	Very low	14	18	13	15
비 OECD 국가	34	Medium	44	30	32	30
G20 국가 유무별						
G20 국가	24	Low	27	25	21	19
비 G20 국가	30	Medium	39	27	28	28
지역별						
아프리카	40	High	52	29	40	33
아메리카	21	Low	21	26	22	16
아시아	37	Medium	50	33	32	37
유럽	14	Very low	12	18	10	15

자료: OECD(2023: 161), SIGI 2023 Global report, Table A A. 2. 참조

국가별로 보면, SIGI 점수가 측정된 국가는 140개 국가이고 이 중 한국을 포함한 55개 국가가 ‘매우 낮음’으로 분류되었다. ‘매우 낮음’ 분류는 OECD 국가가 30개이고 비 OECD 국가가 25개 국가이다. OECD 국가 중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튜르키예는 ‘낮음’으로, 이스라엘, 일본은 ‘중간’으로 분류되었다. ‘낮음’으로 분류된 국가는 30개로 사회제도의 성차별이 매우 낮거나 낮은 수준의 국가는 총 85개 국가로 나타난다. 한편 SIGI 점수가 50점 이상으로 ‘매우 높음’으로 분류된 국가는 18개 국가이고 이 분류에 포함된 국가는 모두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 국가로 나타난다.

〈표 IV-27〉 2023년 SIGI 국가별 분류

분류	국가
매우 낮음(Very low) : 55개 국가	한국,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벨리즈, 불가리아, 캐나다,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체코 공화국, 덴마크,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자메이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모잠비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나마,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르완다,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중국 타이베이,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낮음(Low) : 30개 국가	앙골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볼리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칠레, 중국, 콜롬비아, 조지아, 과테말라, 온두拉斯, 홍콩(중국), 카자흐스탄, 코소보,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멕시코, 나미비아, 니카라과, 북마케도니아, 파라과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튜르키예, 우간다, 베트남
중간(Medium) : 18개 국가	베냉, 부탄, 보츠와나, 에티오피아, 가봉, 가나, 기니,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일본,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말라위, 네팔, 남수단, 토고, 잠비아
높음(High) : 19개 국가	방글라데시, 부룬디,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감비아, 아이티, 인도,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미얀마, 나이지리아, 필리핀, 세네갈,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튜니지
매우 높음(Very high) : 18개 국가	카메룬, 코모로, 이집트, 이란,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말레이시아,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파키스탄,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소말리아, 스리랑카, 수단, 웨스트뱅크 및 가자 지구

4. 국제성평등지수 비교와 한국 성평등 수준 차이³⁶⁾

가. 국제성평등지수와 한국 성평등 수준 차이 비교

국제성평등지수의 대표적 사례로 GGI, GDI, GII, SIGI를 살펴보았다. 이들 지수 중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측정되는 지수가 한국에 대한 성평등 수준을 다르게 보여준다. 이는 이들 지수의 측정 목적과 이에 따른 산출 방식과 하위지표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2024년 GGI, GDI, GII를 기준으로 한국의 성평등 현황을 OECD 38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비교하면, GGI 34위, GDI 37위, GII 14위로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GGI와 GDI는 하위권에, GII에서는 중위권에 있다.

GGI는 ‘경제 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생존’, ‘정치 권한’의 네 가지 영역

36) 본 분석은 주재선, 이동선, 김효주, 송치선(2023). 「2023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p.125~130 원문을 인용하여, 2024년 기준 최신 통계로 갱신하여 분석하였음.

에서 성비 수준을 중심으로 측정된다. 전체 총점에서 1위는 아이슬란드(0.935점), 38위는 터키(0.645점)로 나타났다. 한국(0.696점)은 1위인 아이슬란드와 0.239점 더 낮아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38위인 터키보다 0.051점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영역별로 1위인 아이슬란드와 비교하면,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은 0.815점으로 한국(0.605점)보다 0.210점, 교육성취는 0.992점으로 한국(0.980점)보다 0.012점, 정치 권한은 0.972점으로 한국(0.223점)보다 0.749점 더 높았다. 반면 건강과 생존은 아이슬란드 0.962점, 한국 0.976점으로 한국이 0.014점 더 높았다. 우리나라와 1위와의 격차가 높은 영역은 ‘경제적 참여와 기회’ 및 ‘정치권한 영역’이었으며, 동 영역은 타 영역과 달리 가장 높은 순위(아이슬란드)와 마지막 순위(터키) 국가 사이에서도 높은 격차가 나타났다. GGI는 영역별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균등 산정하기 때문에, 두 영역은 GGI 순위의 국가 간 차이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GDI는 ‘건강(기대여명)’, ‘교육(기대 교육년수, 평균 교육년수)’, ‘소득(추정 소득)’의 세 가지 영역에서 성별 차이와 절대 수준을 종합하여 측정한다. 전체 GDI 총점을 기준으로 1위는 리투아니아(1.028점)였고, 38위는 튜르키예(0.941점)였다. 한국은 0.948점으로 37위에 있었으며, 1위보다 0.08점 낮고, 38위보다 0.007점 더 높았다. 영역별로 1위인 리투아니아와 비교하면, 한국의 여성 기대여명은 87.1세로 리투아니아의 79.1세보다 높았다. 그러나 기대 교육년수는 리투아니아가 17.1년으로 한국 16.1년보다 1.0년, 평균 교육년수는 리투아니아가 13.6년으로 한국 12.0년보다 1.6년 더 높아, 여성 교육 수준이 한국보다 더 높았다. 추정소득에서는 리투아니아가 여성 \$33,012, 남성 \$43,912로 나타났지만, 한국은 여성 \$31,063, 남성 \$61,037로 나타나 리투아니아보다 여성의 절대적 소득 수준도 \$1,949 더 작고 남녀 차이(리투아니아 \$10,900, 한국 \$29,974)도 더 크게 나타났다. 요약해 보면, 한국의 낮은 GDI 순위는 교육 수준의 남녀 격차와 함께, 소득에서의 남녀 격차가 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GII는 ‘생식건강(모성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여성권한(여성의원 비율, 중등교육 이상 교육받은 비율)’, ‘노동참여(경제활동참가율)’의 세 가지 영역을 포함하며, GDI와 마찬가지로 성별 차이와 절대 수준을 종합하여 측정한다. 전체 총점에서 1위는 덴마크(0.009점), 38위는 콜롬비아(0.392점)였다. 한국(0.062점)은 1위인 덴마크보다 0.053점 더 높았고 38위인 콜롬비아보다 0.33점 더 낮아 분포상 1위와 더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영역별로 1위인 덴마크와 비교하면 덴마크의 모성 사망비는 10만명당 5명으로 우리나라의 8명에 비해 3명이 작다. 청소년 출산율은 15~19세 여성인구 1,000명당 1.8명으로 우리나라의 2.1명에 비해 0.3명 작다. 청소년 출산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 덴마크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회 여성의원 비율(%)을 보면 덴마크는 43.6%로

우리나라의 18.6%보다 25.0%p가 높다. 또한 덴마크는 중등 이상 교육받은 인구가 여성은 95.1%, 남성은 95.2%로 거의 100%에 가까운 높은 수치를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 여성은 83.8%로 덴마크와 11.3%p 격차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지만, 남성은 93.5%로 1.7%p 격차로 차이가 매우 작다.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덴마크는 여성이 59.4%로 우리나라의 55.0%에 비해 4.4%p 높은 반면에, 남성은 덴마크는 67.4%, 우리나라 73.7%로 덴마크보다 6.3%p 높았다. 종합하면, GII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인 이유는 낮은 모성사망비와 청소년 출산율이 기여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국은 1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및 경제 활동 영역에서 남녀 격차가 높았고, 특히 여성의원 비율(18.6%)이 38위인 콜롬비아(29.2%)보다 낮은 등 현저히 낮은 순위에 위치하면서 중간 수준의 순위에 머무르는 결과를 야기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V-28〉 국제성평등지수와 OECD 회원국(38개국) 내 한국의 현황

국제성평등 지수	영역	한국 현황 비교		
		1위 국가	38위 국가	한국(순위)
GGI(2024)	전체 영역(총점)	아이슬란드(0.935)	터키(0.645)	0.696(34위)
	경제 참여와 기회	0.815	0.507	0.605
	교육 성취	0.992	0.987	0.980
	건강과 생존	0.962	0.966	0.976
	정치 권한	0.972	0.118	0.223
GDI(2024)	전체 영역(총점)*	리투아니아(1.028)	튀르키예(0.941)	0.948(37위)
	출생 시 기대 여명			
	여성	79.1	81.5	87.1
	남성	69.5	75.4	80.7
	기대 교육년수			
	여성	17.1	19.6	16.1
	남성	15.8	19.8	16.8
	평균 교육년수			
	여성	13.6	8.1	12.0
	남성	13.4	9.6	13.3
	1인당 추정소득(PPP US\$)			
	여성	33,012	20,538	31,063
	남성	43,912	45,077	61,037

국제성평등 지수	영역	한국 현황 비교		
		1위 국가	38위 국가	한국(순위)
GII(2024)	전체 영역(총점)	덴마크(0.009)	콜롬비아(0.392)	0.062(14위)
	모성시망비	5	75	8
	청소년 출산율	1.8	57.6	2.1
	여성의원 비율	43.6	29.2	18.6
	중등교육 이상 교육받은 비율			
	여성	95.1	59.7	83.8
	남성	95.2	57.1	93.5
	경제활동참가율			
	여성	59.4	51.1	55.0
	남성	67.4	76.2	73.7

주: 1) 발표 연도 기준
 2) 국가별(접수), 각 영역별 접수는 1위 국가 및 38위 국가 기준
 3) *GDI는 GDI 접수가 높은 순서대로 순위를 산정함

출처: 1) WEF(2024).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24.
 2) UNDP(2024). Human Development Report 2023/2024.

나. 국제성평등지수에서 나타난 한국의 순위 해석 및 시사점³⁷⁾

국제성평등 지수에서 2024년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지수(GGI) 및 유엔개발계획(UNDP)의 성개발지수(GDI)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유엔개발계획(UNDP)의 성불평등지수(GII)에서는 높은 편이었다. 즉, GGI에서는 전체 146개국 기준 94위, OECD 38개 국가 기준 34위, GDI에서는 전체 5그룹 국가 중 3그룹, OECD 38개 국가 중 37위로 하위권에 머문 반면, GII에서는 전체 193개국 중 16위, OECD 38개국 중 14위로 비교적 높은 순위에 있다.

국제성평등지수 GGI, GDI, GII에서 한국의 순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각 지수를 구성하는 지표의 산출 기준 및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지수 간 성평등 수준의 측정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GGI와 GDI는 상대적으로 남녀의 성비(남녀간 상대적 차이)를 성평등 수준의 중요한 고려 요건으로 보지만, GII는 지표별 남녀의 절대 수준과 남녀의 성비를 함께 고려하는 산정 방식을택하고 있다. 따라서 GGI와 GDI에서 한국이 낮은 순위에 있는 이유는 영역별 여성의 절대적

37) 본 분석은 주재선, 이동선, 김효주, 송치선(2023). 「2023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p.129~130 원문을 전체 인용 및 일부 수정하였음.

성취 수준이 낮은 것보다 영역별 성취 수준에서 남녀격차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둘째, 국제성평등지수 간 측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측정 방법에 있어 GII는 영역 간 상관이 높을 때 불평등이 높게 측정되며(기하평균 방식 활용), 하위영역 간 성평등 개선 정도가 1:1로 대응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에 특정 영역의 낮은 성취가 다른 영역의 높은 성취에 의해 1:1로 완전히 보상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GGI는 하위영역 간 성평등 개선 정도가 1:1로 대응 가능한 방식으로 측정된다. 즉, 지수는 영역별 점수를 단순 평균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 성평등 점수가 상승과 하락을 할지라도, 성평등지수의 등락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 이러한 측정 방법의 차이는 성평등 수준과 순위의 차이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GII 지수는 여성 의원 비율, 중등교육 이상 교육 비율,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영역에서 성별 격차가 높으나, 생식건강영역(모성사망률, 청소년출산율)의 경우 타 국가보다 매우 낮은 편이다. 수학적으로 기하평균은 낮은 통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³⁸⁾. 이에 모성사망률과 청소년 출산율이 낮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측정 방식으로 성평등 평가에 다소 유리한 방식으로 작용했다. 반면, GGI는 각 영역의 성 격차를 단순 평균하는 방식으로 측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 건강영역에서 높은 수준을 보임에도, 경제 참여와 기회와 정치적 권한 영역에서 높은 성 격차가 그대로 반영되었고,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낮은 성평등 국가로 평가되는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

셋째, 세 지수를 구성하는 하위지표의 종류가 다르다. GGI는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 성취도,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의 네 가지 영역에 관한 14개의 하위영역 지표들로 구성된다. GDI는 정치권한에 대한 지표는 없는 대신, 건강, 소득, 교육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한 4개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GII는 교육 부문의 지표가 없고, 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의 세 가지 영역의 5가지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세 가지 국제성평등 지수 결과로부터 우리나라의 성평등 현황을 요약하면, ‘인간개발 과정에서의 성 불평등으로 인한 성과의 손실’은 낮지만, ‘자원의 접근 기회와 권한 배분’과 ‘인간 개발 수준’에 있어 성 격차가 높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 개발의 절대적 성취 수준을 향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과 남성의 상대적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이 성평등 수준을 개선하는데 관건이 될 것이다. 특히 타 국가와 비교할 때 건강 및 생식건강 영역의 현저하게 높은 수준과 달리, 소득수준과 정치적 권한에서는 성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만큼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8) 기하평균은 산술평균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보이며, 두 측정치가 같을 때는 통계가 모두 동일한 경우임.

〈표 IV-29〉 국제성평등지수 비교

지수명	성격차지수(GGI)	성개발지수(GDI)	성불평등지수(GII)
발표기관	세계경제포럼(WEF)	유엔개발계획(UNDP)	
산출방식	성별 격차(성비)를 중요하게 고려		절대 수준과 성비 고려
측정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의 접근기회와 권한 배분에 대한 성 격차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 개발수준에 대한 성격차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개발 과정에서의 성 불평등으로 인한 성과의 손실 측정
지수 구성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과 생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성비 - 건강기대수명 정치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 비율 - 장관 비율 - 여성 국가수장 재임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 시 기대수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식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성 사망비 - 청소년 출산율 여성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원 비율 - 중등교육 이상 교육받은 인구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참여와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참가율 - 유사업무 임금성비 - 추정소득 - 관리직 비율 - 전문직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소득(1인당 GNI, P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 참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적 성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해율 - 초등학교 취학률 - 중등학교 취학률 -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교육년수 - 기대 교육년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 산정시 성비(성별 격차) 수준에 영향 받음 4가지 하위영역 간 상관관계 고려 없이 단순 평균하므로, 영역별 높은 성격차가 낮은 성격차 값을 서로 보상 가능하도록 구성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 산정시 성비(남녀 격차) 수준과 함께, 남녀의 절대적 수준을 고려하지만, 성비에 더 큰 영향을 받음 성별로 세 가지 하위영역을 기준화하기 때문에 각 성별 내 영역별 높은 성취 값이 낮은 성취 값을 서로 보상하도록 구성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 산정시 성비(남녀 격차) 수준과 함께, 남녀의 절대적 수준을 고려함 하위영역 간 성 불평등이 서로 상관관계가 높을 때 불평등 수준이 더 높아지도록 설계하기 때문에, 특정영역의 낮은 성취가 다른 영역의 높은 성취에 의해 완전 보상되지 않음
점수	0.696점 (‘1’이면 완전 평등)	0.948점 (0.975 이상이면 1그룹)	0.062점 (‘0’이면 완전 평등)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99위/146개국 OECD: 35위/38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3그룹/5그룹 OECD: 37위/38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15위/191개국 OECD: 13위/38개국
발표연도	2024년		

주: 발표 연도 기준

출처: 1) 주재선·이동선·김효주·송치선(2023). 2023년 국가성평등보고서, pp.129~130 인용 및 수정보완

2) WEF(2024).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24.

3) UNDP(2024). Human Development Report 2023/2024.

V

양성평등수준 제고 방향

- | | |
|----------------------|-----|
| 1. 영역별 성평등 추이와 개선 방향 | 107 |
| 2. 국가성평등지수 활용과 관리 방안 | 119 |

1. 영역별 성평등 추이와 개선 방향

가. 국가성평등지수 변화 분석

국가성평등지수는 2021년 65.7점에서 2022년 66.2점으로 소폭 상승 후 2023년 65.4점으로 하락하였다. 국가성평등지수는 3개의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7개 정책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가중 평균을 통해 산정된다. 따라서 각 영역 수준 변화는 물론, 각 영역 성평등지수가 미치는 영향을 영역별 증감 수준과 가중치를 고려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2023년과 2022년간 증감 정도를 살펴보았다. 2023년 기준 국가성평등지수는 2022년 대비 0.8점 감소하였다. 전체 중 2022년 대비 지수가 감소한 영역은 양성평등 의식과 돌봄이다. 양성평등의식은 2021년 78.9점에서 2022년 80.0점으로 상승했지만, 2023년 73.2점으로 하락해 전체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영역이다. 돌봄의 경우, 2021년 31.3점에서 2022년 33.0점으로 상승했지만, 2023년 32.9점으로 0.1점 하락하였다. 의사결정 영역은 2022년 대비 1.8점 상승하였다. 점수는 2021년 34.1점에서 2022년 감소, 2023년 다시 상승했지만, 2021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고용, 소득, 교육, 건강은 2021년에서 2023년까지 3년간 지속적으로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 국가성평등지수 변화

(단위: 점)

목표	영역	2021년	2022년	2023년	2022년 대비 증감
	성평등지수	65.7	66.2	65.4	-0.8
자원의 동등한 접근	의사결정	34.1	30.7	32.5	1.8
	고용	73.0	74.0	74.4	0.4
	소득	77.5	78.3	79.4	1.1
	교육	95.3	95.4	95.6	0.2
	건강	92.4	94.2	94.2	0.0
평등한 관계	돌봄	31.3	33.0	32.9	-0.1
	양성평등의식	78.9	80.0	73.2	-6.8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연도별 증감과 영역별 가중치를 곱해 각 영역의 지수에 대한 영향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양성평등의식 영역

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의식이 -1.22점의 영향을 미쳤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 의사 결정, 소득, 고용, 교육 등을 합산하여도 양성평등의식의 영향을 상쇄하지 못하면서 양성평등의식 영역의 점수 하락이 전체 지수의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성평등의식은 고용과 함께 가중치가 가장 큰 0.18점으로 설정되어 있다. 여기에 2023년 영역 점수가 2022년 대비 6.8점 하락하면서 전체 지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의식 다음으로 하락에 영향을 미친 영역은 돌봄이다. 돌봄 영역 역시 가중치가 0.17점으로 큰데, 영역 점수가 2022년 대비 0.1점 하락하면서 전체 지수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지수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준 영역은 의사결정, 소득, 고용, 교육 등이다. 의사결정은 가중치가 0.14점인 상황에서 영역 점수가 2022년 대비 2023년 1.8점 상승, 전체 지수의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가중치가 0.16점이고, 영역 점수가 2022년 대비 1.1점 상승하면서 2023년 전체 지수의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고용의 경우, 가중치가 0.18점으로 양성평등의식과 함께 가장 큰 가중치를 가지는데, 영역 점수가 2022년 대비 2023년 0.4점 상승하면서 전체 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표 V-2〉 국가성평등지수 변화에 대한 영역별 영향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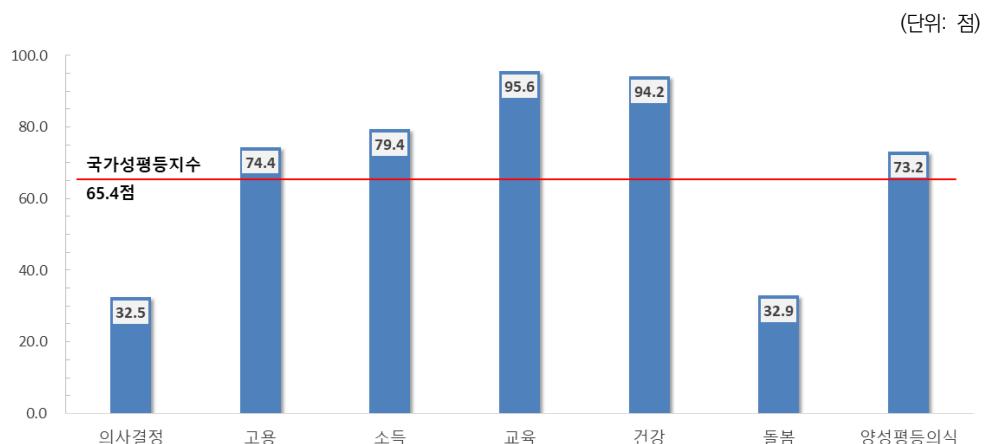
영역	가중치	2022년 대비 증감	지수에 대한 영향
의사결정	0.14	1.8	0.25
고용	0.18	0.4	0.07
소득	0.16	1.1	0.18
교육	0.08	0.2	0.02
건강	0.09	0.0	0.00
돌봄	0.17	-0.1	-0.02
양성평등의식	0.18	-6.8	-1.22

주: 1)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2) 영향은 증감 × 가중치로 산정

종합해 볼 때,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영역은 양성평등의식 영역이다. 양성평등의식은 가중치도 크고, 2022년 대비 점수의 감소 폭도 커 전체 국가성평등지수 하락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지수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의사결정, 소득, 고용 등의 영향 전체를 고려하더라도 양성평등의식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지 못한 것이다.

나. 영역별 성평등 변화 요인

여기서는 영역별 성평등 수준 및 성평등 변화 요인을 살펴본다([그림 V-1] 참고). 7개 영역 중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영역은 교육 및 건강으로 90점을 상회한다. 이 두 영역에는 못 미치지만, 국가성평등지수 점수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영역은 소득, 고용, 양성평등의식이다. 전체 영역 중 가장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이는 영역은 의사결정 및 돌봄이다. 이들 영역의 점수는 국가성평등지수 점수보다 낮은 것은 물론, 35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가중치도 낮지 않아 전체 국가성평등지수 견인을 위해 의사결정 및 돌봄 영역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그림 V-1]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 영역별 현황

각 영역별 세부지표 중심으로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22년 대비 2023년 세부지표 점수가 하락한 경우는 고용의 정규직 비율, 노동시장 직종분리, 돌봄의 육아휴직 참여, 양성평등의식의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성차별 경험률,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등이다. 전년 대비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이 가장 큰 폭인 16.4점 하락하였고, 다음으로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3.3점, 육아휴직 참여 2.3점, 정규직 비율 및 노동시장 직종분리가 각 0.2점 하락하였다. 의사결정 중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자 비율, 법원·검찰·경찰 고위직 비율, 노인돌봄 분담 등이 2점 이상 상승하였지만, 양성평등의식 및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육아휴직 참여의 하락 정도를 상쇄하지는 못하였다.

〈표 V-3〉 국가성평등지수 영역별 세부지표 증감

(단위: 점)

영역	세부지표	2023년 점수	2022년 대비 2023년 증감
의사결정	국회의원 비율	23.0	0.7
	장관 비율	20.0	0.0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50.3	3.6
	법원, 검찰, 경찰 고위직 비율	44.0	2.2
	관리자 비율	25.1	2.6
고용	고용률	79.8	1.8
	정규직 비율	77.6	-0.2
	노동시장 직종 분리	57.2	-0.2
	경력단절 여성 비율	83.0	0.2
소득	성별임금 격차	71.0	1.0
	빈곤위험(비빈곤율)	94.9	0.0
	국민연금 수급률	72.4	2.4
교육	평균교육연수	91.1	0.2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100.0	0.0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88.3	0.0
	건강수명	100.0	0.0
	스트레스 비인지율	94.3	0.0
돌봄	가사노동 시간	30.7	0.0
	육아휴직 참여	34.7	-2.3
	노인돌봄 분담	33.4	2.0
양성평등의식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81.3	-3.3
	성차별 경험	94.7	-0.7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43.7	-16.4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다음에서는 취약 영역 및 2022년 대비 2023년 하락한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변화 원인을 파악하였다. 하락 지표가 있는 양성평등의식 및 돌봄, 고용 영역을 먼저 살펴보고, 상대적 취약 영역인 의사결정 영역을 살펴보았다.

1) 양성평등의식

양성평등의식은 3개 세부지표 모두가 전년 대비 하락하였고, 특히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의 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전체 국가성평등지수의 하락에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친 분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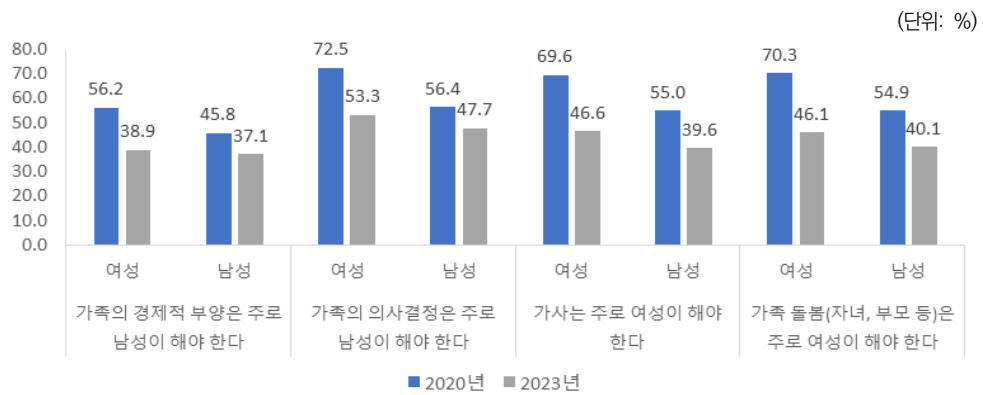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시행하는 「가족실태조사」 중 관련 4개 문항의 평균을 활용한다(〈표 V-4〉 참조). 지표는 4개 문항에 대해 비동의(전혀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비율을 구성해 4개 문항의 평균을 활용한다.

〈표 V-4〉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지표 구성

구분	내용	측정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1.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4개 문항의 비동의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비율 평균
	2. 가족의 의사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3.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4. 가족 돌봄(자녀, 부모 등)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출처: 김영란 외(2023), 「2023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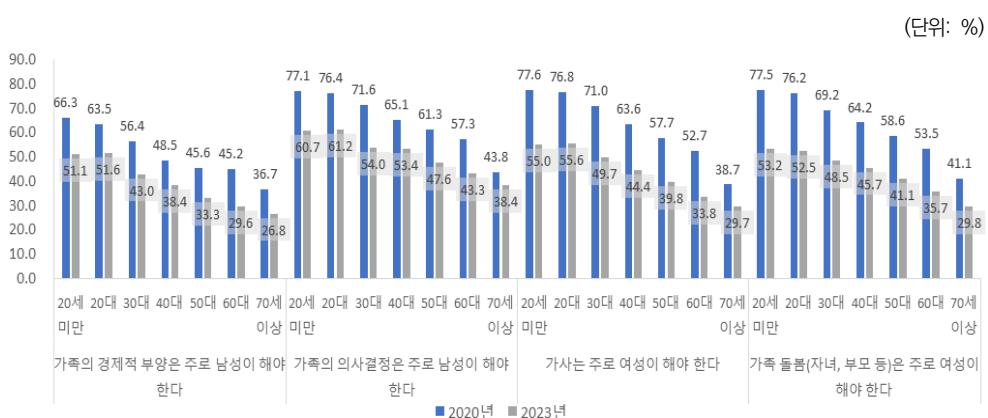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4개 문항의 응답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20년, 2023년 조사 결과를 성별, 연령대별로 비교해 보았다. 먼저, 성별에 따른 2020년, 2023년 응답 결과를 살펴본 결과, 모든 문항에서 여성의 비동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지만, 남녀 모두 2020년 대비 2023년에 비동의 비율이 하락하였다. 문항 별로는 남녀 모두 가사, 가족 돌봄 문항에서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그림 V-2〉 참조).



주: 각 문항에 대해 비동의(전혀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비율 제시
자료: 여성가족부(2020, 2023), 「가족실태조사」.

〈그림 V-2〉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성별

2020년, 2023년 응답 결과에 대해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의사결정 및 경제적 부양, 가족돌봄 등에 대해 두 개 연도 모두에서 연령대가 어릴수록 비동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2023년 ‘가사는 주로 여성’ 관련 문항에서만 20세 미만 55.0%, 20대가 55.6%로 20대에서 0.6%p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4개 문항 모두 2020년 대비 2023년에 비동의 비율이 감소하였는데, 대체로 40대 이상보다 40대 미만에서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4개 문항 중 가사, 가족돌봄 문항이 2020년 대비 2023년의 비동의 비율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났다. ‘가족돌봄은 주로 여성’ 문항의 경우, 20세 미만에서는 24.3%p 감소하였고, 20대는 23.7%p, 30대는 20.7%p 감소하였다. ‘가사는 주로 여성’의 경우, 20세 미만에서 22.6%p 감소하였고, 20대는 21.2%p, 30대는 21.3%p 감소하였다.



주: 각 문항에 대해 비동의(전혀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비율 제시

자료: 여성가족부(2020, 2023), 「가족실태조사」.

[그림 V-3]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연령별

이상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4개 문항 모두 2020년 대비 2023년 비동의 비율이 크게 하락했는데, 남성보다 여성에서 하락 폭이 더 크게 나타났고, 남녀 모두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비동의 비율 하락이 남성 관련 문항보다 더 큰 상황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2020년 대비 2023년 모든 연령대에서 비동의 비율이 하락했는데, 대체로 40대 이상 보다 40대 미만에서 하락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즉, 2020년 대비 2023년 비동의 비율 하락은 전 연령대, 남녀 모두에서 나타나는 결과인데, 남성보다 여성에서, 중장년보다 40대 미만의 청년층에서 하락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2) 돌봄

돌봄 영역의 경우, 영역 점수는 전년 대비 2023년 0.1점 하락하였지만, 세부지표 중 육아휴직 참여가 2022년 대비 2023년 2.3점 하락, 다른 지표에 비해 상대적인 하락 폭이 큰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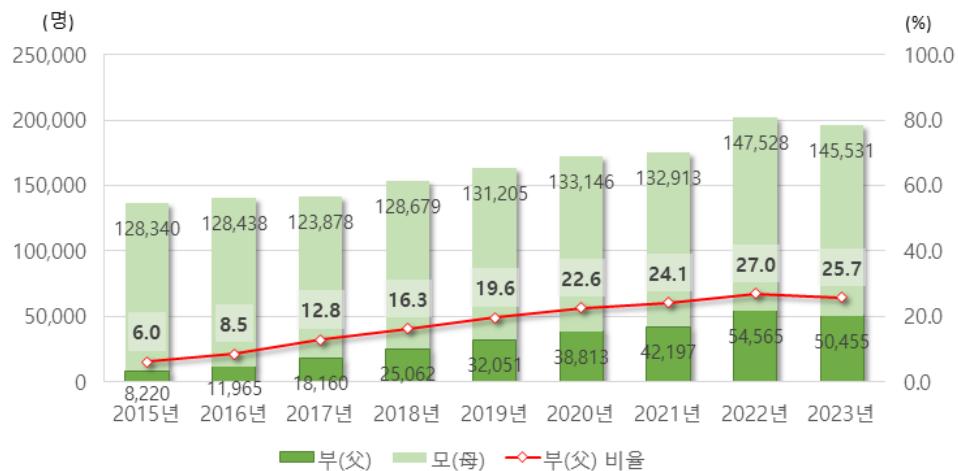
육아휴직 참여의 경우,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육아휴직 통계 결과를 활용한다. 아래 [그림 V-4]와 같이 2015년 이후 2022년까지 육아휴직 사용자 및 남성 사용자 비율이 지속 증가하다 2023년 처음으로 사용자 및 남성 비율이 하락한 양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19만 5,986명으로 전년 대비 6,107명(3.0%) 감소하였다(통계청, 2024: 4). 육아휴직자 감소는 저출생으로 인한 육아휴직 대상 어린이 인구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실제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8세 이하 어린이³⁹⁾ 인구는 2010년 3,702,245명에서 2023년 2,446,565명으로 지속 감소하였는데, 2010년 초반까지 전년 대비 감소 수준이 1% 미만이다 2015년 1%를 넘어섰고, 2023년 처음으로 7%를 넘어서 전년 대비 7.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각년도). 저출생 기조와 더불어 2022년 육아휴직자가 급증에 대한 기저효과의 영향일 수 있다.⁴⁰⁾ 2022년 ‘3+3 육아휴직제’가 시행되면서 육아휴직자 수는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서 전년 대비 육아 휴직자가 15.4% 급증하면서 2023년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2023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부(父)는 5만 455명으로 전년 대비 4,110명(7.5%) 감소 하였으며, 모(母)는 14만 5,531명으로 전년 대비 1,997명(1.4%) 감소하였다. 남녀 모두 사용자 수가 감소하였는데, 남성의 감소 폭이 여성 대비 5배 이상인 상황이다(여성 -1.4%, 남성 -7.5%). 이에 육아휴직자 중 부(父)의 비율도 2022년 27.0%까지 상승하였지만, 2023년 여성보다 남성에서 육아휴직 사용자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부(父)의 비율이 25.7%로 소폭 하락한 것이다.

39) 만 7세로 계산함.

40) 경향신문(2024.12.18.), “저출생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자 첫 감소…여성 휴직자가 남성의 3배”,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81506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114 2024년 국가성평등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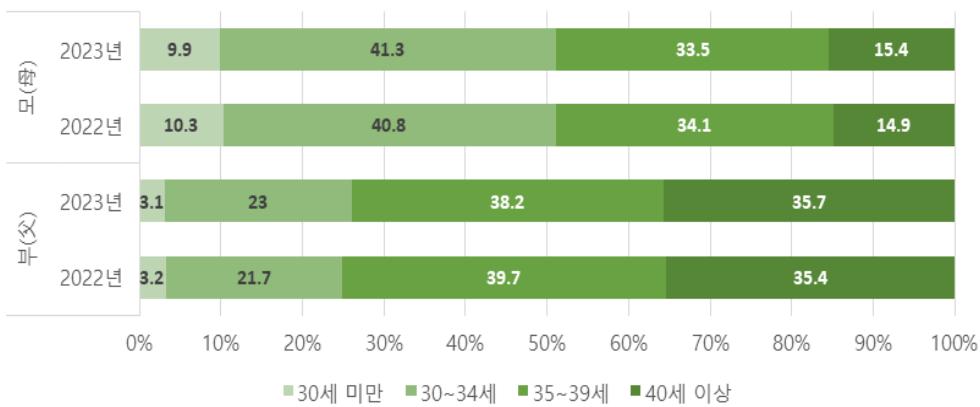


주: 2023년 수치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2024: 4), 「2023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그림 V-4] 육아휴직자 규모 및 비중

육아휴직 사용자를 성별과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부(父)는 35~39세, 모(母)는 30~34세의 비중이 각 38.2%, 41.3%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부(父)는 40세 이상, 30~34세, 30세 미만 순이고, 모(母)는 35~39세, 40세 이상, 30세 미만 순이다. 전년 대비 연령대별 구성비 변화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35~39세의 사용자 비율이 감소하였는데, 여성은 0.6%p, 남성은 1.5%p 감소한 상황이다.



주: 2023년 수치는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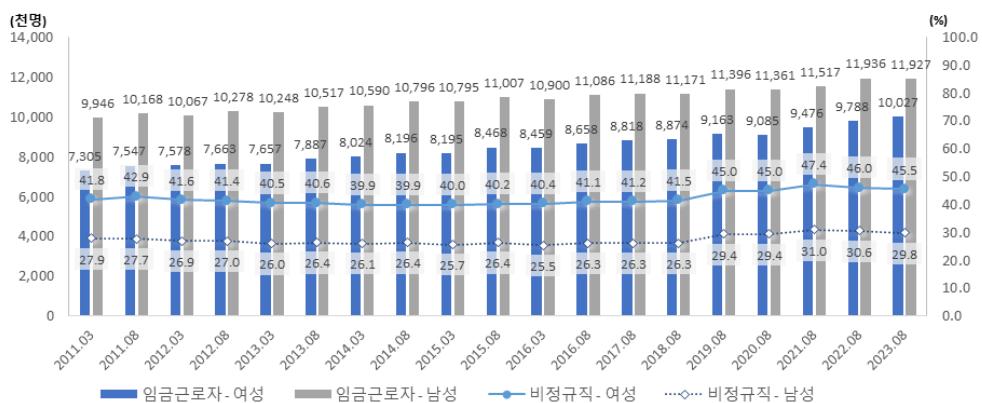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4: 5), 「2023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그림 V-5] 연령대별 전체 육아휴직자

3) 고용

고용 영역은 전체 중 네 번째로 성평등 수준이 높은 상태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등 다양한 정책 개입이 지속된 영역이다. 이에 여성의 고용률이나 경력 단절 여성 비율 등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온 상황이다. 그럼에도 2023년 통계 기준 정규직 비율과 노동시장 직종 분리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정규직 비율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 것을 성평등 개선으로 본다.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월등히 높다. 남녀 모두 2010년대 초반보다 2010년대 중반으로 가면서 비정규직 비율이 더디게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증가하다 2022년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양상이다. 비정규직 비율의 성별 격차는 더디게 좁혀지는 추세였으나, 2018년 이후 다시 15%p 대로 벌어졌다 2021년 16.4%p로 증가, 2022년 15.4%p로 감소 후 다시 2023년 15.7%p로 벌어진 상황이다. 2023년의 경우, 전년 대비 임금근로자 중 여성은 239천명 증가, 남성은 9천명 감소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은 0.8%p 감소하였지만, 여성은 0.5%p 감소하는데 그쳐 비정규직의 성별 격차가 전년 대비 더 크게 벌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V-6] 비정규직 비율 추이(2011년~2023년)

비정규직 규모 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V-5>와 같다. 통계청에 따르면(통계청, 2023), 2023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12만 2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4천명이 감소하였다. 문제는 성별로 나누어 볼 때, 남성은 335만 7천명 (43.8%)으로 전년 동월 대비 9만 6천명 감소하였으나, 여성은 오히려 456만 5천명

(56.2%)로 전년 동월 대비 6만 2천명 증가했다는 것이다. 즉, 전년 대비 2023년의 임금 근로자 규모 변동과 함께 고려하면, 남성은 임금근로자 규모 및 비정규직 규모가 함께 감소하였지만, 여성은 임금근로자 규모도 커지고, 비정규직 수도 증가하였고, 이러한 변화가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의 정규직 비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비정규직을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한시적, 비전형 비정규직은 감소, 시간제는 증가한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여성에서 시간제 증가 폭이 남성의 약 10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남성은 시간제가 17천명 증가한데 반해, 여성은 168천명이 증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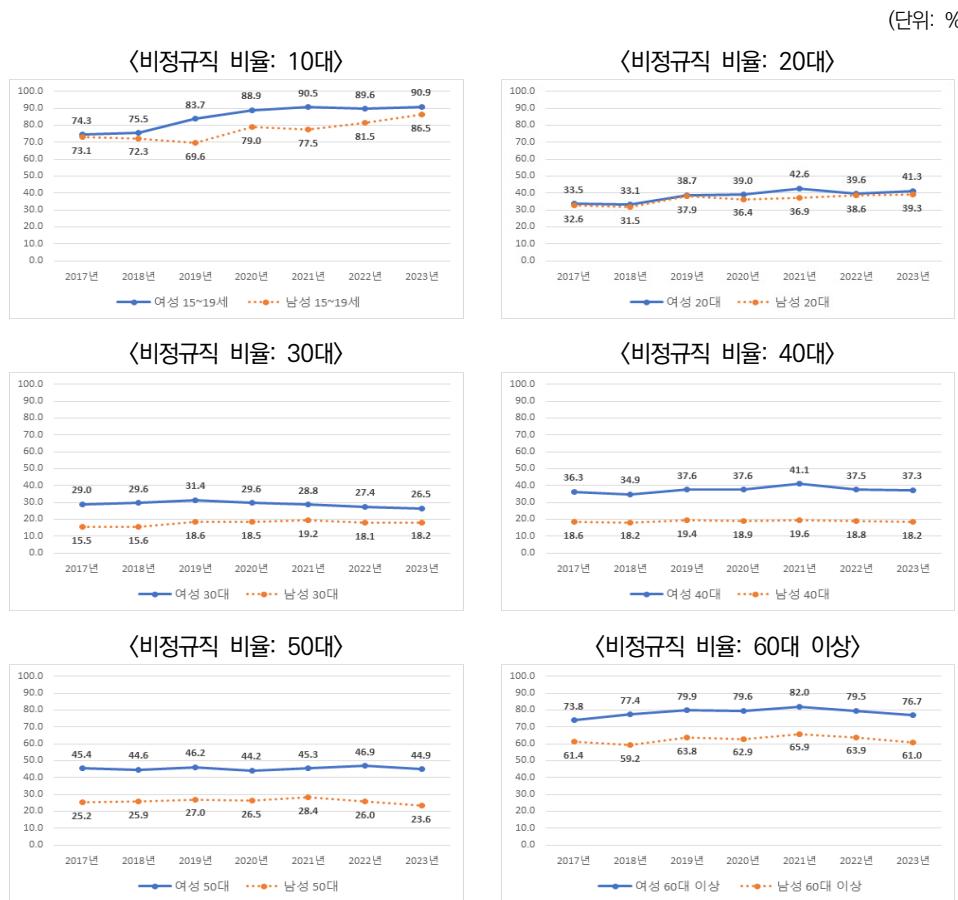
〈표 V-5〉 성별 비정규직 근로자

(단위: 천명, %, %p)

구분	2022. 8.				2023. 8.				증감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전체〉	8,156	5,348	3,687	2,131	8,122	5,259	3,873	1,957	-34	-89	186	-174
남성	3,653	2,368	1,125	1,209	3,557	2,349	1,143	1,090	-96	-19	17	-118
여성	4,503	2,980	2,562	922	4,565	2,910	2,731	866	62	-70	168	-56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남성	44.8	44.3	30.5	56.7	43.8	44.7	29.5	55.7	-1.0	0.4	-1.0	-1.0
여성	55.2	55.7	69.5	43.3	56.2	55.3	70.5	44.3	1.0	-0.4	1.0	1.0

자료: 통계청(2023),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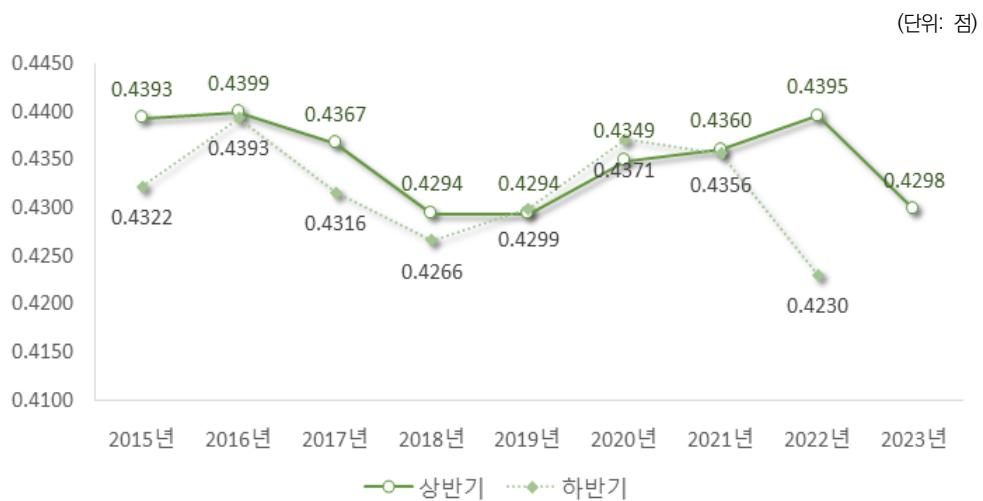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을 연령대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전년동월 대비 60대 이상은 6만 6천명 증가, 50대와 40대는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비중은 32.2%로 전년보다 0.9%p 상승, 50대는 20.0%로 1.1%p 하락하였다. 성별을 고려할 경우, 여성은 10대와 20대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였다.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 2023년 기준 임금근로자 중 76.7%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통계청(2023),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그림 V-7]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

노동시장 직종분리는 성별로 집중된 산업 특성이 남녀의 노동시장 경력형성 및 근로 여건 등의 문제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성평등 측정의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여기서는 던컨지수를 활용해 노동시장 직종분리 정도를 측정한다. 노동시장 직종분리의 경우, 2018년까지 던컨지수가 낮아졌다 2019년부터 상승, 펜데믹 기간 동안 증가하다 2022년 하반기부터 다시 감소해 직종분리 정도가 소폭 회복되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직종분리 정도가 2023년 상반기 기준 약 43%에 달하는 상황에서 직종분리 완화를 위한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4), “통계로 보는 여성”, 젠더리뷰 2024년 봄호, p.54 그림 재인용

[그림 V-8] 노동시장 직종분리 - 던컨지수

4) 의사결정

의사결정 영역은 지속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성평등 수준이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정부는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을 마련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이행상황을 점검해 왔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공공부문은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 개입을 지속하여 왔다. 지속적인 정책 개입의 효과로 4급 이상 관리자 비율 및 경찰, 검찰 고위직 비율 등은 점진적인 개선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국회의원 비율 및 장관 비율, 민간을 포함한 관리자 비율의 개선은 더딘 상황이다.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의 경우,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에 힘입어 일정 수준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유지해 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에 의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명부 매 홀수에 여성을 추천하도록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그럼에도 전체 의석 중 지역구 의석이 약 8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22대 국회의원 중 지역구 여성의원은 36명, 전체 중 12%에 머물고 있다(대한민국 국회).

장관 비율 역시 낮은 상황이다. 장관 비율 세부지표는 2021년 38.5점에서 2022년 20.0점으로 하락하여 2023년 점수를 유지하고 있고, 의사결정 세부지표 중 가장 성평등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이는 장관의 경우, 국회의원과는 달리 장관 중 여성 비율을 제고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입이 부재한 것도 원인일 수 있다. 이에 남녀동수 내각을 구성한

해외 사례들을 참고, 정부조직 고위직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국가성평등지수 활용과 관리 방안

국가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가 성평등정책과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에 국가의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해 국가성평등 지수를 제대로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에 다음과 같이 지수의 활용과 관리 방안을 제안한다.⁴¹⁾

첫째, 국가성평등지수는 여성가족부가 측정, 발표하지만, 각 지수는 관련 부처의 고유 정책과 관련이 있다. 이에 성평등 제고를 위해 각 지표별 수준과 개선을 위한 정책 개입은 관련 부처와 협의 하에 관리되어야 한다. 국가성평등지수는 23개 지표로 구성되고, 각 지표는 측정 결과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4항에 의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양성평등기본법」). 동법 제19조 4항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 조사 결과를 고려해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8조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에 국가성평등지수는 지표별 관계부처 등과 연계하여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관계부처의 역할은 통계 관리와 성평등 지표의 개선 주체로써, 성평등 등락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즉, 여성가족부는 국가성평등지수의 측정과 발표의 주체로서, 국가성평등 수준에 대해 분석하고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대해 관계부처의 장에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관계부처는 해당 지표에 대해 생산 및 관리를 담당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통계생산의 안정적 체계를 갖추기 위해 관계부처 뿐 아니라 통계생산기관과도 협조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즉, 통계 관계부처는 통계 생산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통계 품질을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수집 및 분석해야 할 것이다. 아래 <표 V-6>은 지표별 관계 부처와 통계 생산기관을 정리, 제시한 것이다.

41) 본 제안은 주재선 외(2022), 「2022년 국가성평등보고서」에서 제안했던 부분(pp.114~116)을 인용, 수정 및 보완하여 제시함.

〈표 V-6〉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별 관리와 생산기관

영역	지표	관계부처	통계생산기관
의사결정	국회의원 비율	국회사무처/각 정당	국제의원연맹(IPU)
	장관 비율	-	국제의원연맹(IPU)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원, 검찰, 경찰 고위직 비율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관리자 비율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통계청
고용	고용률	고용노동부	통계청
	정규직 비율	고용노동부	통계청
	노동시장 직종분리	고용노동부	통계청
	경력단절여성 비율	고용노동부	통계청
소득	임금 격차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빈곤위험(비빈곤율)	보건복지부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민연금 수급률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교육	평균 교육년수	교육부	통계청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교육부	교육부, 통계청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건강수명	보건복지부	통계청
	스트레스 비인지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돌봄	가사노동시간	여성가족부	통계청
	육아휴직 참여	고용노동부	통계청
	노인돌봄 분담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양성평등의식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 경험률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둘째,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해 국가성평등지수의 세부지표를 중심으로 부처별 관련 기본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의 경우,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혁신을 목표로 성평등한 일터,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등의 추진 전략을 포함한다. 이에 해당 전략들과의 연계를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는 물론, 돌봄

노동의 가치 제고, 국민연금 수급률 제고, 경력단절여성 감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7〉 주요 기본계획과 국가성평등지수 연계

기본계획	관계부처	국가성평등지수 중 관련 영역 및 지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관계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경력단절여성 비율 - 소득: 국민연금 수급률 - 돌봄: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 참여 등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법원검찰경찰고위직 비율, 관리자 비율 - 고용: 고용률, 정규직 비율, 노동시장 직종분리, 경력 단절여성 비율 -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수명, 스트레스 비인지를 - 돌봄: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 참여, 노인돌봄 분담 - 양성평등의식: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성차별 경험률,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고용률, 정규직 비율, 노동시장 직종분리, 경력 단절여성 비율 - 돌봄: 육아휴직 참여 등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여성가족부(2020),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여성가족부(2023),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셋째, 중앙행정 부처는 성평등 관리 지표에 대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과의 연계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성평등지수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많으나, 국가성평등지수는 각 부처의 성별영향평가 혹은 성인지예산과 연계되어 분석되는 비율이 높지 않다. 국가성평등지수의 활용은 성주류화 제도와 결합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성평등지수가 측정되면 성 불평등이 높거나 개선된 지표 혹은 성평등이 낮거나 개선되지 않은 지표로 분류하고, 성 불평등이 높아진 지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수준과 관련된 사항을 작성해 양성평등위원회와 여성정책조정회의 등에 보고하고 성평등 수준이 부진한 영역과 지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등 주요 중장기 계획 수립 시 성평등 수준이 낮은 영역을 고려하여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개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성평등지수는 e-나라지표와 같은 국정모니터링시스템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국가성평등지수는 보도자료 등으로 공표되지만, DB로 집적하여

통계표로 서비스하는 체계는 미진하다. 성평등 측정 결과는 정책뿐 아니라 국민이 쉽게 한국의 성평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성평등 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 관련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여 성평등지수를 제재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하거나, e-나라지표 등 국정모니터링 시스템에 국가성평등지수를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e-나라지표는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 국정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통계 기반 국정운영을 목적으로 구축·서비스 하는 것으로, 성평등지수와 같이 다부처 간 관리가 필수인 성평등지표는 국정모니터링 지표로써 e-나라지표로 구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국정모니터링 지표로 e-나라지표에 28종의 통계를 제출 및 관리⁴²⁾하고 있다. 국가성평등지수의 측정과 발표 또한 법률에 기반하고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는 만큼, 이를 국정모니터링 지표로 e-나라지표 DB로 구축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단, e-나라지표는 현행 영역별 지표 중 하나로 구축되어야 효과적으로 관리와 홍보가 가능할 것이다. 구축 시 지표의 관리 주체는 여성가족부로 하며, 통계의 분석과 원인 파악은 부처의 협력하에 작성할 것을 제안한다.

42) 해당 지표는 e-나라지표에서 부처별 지표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index.go.kr/unity/potal/eNara/main/EnaraMain.do>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경찰청(2024). 「2023 경찰통계연보」, 경찰청.
- 김경희·주재선·김수정·김은경(2019). 「국가성평등지수 개편 및 활용방안」, 여성가족부.
- 김경희·이민아·이은아·김은경(2020). 「2020년 국가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 김영란·최인희·주재선·정가원·김소영·배호중·박미진·권도연·최진희(2023). 「2023년 가족 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 인사혁신처(2023). 「2023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 인사혁신처.
- 주재선·정성미·한진영·박송이(2019). 「2019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여성가족부.
- 주재선(2021). “국제성평등지수로 보는 한국의 성평등 수준”, 「통계프리즘」, 2021년 겨울호, pp.44~59, 통계청.
- 주재선·김영란·조선미·송치선(2021). 「2021년 국가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 주재선·김효주·조선미·권도연(2022). 「2022년 국가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 주재선·이동선·김효주·송치선(2023). 「2023년 국가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4). “통계로 보는 여성”, 젠더리뷰 2024년 봄호.
- 통계청(2017).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_분류항목명 및 내용설명.
- 통계청(2024). 「2023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2. 해외문헌

- F. Grieg, R. Hausmann, L. D. Tyson, S. Zahidi(2006). 'The Gender Gap Index 2006:A New Framework for Measuring Equality' in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06*, World Economic Forum,
https://www3.weforum.org/docs/WEF_GenderGap_Report_2006.pdf
- OECD(2023). *SIGI 2023 Global Report: Gender Equality in Times of Crisis*, 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4607b7c7-en>
- UNDP(2014).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https://hdr.undp.org/content/human-development-report-2014>
- UNDP(2020). *Human Development Report 2020*,
<https://hdr.undp.org/content/human-development-report-2020>
- UNDP(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2*,
<https://hdr.undp.org/content/human-development-report-2021-22>

- UNDP(2024). *Human Development Report 2023/2024-Technical notes*,
https://hdr.undp.org/sites/default/files/2023-24_HDR/hdr2023-24_technical_notes.pdf
-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2024). *Human Development Report 2023-24: Breaking the gridlock: Reimagining cooperation in a polarized world*. New York.
<https://hdr.undp.org/content/human-development-report-2023-24>
- WEF(2012).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2*, World Economic Forum,
https://www3.weforum.org/docs/WEF_GenderGap_Report_2012.pdf
- WEF(2023).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23: insight report*, World Economic Forum,
<https://www.weforum.org/publications/global-gender-gap-report-2023/>
- WEF(2024).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24: insight report*, World Economic Forum,
<https://www.weforum.org/publications/global-gender-gap-report-2024/digest>

3. 인터넷 자료

-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 경향신문(2024.12.18.), “저출생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자 첫 감소…여성 휴직자가 남성의 3배”,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81506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2024년 12월 24일 접속).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성별 임금 및 근로시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2&conn_path=l3 (2024년 9월 19일 접속).
-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성평등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양성평등기본법>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 - 급여종류별·연령별·성별 수급자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22&tblId=DT_32202_B004&conn_path=l3 (2024년 9월 23일 접속).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 국제의원연맹(IPU), <https://www.ipu.org>
-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 현황,
<https://www.assembly.go.kr/portal/cnts/cntsCont/dataA.do?cntsDivCd=NAAS&menuNo=600137>
- 보건복지부(2020, 2023), 「노인실태조사」.
- 여성가족부(2020),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 여성가족부(2023),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성폭력안전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성희롱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 주관적 건강인지율 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121&conn_path=I3\(2024년 9월 19일 접속\)](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121&conn_path=I3(2024년 9월 19일 접속)).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취업자(성/직업별),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EB0411R&conn_path=I3\(2024년 11월 7일 접속\)](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EB0411R&conn_path=I3(2024년 11월 7일 접속)).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3\(2024년 9월 3일 접속\)](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3(2024년 9월 3일 접속)).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성/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 규모 및 비중(총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106S&conn_path=I3\(2024년 11월 7일 접속\)](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106S&conn_path=I3(2024년 11월 7일 접속)).
- 통계청, 「생명표」 -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6&conn_path=I3\(2024년 9월 4일 접속\)](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6&conn_path=I3(2024년 9월 4일 접속)).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 통계청, 「육아휴직통계」.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부가조사」 - 경력단절여성 현황(시도/연령·교육정도별),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GIABRM19_007&conn_path=I3(2024년 11월 7일 접속).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전국 직업/성별 취업자(소분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3B32S&conn_path=I3(2024년 11월 7일 접속).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3

Barro and Lee(2018), <https://barrolee.github.io/BarroLeeDataSet>



부 록

〈부록 1〉 국가성평등지수 지표	129
〈부록 2〉 국가성평등지수 영역별 통계표	132
〈부록 3〉 여성폭력지표 통계표	139

<부록 1> 국가성평등지수 지표

〈부표 1-1〉 국가성평등지수 지표

목표	영역	지표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동등한 권한 의사 결정	국회의원 비율	국회의원 비율	25세 이상 인구 대비 국회의원이 차지하는 비율 성비(여성/남성) ▶ 지역구 및 비례대표 대상	국제의원연맹(IPU)	4년
		장관 비율	장관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국제의원연맹(IPU)	1년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공무원 인원 비율로 조정된 4급 이상 공무원 성비(여성/남성) ▶ 정부업무평가 대상기관 기준 일반직(연구, 지도직 포함), 외무, 별정직 공무원 대상	인사혁신처,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	1년	
	법원, 검찰, 경찰 고위직 비율	판사(법관), 검사,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율 성비(여성/남성)	인사혁신처,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	1년	
	관리자 비율	15세 이상 취업자 중 관리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성비(여성/남성) ▶ 2018년 직업분류(제7차 개정)상 관리직: 공공 및 기업 고위직,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전문서비스 관리직,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등으로 구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자원의 동등한 접근 고용	고용률	15~64세 고용률 성비(여성/남성) * 고용률: 만 15~64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정규직 비율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형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비율 성비(여성/남성) ▶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 합의 기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노동시장 직종 분리	던컨의 성별 상이성 자수(Index of Dissimilarity)로 측정된 값 ▶ 통계청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직종 기준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1년	
	경력단절 여성 비율	기혼여성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가족 돌봄의 사유가 아닌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 비율 * 측정 지표는 비취업이 경력단절 사유가 아닌 비율 활용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부가조사	1년	
	소득	임금 격차	시간당 임금에 대한 성비(여성/남성)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년

목표	영역	지표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주기
평등한 관계	교육	빈곤위험 (빈곤율)	시장소득 중위 50% 이하 소득자 비율 성비(여성/남성) * 시장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사전이전지출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1년
		국민연금 수급률	60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수급자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	1년
		평균교육년수	15세 이상 인구에 대한 평균 교육년수 성비(여성/남성) ▶ 각 학교급별 중퇴자는 초등중퇴 3년, 중학 중퇴 7.5년, 고교중퇴 10.5년, 전문대중퇴 13년, 대학중퇴 14년, 석사·박사중퇴 17년으로 계산 ▶ 재학 중인 학생 수 제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분석	1년
	건강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만 18~21세 인구 중 고등교육기관에 재적학생 비율 성비(여성/남성) * $\frac{\text{고등교육기관 재학생}}{18\sim 21\text{ 세 인구}} \times 100$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년
		주관적 건강상태	19세 이상 인구 대상 조사 결과, 자신의 전반적 건강상태에 대해 '좋음'이라 응답한 비율 성비(여성/남성) ▶ 건강상태 좋음: '매우 좋음'+'좋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년
		건강수명	기대여명에서 유병기간을 뺀 수명 성비(여성/남성) * 유병기간: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는 기간	통계청, 「생명표」	2년
	돌봄	스트레스 비인지율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평상시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을 100에서 뺀 수치의 성비(여성/남성) ▶ 스트레스 느낌: '대단히 많아'+'많아'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년
		가사노동 시간	20세 이상 인구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을 취업자 비율로 조정한 가사노동시간 역성비(남성/여성) * 가사노동시간: 경제적 목적이 아닌 가사 업무(음식준비, 청소 등)와 가족 보살피기(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부모 보살피기 등) 시간의 총 합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5년
		육아휴직 참여	당해 연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의 역성비(남성/여성)	통계청, 「육아휴직통계」	1년
		노인돌봄 분담	일상생활 수행이 불편한 노인들의 비공식 돌봄자의 역성비(남성/여성)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분석	3년

목표	영역	지표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주기
양성평등의식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여성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 ▶ 여성인권 존중: '매우 존중된다'+'존중되는 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1년
		성차별 경험률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받은 차별 경험 비율 성비(여성/남성) * 측정 지표는 차별 비경험률 활용 ▶ 차별 유형 ① 신체적/언어적 차별: 폭행, 위협, 놀림, 조롱, 폭언, 인격적 모욕, 무시 ② 고용 관련 차별: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정년, 퇴직, 해고 등의 불이익 ③ 재화/용역 차별: 교통수단,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당하는 거절이나 불이익 ④ 사회적 차별: 결혼·친구 관계의 회피, 집단으로부터 따돌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1년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12세 이상 인구의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비동의 비율 * 4개 문항 비동의 비율의 평균 활용 ▶ 비동의: '전혀 동의하지 않음'+'동의하지 않음' ▶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문항 ①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② 가족의 의사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③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④ 가족 돌봄(자녀, 부모 등)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3년	

<부록 2> 국가성평등지수 영역별 통계표

가. 의사결정

〈부표 2-1〉 국회의원 비율

(단위: 명, %)

구분	2021	2022	2023
전체	300	295	299
여성	57	55	57
남성	243	240	242
여성 비율	19.0	18.6	19.1

자료: 국제의원연맹(IPU) 홈페이지

〈부표 2-2〉 장관 비율

(단위: 명, %)

구분	2021	2022	2023
전체	18	18	18
여성	5	3	3
남성	15	15	15
여성 비율	27.8	16.7	16.7

주: 여성과 남성의 합과 전체는 다를 수 있음.

자료: 국제의원연맹(IPU) 홈페이지

〈부표 2-3〉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단위: 명, %)

구분	2021	2022	2023
전체	10,047	10,167	10,220
여성	2,165	2,356	2,561
남성	7,882	7,811	7,659
여성 비율	21.5	23.2	25.1

주: 정부업무평가 대상 기관 기준, 일반직(연구·지도직 포함)·외무·별정직 공무원 대상

자료: 인사혁신처(각년도),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

〈부표 2-4〉 법원, 검찰, 경찰 고위직 비율

(단위: 명, %)

구분	2021	2022	2023
전체	6,057	6,115	6,146
여성	1,712	1,804	1,877
남성	4,345	4,311	4,269
여성 비율	28.3	29.5	30.5

주: 판사, 검사, 경찰간부(총경 이상) 대상

자료: 인사혁신처(각년도),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

〈부표 2-5〉 관리자 비율

(단위: 천 명, %)

구분	2021	2022	2023
전체	393	436	475
여성	64	64	78
남성	329	373	398
여성 비율	16.3	14.7	16.4

주: 1) 15세 이상 인구

2) 여성과 남성의 합과 전체는 다를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나. 고용

〈부표 2-6〉 고용률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전체	66.5	68.5	69.2
여성	57.7	60.0	61.4
남성	75.2	76.9	76.9

주: 15~64세 고용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2-7〉 정규직 비율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전체	61.6	62.5	63.0
여성	52.6	54.0	54.5
남성	69.0	69.4	70.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2-8〉 노동시장 직종분리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Duncan 분절지수	43.5	42.6	42.8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부표 2-9〉 경력단절여성 비율

(단위: 천 명, %)

구분	2021	2022	2023
경력단절여성	1,448	1,397	1,349
경력단절여성 비율 (비취업기준여성 대비)	44.7	46.1	47.5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부가조사.

다. 소득

〈부표 2-10〉 (시간당) 임금

(단위: 원, %)

구분	2021	2022	2023
전체	19,806	22,651	22,878
여성	15,802	18,113	18,502
남성	22,632	25,886	26,042
임금 성비	69.8	70.0	71.0

주: 시간당 임금 = 월임금총액 ÷ 월간총근로시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부표 2-11〉 빈곤위험(빈곤율)

(단위: %)

성별	2021	2022	2023
전체	21.1	20.2	19.9
여성	22.9	22.3	22.0
남성	19.1	18.1	17.7

주: 시장소득 중위값 50% 이하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부표 2-12〉 국민연금 수급률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전체	47.0	49.5	49.1
여성	38.5	41.4	41.8
남성	57.1	59.1	57.8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라. 교육

〈부표 2-13〉 평균교육년수

(단위: 년)

구분	2021	2022	2023
전체	12.4	12.5	12.6
여성	11.8	11.9	12.1
남성	13.1	13.1	13.2

주: 15세 이상 인구. 재학 중인 학생 수 제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분석.

〈부표 2-14〉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전체	70.3	71.5	74.9
여성	72.0	73.1	76.6
남성	68.6	69.9	73.3

자료: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마. 건강

〈부표 2-15〉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전체	36.5	38.4	38.4
여성	33.4	36.1	36.1
남성	39.7	40.9	40.9

주: 1)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생각하는 분율

2) 만 19세 이상 대상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부표 2-16〉 건강수명

(단위: 년)

구분		2018	2020	2022
건강수명	전체	64.4	66.3	65.8
	여성	64.9	67.2	66.6
	남성	64.0	65.6	65.1
기대수명	전체	82.7	83.5	82.7
	여성	85.7	86.5	85.6
	남성	79.7	80.5	79.9

자료: 통계청, 「생명표」.

〈부표 2-17〉 스트레스 비인지율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전체	71.3	71.8	71.8
여성	68.7	69.7	69.7
남성	73.8	73.9	73.9
성비	93.1	94.3	94.3

주: 1) 스트레스 비인지율은 100에서 스트레스 인지율을 뺀 비율임.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분율임.

2) 만 19세 이상 대상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바. 돌봄

〈부표 2-18〉 가사노동시간

(단위: 시:분)

구분	2014		2019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여성	4:02	2:27	3:50	2:24
남성	0:54	0:40	1:06	0:49

주: 20세 이상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부표 2-19〉 육아휴직 참여

(단위: 명, %)

구분	2021	2022	2023
전체	175,110	202,093	195,986
여성	132,913	147,528	145,531
남성	42,197	54,565	50,455
여성 비율	75.9	73.0	74.3
남성 비율	24.1	27.0	25.7

주: 2023년 수치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각년도), 「육아휴직통계」.

〈부표 2-20〉 노인돌봄 분담

(단위: %)

구분	2020	2023
전체	100.0	100.0
여성	76.1	75.0
남성	23.9	25.0

주: 일상생활 수행 행위별 비공식돌봄자의 성별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분석.

사. 양성평등의식

〈부표 2-21〉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매우 존중	존중 되는 편	존중 되지 않는 편	전혀 존중 되지 않음	매우 존중	존중 되는 편	존중 되지 않는 편	전혀 존중 되지 않음	매우 존중	존중 되는 편	존중 되지 않는 편	전혀 존중 되지 않음
전체	11.2	71.5	16.4	0.8	10.0	74.6	14.9	0.5	9.9	71.4	17.3	1.4
여성	6.8	71.0	21.0	1.2	7.3	73.8	18.4	0.6	7.5	69.5	21.1	1.9
남성	15.7	72.1	11.8	0.5	12.7	75.5	11.4	0.4	12.2	73.3	13.5	1.0

주: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부표 2-22〉 성차별 경험률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전체	7.6	5.4	8.2
여성	10.4	7.6	10.7
남성	4.6	3.1	5.7

주: 지난 1년 동안 성차별 경험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부표 2-23〉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단위: %)

구분	2020	2023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전체	51.0
	여성	56.2
	남성	45.8
가족의 의사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전체	64.5
	여성	72.5
	남성	56.4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전체	62.3
	여성	69.6
	남성	55.0
가족 돌봄(자녀, 부모 등)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전체	62.6
	여성	70.3
	남성	54.9

주: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부록 3> 여성폭력지표 통계표

〈부표 3-1〉 성폭력 범죄 발생비

(단위: 건, 인구10만명당 건)

연도	발생건수	발생비
2017	32,234	62.3
2018	31,396	60.6
2019	31,396	60.6
2020	29,467	56.9
2021	32,080	62.1
2022	40,515	78.8
2023	37,752	73.6

주: 발생비는 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를 의미함.

자료: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경찰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부표 3-2〉 여성 실해 발생비

(단위: 건, 인구10만명당 건, %)

연도	전체	여성	남성	미상	발생비		여성 비율
					여성	남성	
2017	301	153	147	1	0.59	0.57	51.0
2018	309	154	152	3	0.59	0.59	50.3
2019	297	154	138	5	0.59	0.53	52.7
2020	308	138	164	6	0.53	0.63	45.7
2021	270	128	142	-	0.49	0.55	47.4
2022	275	137	137	1	0.53	0.53	50.0
2023	278	131	147	-	0.51	0.57	47.1

주: 1) 발생비는 인구 10만명당 피해 건수를 의미함.

2) 여성 비율은 미상을 제외한 비율임.

자료: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경찰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부표 3-3〉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 경험률

(단위: %)

구분	성폭력 유형	여성	남성
2019	성추행 (폭행/협박 미수반)	0.7	0.0
	성추행 (폭행/협박 수반)	0.0	-
	강간미수	0.0	-
	강간	-	-
	성희롱	0.8	0.0
	성기노출	0.6	0.1
	스토킹	-	-
	음란 전화 및 메시지	2.0	2.3
2022	불법촬영	0.1	0.0
	PC,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	5.6	6.6
	불법촬영 피해	0.3	0.1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의 유포 피해	0.1	0.1
	성기노출 피해	0.2	-
	성추행 피해	0.3	0.1
2023	강간(미수) 피해	0.0	-

주: 1) PC,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는 다음 8개 세부유형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임.

-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링크 등을 전송받았다.
- 음담 패설, 성적 농담, 성적 희롱을 당했다.
- 은어 사용 등의 성적 비하, 모욕이나 성적 폭언 등의 공격을 받았다.
-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성적 만남(성관계)을 제안받았다.
- 단톡방 등에 나에 대한 성적 모욕, 비하의 글이 올라왔다.
- 내 개인정보가 성적인 글, 음향, 사진 등과 조합되어 게시되었다.
- 누군가가 나를 사칭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 모욕, 비하 등의 글과 말을 전하거나 게시했다.
- 나의 촬영물을 요구받았다.

2) 불법촬영 피해는 다음 4개 세부유형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임.

- 나의 동의 없이 신체가 촬영된 적이 있다.
- 나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적이 있다.
- 나에 대한 촬영물이 성적 이미지와 합성, 편집된 적이 있다.
- 나의 신체 일부 혹은 전체, 성적 행위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

3) 촬영물이나 허위 영상물 등의 유포 피해는 다음 7개 세부유형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임.

- 나의 동의 없이 촬영되어 유포된 적이 있다.
- 촬영에 동의했던 촬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된 적이 있다.
- 나에 대한 촬영물에 성적 이미지가 결합되어 유포된 적이 있다.
-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받은 적이 있다.
- 합성이나 편집된 허위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받은 적이 있다.
-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추가로 요구받은 적이 있다.
-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 성관계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

4) 강간(미수) 피해는 상대방이 나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성기삽입)를 한 경우,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경우,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성기 제외)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혹은 도구를 넣는 행위까지 포함함.

자료: 여성가족부, 「성폭력안전실태조사」.

〈부표 3-4〉 지난 1년간 가정폭력(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률

(단위: %)

가정폭력 유형	2019		2022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신체적 폭력	2.1	0.9	1.3	1.0
성적 폭력	4.6	0.6	3.7	0.8
경제적 폭력	1.2	0.8	0.7	0.2
정서적 폭력	8.3	6.0	6.6	4.7
통제	25.4	24.5	25.1	24.3

자료: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부표 3-5〉 직장 성희롱 피해 경험률

(단위: %)

직장 성희롱 유형	2015		2018		2021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6.0	1.0	9.7	2.4	5.8	1.8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SNS,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 포함)	-	-	5.5	2.0	2.8	1.8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전화, 문자 및 SNS 포함)	-	-	5.5	2.0	-	-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	4.2	1.1	-	-	-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0.8	0.3	0.6	0.3	0.7	0.4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0.8	0.1	1.1	0.2	0.8	0.2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0.1	0.0	0.3	0.0	0.1	0
화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3.9	0.5	5.4	1.0	2.4	0.6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	-	3.1	0.5	1.1	0.3
특정 신체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2.1	0.3	-	-	-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	-	-	0.2	0.1
성인 잡지(각종 이미지)나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는 행위	-	-	0.4	0.4	-	-
성인 잡지나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는 행위	0.4	0.1	-	-	-	-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노출하는 행위	0.3	0.1	0.5	0.1	0.2	0.1
포옹, 손잡기, 신체 밀착, 안마, 입맞춤 등의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	2.6	0.3	1.0	0.2
신체 접촉을 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1.6	0.1	-	-	-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	-	0.3	0.1	0.2	0.2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0.3	0.0	-	-	-	-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평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	0.0	0.0	0.2	0.1
성적 요구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 주는 행위	0.1	0.0	-	-	-	-
성적 요구를 전제조건으로 고용, 평가 등의 이익을 암시하거나 제안하는 행위	-	-	-	-	0.2	0.1
성적 요구를 전제조건으로 고용, 평가 등의 이익을 제안하는 행위	-	-	0.1	0.0	-	-
성적 요구를 전제조건으로 이익을 제안하는 행위	0.0	0.0	-	-	-	-
심신 상실 또는 향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적 관계를 하거나 시도한 행위	-	-	-	-	0.1	0.0

주: 지난 3년간 1회 이상 발생했다고 응답한 비율

자료: 여성가족부, 「성희롱실태조사」.

〈부표 3-6〉 성폭력 및 범죄 피해 두려움

(단위: %)

성폭력 및 범죄 피해 두려움 유형	2016		2019		2022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평소에 폭행, 강도, 절도 등의 피해를 입을까봐 두렵다	61.5	18.3	58.1	20.6	47.7	13.5
지하철, 버스 등에서 성추행을 겪을까봐 두렵다	-	-	45.8	10.9	39.7	8.6
지하철, 버스 등에서 성추행을 당할까봐 두렵다	49.3	6.7	-	-	-	-
택시, 공중화장실 등을 혼자 이용할 때 성폭력을 겪을까봐 걱정한다	-	-	-	-	51.0	10.3
택시, 공중화장실 등을 혼자 이용할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걱정한다	-	-	62.1	11.2	-	-
택시, 공중화장실 등을 혼자 이용할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두렵다	64.5	8.6	-	-	-	-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을 겪을까봐 두렵다	-	-	-	-	63.4	10.3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두렵다	-	-	73.1	13.4	-	-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을 당할까봐 무섭다	76.3	11.4	-	-	-	-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이 무섭다	-	-	-	-	52.9	9.8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수리기사, 택배 등)이 무섭다	65.3	10.4	63.9	12.1	-	-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촬영 되었을까봐 두렵다	-	-	-	-	40.0	11.6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찍힌 촬영물이 유포 되었을까봐 두렵다	-	-	-	-	35.1	11.6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촬영되었거나 내가 찍힌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을까봐 두렵다	36.1	11.6	41.7	12.6	-	-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성범죄에 활용되고 있을까봐 두렵다	-	-	-	-	41.2	16.7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 성별을 이유로 범죄의 표적이 될까봐 두렵다	-	-	-	-	36.6	11.9
성별을 이유로 범죄의 표적이 될까봐 두렵다	50.9	11.2	48.7	11.0	-	-
온라인상에서 성별을 이유로 성적농담, 음담패설, 욕설 등을 받을까봐 두렵다	-	-	-	-	30.7	10.5
온라인상에서 나의 성별을 이유로 음란쪽지, 음란채팅, 욕설 등을 당할까봐 두렵다	29.8	7.7	34.2	10.7	-	-
길거리를 지날 때 남성들이 모여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신경이 곤두선다	-	-	46.5	13.0	-	-
길거리를 지날 때 남성들이 모여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렵다	52.0	14.3	-	-	-	-

주: 두려움은 '약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 비율

자료: 여성가족부, 「성폭력안전실태조사」.

2024년 국가성평등보고서

2024년 12월 17일 인쇄

2024년 12월 20일 발행

발행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 02-2100-6000 (代)

인쇄처 : (주) 두루행복한세상

전화 / 1644-0728 (代)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1030-10

